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23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4 호

대부분의 불자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며 걱정하는 스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저 "믿기 달라"고만 기도한다는 지적이시다. 나도 사실 처음에는 "주십시오"파 였다. 그런 신행태도를 고친 것은 바로 간절한 참회기도의 가피를 경험한 이후부터다.

홀어머니 손에서 외아들로 자라 늦게 결혼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지 3개월되면서 아직 핏덩이인 것이 뼈에 석회질이 껴있는 특이한 병을 앓게됐다. 부모맘이 다 그렇듯이 정말 대신 앓고 싶었다. 또 의사에게 마구 매달렸다. 그러면서 그 순간 어린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싶었다. 아이가 병에 걸린 것도 모두 내 업(業)이라는 생각이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남 일 우

들었다. 버랑 끝에서 나는 손을 놓은 것이다. 큰스님들처럼 도(道)의 경지는 아니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내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이끌었다. 그때부터 참회기도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업장을 참회합니다." 나의 참회기도는 6개월이 계속됐다. 아이의 담당의사가 놀라움과 함께 기쁨으로 "병이 다 나았다"며 축하해 주었다.

이후 나는 발견했다.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반

"자식 병 걸린것도 나의 業"

성이 따랐다는 것을. 그것이 진솔할수록 자기반성의 강도도 깊었다. 드러내기 쑥스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하루 한차례 이상 반드시 참회기도를 한다. 순간순간이 경쟁으로 이어진 연기 생활은 알게모르게 잘못을 짓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참회문'은 이렇다.

"음식을 먹게 해주시는 분들, 그 덕분에 건강합니다. 그 귀한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받는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고한 뒤에 그때그때 양심에 걸리는 잘못을 되짚는다. 다만 법당을 찾거나 법구를 갖추고 하지는 못한다. 주로 잠들기 전에 하고 수시로 집, 차안, 일터에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28년을 해왔다. 내나름의 기도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나와 집사람(김용림씨) 아들(남성진씨) 등 2대(代)에 걸쳐 세사람이나 탤런트이다보니 내놓다시피 사는 삶이라 비교적 신경이 쓰인다. 그럼에도 참회기도 덕분에 늘 행복을 느끼고 있다.

〈탤런트〉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사찰중심 '관광특구' 개발

문체부, 명승지 연계 17곳 지정
"수행 환경권 보존장치 필요"
문화포교 프로그램 개발해야

문화체육부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3개 도 17곳을 관광특구로 지정, 지방단체들이 유명사찰을 중심으로한 관광코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불교계가 지역사회에 채청적 기여와 함께 지역불교문화 저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찰 문화포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은 천년고찰인 화엄사 천은사 일대를 관광농원과 청소년 수련장 및 기업체 수련원을 갖춘 국제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영광 불갑사에서 여천 흥국사까지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L'자'형 서다해권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강원도는 도피안사 철의 삼각지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일주하는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객유치에 나섰다. 관대걸이-상원사-적멸보궁-비로자나봉-북대사-상원사를 잇는 오대산관광코스 개발도 추진중이다. 충청북도는 수안보 속리산일대 미륵대원과 덕주사 법주사, 충청남도는 안산온천 당리지역 성주사지 영탑사를 거점으로 관광진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전남도청 관광진흥과 심남식씨는 "사찰환경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사찰과 긴밀한 협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단체의 개발계획은 해당사찰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찰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백양사 교무 현묵스님은 "관광객의 무분별한 출입은 수행환경을 해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찰관광지구 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는 총장 부총장등이 나서서 북한주민을 돕기위해 현금 및 쌀을 모으고 있다.

北동포돕기 **교계 '후끈'**

조계종스님 보시금 성금
태고종 쌀보내기 운동
동국대 모금함 설치

아사위기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백양사, 한마음선원 등 사찰 스님들이 활동비와 보시금을 북한돕기운동에 성금한데 이어 태고종이 '한가정 쌀 1말 보내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학내 야외 접수대 및 식당 등에 모금함을 비치, 현금 및 쌀 등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80여 단체는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대구경북운동본부'를 결성, 3억원목표 모금운동을 벌이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회원사찰에서도 북한동포들의 실상을 알리는 플래카드 설치 및 사진전을 열고하고 있다.

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고영삼)은 '청년학생 백만명 일만원 운동'(가칭)을 전개하기로 했다.

조계종, 옥수수 북 전달
5월초 중국경유 신의주에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13일 북경 개성식당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세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식량(옥수수)을 전달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능관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심상련 조불련서기장과 만나 중국의 단동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육로전달 키로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주스님 방북의 건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지도부 성명전
총무원-종회의원모임 이견 심화

중앙종회소원들의 모임이 16일 총무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낸데 이어 총무원도 17일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내용의 반박성명서와 선본사 수입 · 지출내역을 밝혔다.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종광 정우 성문 지원 현소)은 성명서를 통해 "현 집행부는 최고의 의결기관인 종회를 거듭 유회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정스님의 사퇴에 대한 책임과 수습대책 △직영사찰의 재정운영 △주지인사에 관한 공개와 의혹 등 3개항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종단발전을 위해 총무원장 퇴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성명서를 통해 "봉축일을 앞두고 개인의 이해에 집착하여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근거없는 주장을 유포시키는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안타깝다"고 일축했다. 또 선본사 직영사찰운영에 대해 "관련 회계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릉자비원생 '一人一技' 교육 19면
대장경 치목에서 제본까지 9면
아사자 늘고있는 북한 참상 17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4월 테마여행-석굴암 · 남산

■ 참가 안내
◇출발: 4월 26일(토) 저녁 10시 · 조계사 앞
◇안내: 정병국연구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회비: 4만원(조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입금후 현대불교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 마스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월 25일 대흥사-룸 쿠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6월 29일 부석사-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엠투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주)일양약품



◇도원스님



◇인홍스님

도원 · 인홍스님 잇따라 입적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진제당 도원대종사가 지난 13일 오후6시30분 대구 삼보사에서 열반한데 이어 14일 오전10시20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총재 원허당 인홍스님이 세수 90세 법랍 56세로 울산 석남사에서 열반했다. 한국불교 비구 비구니계의 큰 어른의 잇따른 입적에 교계는 애도와 함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세수 77세 법랍 56세로 입적한 도원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7일 오후2시 고문사(주지 법조)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또한 한국비구니계의 수장 인홍스님의 영결다비식은 18일 오전10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석남사에서 봉행됐다.

〈관련기사 5면〉

조계종종회 또 무산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키로했던 조계종 제1백26회 임시종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96년도 결산감사를 겸해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종회는 지난 1백25회 종회가 유회를 거듭한 끝에 산회된데 이어 또다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종회는 개회도 못한 첫 종회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와관련 종회의장 설정스님은 "최근 도완(원로의원) 인홍(전국비구니회 총재)스님의 입적과 부처님오신날 준비등으로 인해 참석율이 저조한것 같다"며 "향후 일정을 택해 종회를 다시 개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인터뷰 3면〉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사유상"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후세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깊이 고민하는 모습과, 출가전 부처님께서 '生老病死'의 의미를 사유하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문화재중 여러점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 78호와 제83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입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더불어 아래로 길게 늘어진 천의 주름이 아름다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고전미와 현대미를 가미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코팅형(브론즈착색)



개 금 형



골동품형

제 품 사 양

품명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청동
가격 :

형태 \ 규격	A형	B형
골동품형	230,000원	350,000원
코팅형	230,000원	350,000원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 규격(폭×높이) A형 11㎝×26.5㎝
B형 16㎝×40.5㎝

보 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2-1522, 737-8881
팩 스 : (02)737-0697

사 설

자비 나누는 봉축행사

불교계 최대의 명절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봉축행사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주제로 25일부터 5월14일까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조계종 봉축위를 비롯 전국의 시도 단위의 봉축위원회가 결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봉축행사는 등의 다양화, 우리옷 입기, 지자체의 참여 유도 등 불교적 사회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자긍심과 일체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혼탁한 사회속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행한 이웃, 갈라진 민족, 굶주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동체대비의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부처님은 고행끝에 깨치신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의 불성을 일깨웠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평등함을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바른 길을 인도하셨고 나아가선 끝없는 고통의 윤회사슬을 벗어나도록 가르치셨다.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오신날이 기쁜 중생들의 날이 되는 것이다. 이 참뜻을 모름지기 우리들은 실천으로 기려야 할 것이다. 근자에 북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 북한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이 심하다는 소식이고 나아가선 아사했거나 아사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세계 여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나 민간단체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형태로 애를 써 왔음을 알고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천으로 자비를 행하시고 중생에게 자비로운 불성을 일깨우신 것도 어쩌면 이런 고통을 깨우치고 벗어날 실천적인 용기를 주기 위한 참뜻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우리 모두 가슴으로 새기면서 북한의 어려운 동포를 불쌍히 여겨 괴로움과 고통을 뽑아주는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펼치는 새로운 날로 새겨보자. 우선 이런 실천을 위해서는 불성이 지펴져야 하고 다음으로는 불성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요인이 제거되어야 하며 끝으로는 주저없는 실천으로 행동화되어야 한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깨우쳐 주셨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 이도 있고 또 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성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불성이다.

우선 움직여 보자. 우선 자신의 마음을 이웃의 고통과 분담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일도록 움직여보자. 다음으로는 이런 움직이는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과감히 제거해 보자. 먼저 자기자신의 내면적인 마음속의 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나만이 고통이 없다면 이웃이야 하는 마음은 없는가. 나의 충족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런 연후에 자신의 실천적 자비의 불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 막고 있을 장애요인은 없는가를 살펴보자. 정치적 사회적인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이질성은 어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등을 깊이 살펴 이를 과감히 직면하여 동질성을 높이고 이질성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이런 실천의 결과는 당장은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멀리는 개인의 불성을 실천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이런 자비로움이 온누리를 뒤덮어 이 세상이 아귀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유토피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열린마당



◇불교방송 성금모금법회 장면.

성금의 투명성

성금·후원금 모금이 보시형태로 관행화된 가운데 성금의 투명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94년 일명 '일력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소쩍새마을 성금포탈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교방송 성금지출에 의혹이 제기됐다. 성금에 담긴 뜻과 어떻게 관리 활용돼야 하는가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시금 허술히 쓸수없는 공유물

일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우리에겐 성금이라는 말보다 보시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한다. 보시중 으뜸은 무주상보시다. 뜻을 으뜸으로 그렇게 낸 마음자리 그 자체를 가장 값지게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라고 본다. 그러니 성금을 내는데 있어서 이러저러하게 재고 따지는 분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처음 낸 그 선한 마음자리를 이러쿵 저러쿵 해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시금(성금)은 불교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교단의 공유물이고 특정한 쓰임새를 정하고 모은 성금은 승단의 지도아래 집행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최근 종단에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준조세라는 시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행의 기본인 보시 희사의 선행을 유도하는 것 또한 종단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모금 본래 취지대로 사용돼야

신관호 〈동국대100주년사업본부 부장〉

모금은 재원 확보라는 본래의 의미 외에도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공유하는데 있다. 또 모금은 마련된 기금을 통해 기금을 쾌척한 사람들은 물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 여타 시설 및 비전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안고 있다. 다만 모금은 공익과 사회환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동국대 역시 모금의 본래 취지아래 성숙된 모금문화 조성 및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동국대는 단순히 '돈을 내라'는 차원이 아닌 구체적 사업을 제시한 팸플릿 등을 통해 후원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국대 발전이 곧 불교계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

성금의존 지양 재정운영 검토

신희권 〈자비의 전화 사무국장〉

요즘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모아지는 성금과 관련하여 유용 횡령 등의 단어들이 교계에서 흘러나오더니 대부분의 소문들이 사실로 나타나 충격이 크다. 이런 사태는 우리 스스로가 명분만 있으면 가장 간편하고 쉽게 성금방식을 택하고 있고 티끌처럼 모여진 보시금의 소중함에 대해 도외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불사를 추진할때 불자들의 성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찰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불사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성금(보시금)이 모금부터 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함이 제일요건이라 하겠다. 모금주최측의 무책임성이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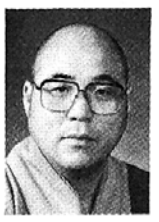
바른 사용위해 안전장치 필요

이지혜성 〈불자·서울시 광진구〉

불교방송이 생기면서 '자비의 전화'를 통해 불교를 더 잘 알게된 불자의 한사람이다.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가 생겨 조금이라도 방송에 도움을 주려고 매달 조금씩 성금을 냈는데 불교방송사고 직후 좀처럼 마음이 안생긴다. 아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불자들의 성금후원은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본다. 이처럼 성금내는 사람은 순수한 불심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외면한다면 사회법에도 걸리지만 스스로 죄업을 쌓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정성어린 성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한다. 많은 불사를 위해서도 불자들이 더이상 신심떨어져 성금내는 것을 고민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진단



보각 〈중앙승가대 교수〉

보시금을 내고 받고 써서 회향할 때 불교에는 삼륜청정이라는 기본원칙이 있다. 주는사람 받는사람 쓰이는 곳이 다 깨끗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회가 현대화 된 만큼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전의 소쩍새마을의 '일력사건'도 후원금의 유용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요즘 소쩍새마을이 승가대 부설로 정상화되면서 가장 신경쓰는 업무가 후원금의 투명성이다. 또 목적을 자세히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금을 낸 사람이 확인 가능한 감시기능과 성금을 내면 정확히 영수증을 첨부하고 공론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주고 받고 씀'이 깨끗해야 영수증·지출 공개 제도화

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부기재등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가 만들어졌어도 의식이 따르지 못하면 허울좋은 구실일 뿐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떤 것을 남에게 베풀고 환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시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해서 복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성금이나 보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육바라밀 중에서 가장 근본은 보시의 공덕이다. 보시를 통해서만 불국정토를 이룰 수 있다. 결국 실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말씀중 경제운용방법을 보면 '열에 하나는 남에게 이익되게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성금은 무엇보다 내가 베품으로 해서 남을 이익되게 해주는 자비의 실천행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성금을 내는 착한 마음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단 한푼이라도 투명하게

교계 성금현황

재정 공개등 운영 내실화 절실
"장부없이 주먹구구 사용되기도"

교계의 성금모금과 관련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불교방송의 건립성금이 장부기록없이 쓰여졌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성금이 제대로 쓰여지나하는 의구심조차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계의 성금모금은 동국대 승가대를 비롯한 교육불사와 조계종이 벌이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등 단체들의 북한동포돕기,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군불교진흥회의 장병위문품보내기, 재난구제를 돕는일 등 다양하다.

약정 성금도 동국대 3백25억 8천만원 승가대 86억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8억 4천2백만원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모금 3억7천여만원(탁발 1억7천 방생법회 약 2억(추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1억6천여만원 군불교진흥회 1천8백만원등 가시화된 금액만도 총 4백24억 1천여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불교방송 지방국개국성금 복지단체 후원금, 단위사찰들의 모금까지 더하면 성금액은 더 커진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성금모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게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계종의 한민족공동체 성금모금운동이 내부적으로 일부에서 준조세형식이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지만, 명분을 고려하면 불교복지를 위해 종단차원에서 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반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매년 복지시설의 확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펼쳤던 '포대화상' '연등' 저금통을 제작해 놓고도 최근 성금모금운동의 확산으로 보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보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교계의 특성상 성금접수는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다른 방안을 찾기가 쉽지않다. 그러나 이런 성금모금이 보시금형태로 관행화된 교계에서는 '성금모금 근거자료가 없는 관계도 있는 등 부실한 처리로 불신을 유발시키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가짜 승려 일력의 소쩍새마을의 후원금 전용사건이 채 가시기전에 터진 불교방송의 공금유용사건은 극에 달해 불자들에게 불신과 충격을 주고 있다.

성금은 투명성 확보가 생명이다. 교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금모금도 일정기간의 모금액수와 모금의도를 제시해주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며 접수하는 곳도 영수증을 첨부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혁종단이 투명성확보를 위해 기안했던 사찰재정공개 등 내실화된 운영이 꼭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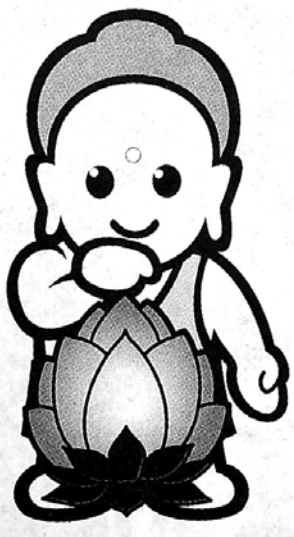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불기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대재

■ 일시 : 1997년 5월 11일 (음 4.5) 오후 4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 행사내용
1부 ▸ 문화행사 (오후4시)
2부 ▸ 연등대재 법회 (오후5시)
3부 ▸ 제등행진 (오후6시 15분)

제등행진 길
부산역광장(출발) - 부산진역 - 부산진시장 - 불교부산방송 - 범냇골 로타리(해산)



■ 상징물 점등식
일시:4월29일(음3.23)화요일 오후6시30분 장소:부산역 분수대옆

■ 자비의 탁발
일시 : 5월 8일(음4.2) 목요일 오후 4사~5시
장소 : 시청앞 - 광복동 - 대청동 - 국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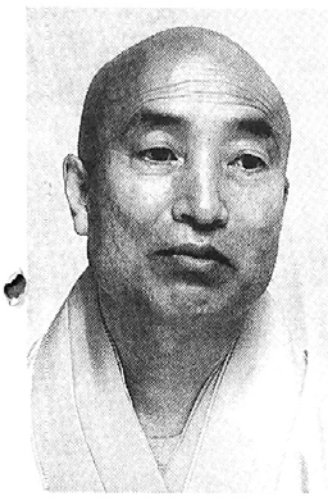
■ 문의
전화 (051)867-0501 전송(051)867-0504

부산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대 회 장 성 오 수석부대회장 춘 광
준비위원장 도 봉 봉행위원장 류진수

부산시민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5월11일(일) 오후4시 부산역 광장 으로 온가족이 함께 오십시오.

"종회 정상화 당면과제"

수요 인터뷰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승가는 수행집단…정치 모방 금물"

"종회-집행부 '수레바퀴 협조' 필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종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주의를 떠나 불자사명에 입각해 종단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종도들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고 투명하게 일을 풀지 않거나 정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황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종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해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부류가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최근들어 종회가 몇차례유회 됐습니다. 결국 126회 종회는 개회조차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부덕한 의장의 소치이며 지도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종회가 몇번 유회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회나 집행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격한 일, 생각하지 못한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이러한 분위기가 발생돼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럽습니다.

-몇명 종회의원들이 종회의 유회가 집행부의 노골적인 유회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종회를 유회시켰다면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종회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쪽만이 잘 굴러간다면 누구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원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종회의 역할이 대화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불문하고 현재 종단내 여러 현안들이 불거져나왔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요인이야 어떻든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종정스님 사퇴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입니까.

▲종정스님께서는 종단사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으시며 사리관단도 분명하십니다. 종정스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는 진실을 모르고 정성껏 모시지 못해 사부대중께 죄송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승가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수행집단입니다. 이것이 곧 개혁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잘 지키는 것 또한 개혁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노출된 여러 현안들은 결코 수레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양측이 다 투명성을 가질 때 가능하겠지요. 이것이 보장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종단의 안정을 위해 총무원장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단의 안정을 위해 대화를 하자고 하면 못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김중근 기자

신도교육·조직 체계화 '기대'

조계종 전법도량 규정안 마련 '의의'

수도권·전남북등 취약지역에 역점

대사회 역할 강화…예산 마련 '과제'

조계종이 전법도량 지정을 위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전법의 해 주요사업으로 계획된 전법도량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법의 해 운영위원회(위원장 혜창 총무부장)는 이에따라 5월초 전법도량 지정 규정 공포 및 신청 공고, 지정을 위한 실사, 6월 전법도량 지정, 이후 지정기념 순회법회 봉행 등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규정(안) 마련은 무엇보다 신도입문 및 기성신도의 의무교육, 재적사찰 갖기 정착을 통한 '교육된 불자의 조직화'를 위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법도량은 신도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해 신도 입문교육 및 기성신도의 심화교육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대신 종단의 예산지원과 주지인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총무원은 전법도량 제도가 활성화되면 교육되고 조직화된 불자를 통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신행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교원 김관태포교과장은 "여러 통계를 종합해볼 때 신도수의 감소추세와 정기적인 신행층이 엷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점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포교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94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종교행사 참여율(월 1회 이상)은 21%로 1천만 불자 가운데 218만명만이 정기적 신행층으로 나타났다.

또 전법의 해 선포식 이후 부진했던 사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총무원은 탁발 방생법회 등 각종 대형행사를 치루면서 전법의 해 사업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벤트 위주의 총무원운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단이 차분히 목적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범사찰보다 포교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되는 거점사찰 지정 및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포교 중요 지역과 취약지역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

전국에서 불교세가 기독교세보다 열악한 지역은 5개 시·도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기독교인구의 77% 수준이다. 전북의 경우는 가장 심해 42% 수준에 머물며, 인천은 62%, 경기도는 90%, 전남은 72%에 머물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들 지역에 거점사찰을 우선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기대를 뒷받침할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말의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종회에 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법의 해 관련 예산은 일체 상정하지 않았다. 전법의 해 지정이 종회 이후에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우선 시범사찰 5곳에 5백만원, 거점사찰 5곳에 2천5백만원씩의 지원 등 모두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구상하고 있다.

총무원은 지방교부금의 일부 또는 직영사찰 분담금 일부를 전법도량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내부방침이나,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지방교부금의 경우도 교구본사에서 반대할 경우 무리한 집행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정성운 기자

목어 '두 사람'

나라안이 온통 썩고 있다.

한보사태의 악취가 들출수록 심해지는데, 경주고속철 공사가 총체적 부실이라니 아연실색 할 뿐이다.

검은돈을 받고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마저 속이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의 모습이 고속철 부실공사와 다를게 무엇인가.

"한보측 인사를 만난적도 없다. 돈을 받은 일은 더더욱 없다. 하늘에 맹세코 깨끗하다." 한보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은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다 검찰조사를 받고나면 돌변하고 있다. "대가성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망어, 양설, 기어, 악구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할 경우 '망어 10죄'를 받게된다. 항상 비방받고 나쁜소문이 퍼지며, 참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근심이 많고 등이 그 내용이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부끄러운줄 모르고 안이하게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인줄 모르면 더럽게 사는 일이다. 비록 고생을 겪더라도 義를 취해 청백하게 사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어서 받았다.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거짓말, 번명등은 이미 지은죄위에 '부정직'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더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치인은 공익을 주관하기에 더욱 정직해야한다. 워터게이트사건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이 아니라 "불탔었다"는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



"일체중생 무명벗자" 생명 축제

초파일 전통연등 재연 의미와 유래

신라 影燈 화랑의 기상·願 담아

부처님오신날을 한달여 앞두고 연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는 봉축위원회가 17종을 재현하고 있는 것을 비롯 각 사암에서 전통연등을 재현키로해 더욱 뜻깊게 받아들여진다. 연등(燃燈)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불자들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무명을 벗고 깨달음에 이르고자 등을 달고 불을 밝힌다.

연등은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간등(看燈)이란 이름으로 시작돼 국가적 행사로 치뤄졌다. 고려시대에는 2월 15일 풍년을 기원하는 연등회, 11월 5일에는 팔관회가 개최됐으며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사는 고려말기부터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연등회가 종합적인 문화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등의 종류도 다양했다. "봄철의 좋은 밤을 가리어 법석을 절에서 베푸니 천만개의 아름다운 등불이 찬란하기가 광명의 바다같다"는 〈봉은사연등도량문〉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전통연등으로는 연꽃등, 수박등, 마늘등, 거북등, 학등, 어등, 수복등 만자등, 거북등, 자라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국유사〉〈동국세시기〉〈열량세시기〉〈경국세시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등만도 30여종류가 된다.

특히 〈삼국유사〉에 의하며 등을 만들어 놀이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영등(影燈)이 바로 그것. 영등안에 갈이틀을 만들어 종이를 잘라 말을 타고 사슴, 노루등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 갈이틀에 붙여 놓으면 바람에 의해 빙빙 돌게 되며 밖으로 비추어 나오는 그림자를 보며 즐기는 것이다. 이 영등에는 삼국통일을 위해 미륵반가유상에 기원했던 화랑도들의 기상과 원광법사의 살생유택의 정신도 내포돼 있다.

또한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뜻으로 마늘등, 한지를 이용 수(壽), 복(福)자 등을 새긴 수복등, 사물을 이용한 종등, 법고등, 목어등을 만들었다. 신분에 따라 등의 모습도 다양했다. 왕실에는 봉황등, 청룡등 황룡등을 달았으며 사대부들은 매란국죽 사군자를 그린 등을 달았다. 이밖에도 지역이나 환경 등에 따라 수박등, 참외등, 모란등, 가마등, 항아리등 남산등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84년 전통연등 33가지를 재현했던 해곡스님(열반종 총무원장)은 "전통등을 재현하는 것은 연등축제를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불사다"고 강조했다.

연등축제가 불교인만이 아닌 국민적 종교축제로 거듭태어나기 위해 전통등 재현은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봉축위 재현 전통연등

수박등, 어등, 용등, 북등, 새우등, 참외등, 마늘등, 석류등, 탑등, 종등, 코끼리등, 봉황등, 법륜등, 목어등, 석등등, 원앙등, 거북등

기 자 회 견 전 문

제126회 중앙종회가 성원미달로 유회되었습니다. 산적한 종단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종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유회된 것에 대해 종회의원으로서 사부대중 앞에서 참회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현 집행부는 또 공공연하게 종회를 유회시켰습니다.

4월15일 중앙종회가 성원미달로 또다시 유회되었습니다. 4월1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무부장 혜창스님은 '다음주 개회예정인 제126회 임시종회에서도 안건이 심의되지 않고 유회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사회언론에 종회유회 작전의 음모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언행과 음모는 파행과 비리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현 집행부의 음모요 나아가 불교발전을 저해할 해종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주요 종책을 결정하고, 종단의 이익을 대표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종회를 거듭 유회시킨 현 집행부는 사부대중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참회를 해야만 합니다.

중앙종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을 잇는 것입니다.

종정예하의 사퇴는 산적한 종단현안을 외면한 채 개인의 명예에 집착하여 종무행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집행부에 대한 질책임은 전 종도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질책을 겸허히 받들고 종단현안 해결에 매진해야할 총무원 집행부는 오히려 종회를 유회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종단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회의원들을 불평불만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신 종정예하의 권위를 훼손하고 중앙종회를 무시하는 현 총무원 집행부는 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을 방해하는 작태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자성하지 못한채 거듭 반민주적인 음모로 오늘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사부대중의 엄중한 경책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재차 강조해두는 바입니다.

현 총무원 집행부의 파행과 부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찰운영의 투명한 재정확보라는 전제하에 지정된 직영사찰은 이제 선심성 종권유지자금 및 음성적 자금의 본원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주지인사정책의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본사와 보문사등은 그 실예중의 하나입니다. 선본사의 경우 95년과 96년 도합 30여억원을 부당지출하였으며 심지어 집행부 간부가 개인적 횡령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 물증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현 총무원 집행부가 주창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금조성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이 선심성 지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총무원 집행부는 공개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불교방송의 횡령사건은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00억대의 횡령액이 일개 직원에 의해 저질러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송사 간부는 물론 현 총무원 집행부 간부의 개입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교방송 사태가 증폭되자 겸직조항까지 위반하며 불교방송 이사를 맡았던 총무원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여 사부대중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불교방송 횡령사태의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직권남용과 종헌종법 위반, 종회지적사항의 불이행 등 종무행정의 파행운영의 대한 사례가 무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무원 집행부의 직권 남용과 종무행정의 파행운영은 부처님 오신날의 봉축 분위기를 훼손시키는 분규조장 행위라는 것을 전 종도들에게 밝힙니다.

종단바로세우기에 사부대중이 함께 합시다.

총무원집행부의 비리은폐를 위한 종회유회 작전에 일부 종회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은 막중한 종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행위이며 종단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종회의원들은 비록 각 교구본사에서 선출되었지만 종단의 발전을 위해 각 교구본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집행부의 종무행정을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며 종단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종회의원의 진정한 소임임을 모든 종회의원들이 다시금 되새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종회가 파행운영되면 그 어느 곳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대중공사의 장을 벌려 종회의원, 집행부, 사부대중이 공개적으로 종단바로세우기를 논의하는 불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파행과 부정을 자행하는 총무원 집행부를 바로잡고자하는 우리 중앙종회의원들의 파사현정 수행에 사부대중의 뜨거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997년 4월 16일

총무원장스님에게 공개질의합니다.

1. 종정예하의 사퇴로 법어가 없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무원장께서는 종정예하의 사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수습하여 실추된 불교의 위상을 다시 살릴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회의원들이 제기한 직영사찰의 파행운영에 대해 총무원 집행부는 투명운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직영사찰의 재정운영과 주지인사에 관해 공개하여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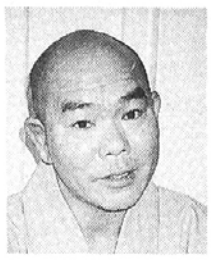
3. 불교방송이 부정횡령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무원장스님은 96년 7월29일 불교방송이사로 취임한 후 97년 4월 7일 부정횡령의 파문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불교방송 이사 취임이 과연 적법한 일인지, 현 불교방송의 부정횡령에 총무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요구합니다.

이상의 질의 사항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까지 공개적인 자리나 신문지상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답변이 없다면 위의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종단발전을 위해 퇴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 공동대표 : 주종광 이정우 이성문 최지원 박현소 합장

"한글세대 스님들에 도움됐으면…"

고려대장경 사분율 60권 완역 철 우 스님



"한글세대 스님들이 쉽게 계율을 공부할 수 있도록 번역을 결심했습니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사분율(四分律)〉 60권을 완역, 28일 과계사에서 가질 출간기념회를 앞두고 있는 철우스님(과계사 영산율원장)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스님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고문을 정확하면서도 알기 쉬운 현대문으로 바꾸는일. 계율은 일종의 법률이므로 모호한 표현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수행자가 지켜야 할 필수규범은 사분율이지만 일본책의 번역본은 있으나 고려대장경을 직접 번역한 것은 스님이 처음이다. 스님은 행여 원문의 뜻이 잘못 전달될까봐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사분율 완역에는 93년부터 꼬박 4년여가 소요됐다.

지난 66년 해인사 율원에서 수학할 때 본격적인 전문율원을 꿈꿔왔던 스님은 앞으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율서도 엮어낼 계획이다.

"전국 1백여곳에 책을 보냈습니다. 스님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님은 많은 학인들이 책을 읽고 질책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윤호 기자



정신대할머니 소쩍새마을 위문

Focus

현생의 업과 전생의 업을 겪고 있는 정신대할머니와 소쩍새마을 원생들과의 만남.

7명의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들이 11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소쩍새마을을 찾았다.

역사의 아픔을 감싸안고 살아가는 정신대할머니들은 자신의 고통은 뒤로한채 선천적 혹은 후천성으로 사지가 뒤틀리며 자폐증으로 고통받는 원생들을 위로한 것이다.

2백여명의 원생들을 일일이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품에 보듬어주며 짧은 사랑을 나눈 정신대할머니들은 그동안 모아온 용돈으로 소쩍새마을이 펼치는 '땅 한 평사기운동'에 동참했다.

도필선 기자

혜등스님 입적 사리 42과 수습



78년 미국 뉴욕과 애틀란타에 전등사를 창건하고 20여년간 왕성한 포교활동을 벌여온 혜등스님(65 사진)이 10일 입적했다. 지난 9일 귀국, 다음날 자신이 창건했던 충주 용화사에서 입적한 혜등스님은 68년 덕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미국에 가기전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종단 및 불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12일 치뤄진 다비식에서 42과의 사리가 나오자 용화사는 16일 초제 겸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용화사는 미국에서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한 후 경내에 부도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키로 했다.

"4·19혁명은 禪定문화 발현"

하나로 포럼 제4차 발표회

"4·19혁명은 선정(禪定) 문화의 발현이며, 선정민주주의야말로 21세기 불국정토를 여는 상생공영의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월혁명과 평화적 정권교체-선정문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하나로포럼(상임공동대표 고준환)에서 조영건 4월혁명연구소장(경남대 교수)은 발제문을 통해 "4월혁명의 뜻을 되새겨 이 땅에 선정민주주의를 개화시키고 21세기 선정문화의 정토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수성 前국무총리도 "4월혁명정신은 2541년전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의 불국정토사상의 현대적 표현"이라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와 가르침, 정토사상은 자비와 평등, 민주주의의 높은 가치를 일깨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현 국민회의지도위의장, 박철언 자민련부총재, 이부영 민주당부총재, 정천구 영산국제산업대 총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우승용 문화일보논설위원,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 등 토론자들도 이 주장에 동감을 표하고 "미완으로 끝난 4월혁명을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꽃피우자"고 다짐했다.

김재경 기자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등 캠페인 6,368,110원 △성남정토법당 등 9개 단체 10,377,65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9,046,350원 △김남식 2,000,000원 △나월스님 1,100,000원 △곽영구 1,000,000원 △지하스님 500,000원 △방기연 314,000원 △김은애 300,000원 외 170명 〈16일 현재 총223,092,04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교차로

btn 대표이사 재임



태응 불교TV사장 스님은 15일 열린 불교TV 제17차 이사회에서 대이사에 재임됐다.

28일까지 천연염색 展



성파 통도사 서운암스님은 23일부터 28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1 전시실에서 천연염색전을 갖는다.

장성군의회 감사패 받아

지선 백양사 주지는 15일 고불총림 복원불사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성군 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귀순자 가족 환영식 참석

자용 동국대 불교대학원동문사회복지회장(수국사 주지)은 16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귀순자 가족 환영식 및 위안공연에 참석,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자용스님은 18일 수국사 주지 재취임 진산식을 가졌다.

동림동문회 정기총회

성웅 동국대 동림동문회장 스님은 14일 남산타워호텔 렉스룸에서 '97 정기총회 및 자랑스런 동림인상 시상식을 가졌다.

'명인 명무전'서 바라춤



자은 하와이 불은사 주지스님은 24일 오후7시30분 연강홀에서 열리는 제15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에서 바라춤을 공연한다.

부산 시립병원 법당 개원



효종 바라밀포교원 원장스님은 26일 오전11시 부산시립병원 내 법당 개원식을 갖는다.

보현사 신협 이사장 취임

지성 옥포 용연사 주지는 18일 영남권 유일의 조계종 불교신용협동조합인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의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회승사 봉천동 이전개원

용담 화승사 주지는 최근 관악구 봉천 11동 173-51로 사찰을 이전했다. 연건평 총 80평 3층. (02)883-7030

북한식량문제 간담회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은 17일 신도회관에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북한 식량문제에 관한 비디오 상영 및 간담회를 열었다.

동원 장학금 2억원 전달



김재철 동원육영재단 이사장(동원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동원산업빌딩 대강당에서 대학생·대학원생 63명에게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편운문학상 본상 수상

홍기삼 동국대 문과대학장은 제7회 편운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2일 오후6시 동숭동 문예진흥원 대강당.

민학회 여주군 문화답사

김종규 민학회장은 27일 여주군에서 제128회 민학회 공동답사를 가진다. 이번 답사에서는 특히 목아박물관에서 박찬수 조각 이벤트, 이애주씨 승무·국악 등 '신명 한마당' 등 문화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02)734-6652

동국대 겸임교수 위촉

김덕수 사단법인 한울림 예술감독(사물놀이패)과 김장숙 한국가정 복지정책연구소 이사장(前 정무2장관)은 3월부터 동국대 겸임교수로 위촉돼 경주캠퍼스에서 풍물놀이와 사회복지학을 각각 강의하고 있다.

붓다클럽 천지회 창립



김만국 붓다제주중앙클럽 천지회 회장은 12일 서귀포 하얏트호텔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대구대불청 회장 취임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장은 13일 대구 성화사에서 봉행된 대불청 대구지구회장단 취임법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교육프로 개발·재원확보 최선"

부산 어린이지도자련회장 정 여 스님



"어린이 포교는 미래불교의 싹을 심고 가꾸는 중대한 불사입니다. 15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침체된 부산의 어린이 포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13일 창립 15주년 기념법회에서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4대회장으로 취임한 정여스님(보현선원 주지)은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또한 정여스님은 "어린이포교는 지도자육성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도자 연수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활동비지급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주력하겠다"며 각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일심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지상 알뜰 재활용시장

현대불교신문·소비자 위·맑고향기롭게모임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와 종단협소비자보호위(위원장 효강), 맑고향기롭게모임(회주 법정)이 공동으로 열고있는 지상(紙上)알뜰 재활용시장이 불자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내놓습니다

이은하 경기도 광명시-PC 286, 보행기
김연순 서울 노원구-성인 아동의류
김혁 서울 서대문구-탈수기
김기숙 서울-360L 냉장고
박정미 서울 노원구-탁상시계, 아동의류
주운영 서울 광진구-손목시계, 책
도현정 부산 남구-2단 플라스틱 선반

필요합니다

이연순 서울 영등포구-세탁기, 아동용서랍장 등
김혁 서울 서대문구-칼라박스
안희주 서울 성북구 -성인용 책상

문의·접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종단협소비자보호위 (02)3452-7485
맑고향기롭게모임 (02)741-4696

게시판

♣ 강좌

인생과 역학=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서윤길)은 26일 작가 윤태현씨를 초청, '인생과 역학'이란 주제로 시민무료특강을 개최한다. 시간은 오후2시며 장소는 학술문화관 제1세미나실. (02)260-3727

소자본 창업 아트플라워=삼전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조화, 생화를 이용한 꽃꽂이 대형화환만들기 강좌를 5월 8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실시한다. (02)421-6077

♣ 행사

북한동포돕기 하루찻집=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진현)은 27일 부산진구 서면 전통찻집 '하나방'에서 북한동포돕기 하루찻집을 연다. (051)469-0458

어린이 포교 하루찻집=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정여)는 5월 3일 전통찻집 '다전'에서 어린이 포교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51)808-4569

♣ 알림

주부모니터교육=(사)청여원(원장 이문우)은 선진시민의식고취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주부모니터 교육 및 실천사업'을 실시한다. 교육은 1조 28일~5월 2일, 2조 5월 12일~16일이며 시간은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다. (02)796-6644

♣ 모집

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광스님)은 사회복지사 5명을 모집한다. 또 양의 한의 물리치료 엑스레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571-2988

♣ 이전

원효연구원(이사장 운제스님)은 지난 15일자로 사무실을 조계사 입구 상운중심 301호로 이전했다. (02)723-0960

訃告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議員 眞諦堂 道圓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여 불기2541년 양 4월13일 (음 3월 7일) 19시 대구 三寶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불기 2541년 양 4월 17일 (음 3월 11일) 오전 11시
■ 永訣式場 : 의성 고운사
■ 茶毘場 : 고운사 다비장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慧庵 合掌
上座 文仁

眞諦堂 道圓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議委員會

증명 : 월하 서옹
장의위원장 : 혜암
부위원장 : 원담 벽암
위원 : 월산 관응 고송 서암 비룡 응담 도천 지종 운경 일타 청하 성수도견 송담 지유 진제 동고 탄성 숭산 법전
상호 : 청하
지도위원장 : 월주
부위원장 : 설정 원산
지도위원 : 지관 암도 초우 혜정 월탄 능가 광덕 고산 법안 보성 도성 덕명 법흥 지명 철웅 무진장 월서 도원 혜성 화엄 정관 법정 월운 학능 현성 벽파 현근 종림 수완 광복 정대 세영 무산 청화 원행 부동 각현 무상 덕상 장곡 지운 인행 법등 정우 신봉 성덕 현소 법일 성타 진현 무착 원명 지하 영담 영환 석호 정우 영배 혜광 원행 성오 자운 명관 진만 지원 영조 보선 혜관 종하 진하 대원 동명 일면 화범 성우 명진 현봉 종광 수진 법성 진관 지만 태응 송산 여연 효림 정휴 장윤 성문 지홍 현지 일법 수현 재운 육문 법용 지훈 진성 본각 해주 홍륜 법타 현응 원우 혜창 향적 원혜 도문 능혜 종산 이두 진철 동춘 적명 고우 무비 휴암 혜국 무여 인각 지환 진허 무문 정일 천운 월성 능엄 인환 성운 정현 지홍 현해 무공 설조 지은 도영 지선 종열 현고 중원 해산 운경 운포 허주 태정 홍교 원명 종원 현로 현관 태허 재곤 종상 삼지 법장 성운 자우 지원 대우 천제 법성 시언 삼보 명선 지성 법철 현광 자광 정락 종범 송산 정산 월호 혜산 백운 선래 중래 혜총 태연 태응 혜춘 상륜 광우 명성 묘엄 태경 자민 진관 명문 현문 제원 일초 도법 수경 원하 우룡 덕민 덕기 서돈각 권익현 박완일 김태호 황수영 최재구 엄상호 송석구 명호근 (무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임직원 일동 초·재심호계위원 일동
소청 심사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선거 관리위원일동
직능대표 선출위원 일동 교육 위원회 일동 전국 포교사 일동
군종법사단 일동 전국 경승 일동 전국 신도회임직원 일동
전국 사찰 신행단체장 일동 전국 향승 일동
교재편찬위원회 각종립학교 임직원 일동 역경위원회
제16교구 말사 주지 일동 제16교구 신도회 일동

집행위원장 : 법조
도감 : 일우 법무 : 명진 정우 외전 : 선용 정각
지객 : 영각 재무 : 동욱 홍보 : 지웅 섭외 : 자현
경호 : 적성 선원대중 다비장 : 종성 시자 : 동오 원주 : 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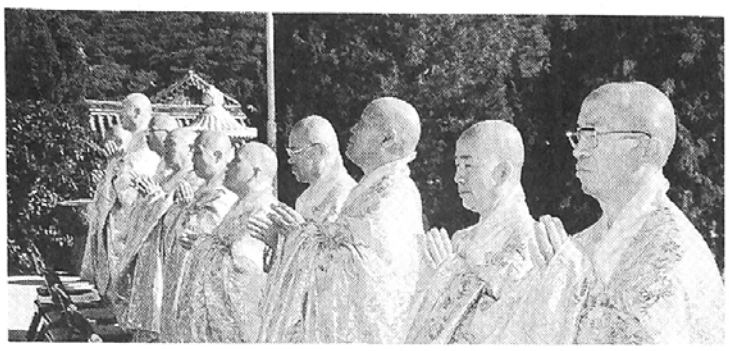
문중대표 : 정영
문도대표 : 문인
상좌 : 문인 혜승 각성 근일 법조 법혜 법문 성주 동욱 경호 철우 선용 동훈 고산 성혜 보경 정우 일우 혜광 대광 성호 자항 정환 자명 방산 법령 법전 지현

법상좌 : 도허 월호
손상좌 : 귀일 성묵 진홍 정원 혜원 덕원 각원 성오 성현 정인 정원 정경 정재 정음 청봉 청하 정우 성오 성현 정명 정관 정각 정우 월천 자현 승현 호성 지웅 정목 동운 동헌 동오 동혜 동월 종현 도현 호정 태현 수현 도륜 등목 선우 도선 법종 각송 벽송 각소 혜각 영각 각현 자각 정학 운담 법전 법일 정혜 승봉 동경 영명 주공 혜일 묘각 명성 명찬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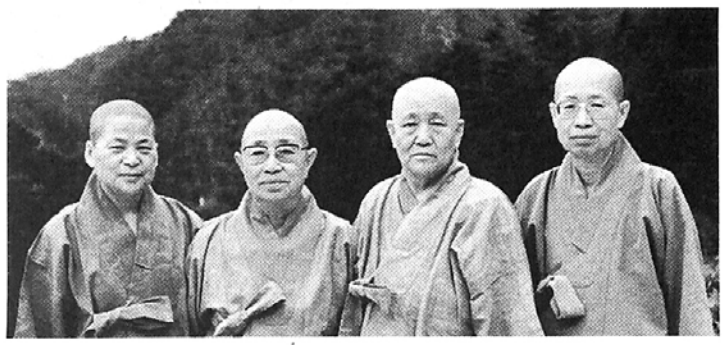
재가제자 : 정관 벽산 자연 의현 법황 정혜

大韓佛敎 曹溪宗 眞諦堂 道圓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議委員會

열반한 두스님



◇ 1991.10.14~19. 제12회 범어사 단일계단 수계산림에서 존증아사리로 법회를 증명하고 있는 도원스님(오른쪽에서 세번째).



◇ 진관사에서 불필(해인사)·인홍·혜춘(전국비구니회 고문)·진관(진관사 주지)스님이 함께 했다(사진 왼쪽부터).

"들고 놓음 흔적 없어"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스님

조석예불 주재 울력도 솔선수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진제당 도원 대종사가 13일 저녁예불을 끝내고 요사채로 돌아온 직후 열반에 들었다. 스님은 이미 예불 도중 인후내부에서 출혈이 있었으나 내색을 않고 예불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상좌등 대중들은 더욱 오열했다.

특히 이날 오전까지도 스님은 대중들과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손수 같이 만들었다. 그후 예불전까지 요사채 방문을 일일이 열고 수고했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 그러나 도원스님은 입적을 예지한 듯 3일전 임종게를 남겼다고 한다.

삼보사 주지로 새벽예불과 저녁예불을 손수 올리는 스님은 남에게 일을 미루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30여년전 상좌인 근일스님(당시 영천 묘각사주지)이 초를 얻으러 방문했을 때 큰스님은 타고 남은 몽당초 1박스를 준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일스님이 박스를 땅에 팽개치고 돌아갈 때도, 또 며칠 후 참회하러 왔을 때도 큰스님은 묵묵히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손상좌 호성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스님은 뒷산에 있는 밭도 직접 매는 등 솔선수범하는 수행자세로 불자들의 표상이 되어왔다. 삼보사 신도회장 이보광화보살(71)은 "김장배추를 사러 리어카를 직접 끌고 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어버이를 잃은 심정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만공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문하에 문인스님(전 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 법조스님(고운사주지) 근일스님(부석사주지) 보광스님(해인사주지) 법혜스님(동국대교수) 동욱스님 방산스님 선룡스님 등 40여명의 상좌를 두었다.

대구=이윤호 기자

행 장

- 1921년 경남 함양 출생
- 40년 일본 대성중 졸업
- 41년 해인사 경하스님 계사로 수계
- 78년부터 5·7·8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80~86년 호계위원장 역임

현재 원로의원 삼보사 주지, 고운사 조실

- 저서 〈전수비구계정범〉〈보살계본범망경〉

임종게

생야몽중사(生也夢中事)
사야몽중사(死也夢中事)
집방무흔적(執放無痕迹)
조계삼보화(曹溪三寶華) 喝
(삼은 꿈 속의 일이요/ 죽음도 꿈 속의 일이로다/ 잡고 놓음에 흔적없으니/ 조계는 삼보로 빛나도다)

"90생 벗으니 둥근달"

비구니회 총재 인홍스님

평소 계행철저·검소한 생활 '귀감'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거성 원허당 인홍스님이 세수90의 생애를 마감하고 열반했다. 비구니 전계화상을 역임하는등 스님은 56세 법랍의 생애를 계에 의지해 청정하게 수행했다.

스님은 세수90의 노년에도 새벽3시 아침예불로 하루를 열었고 반드시 대중들과 발우공양을 했다.

"병중에도 기거하던 방에서 홀로 죽비를 치고 참선을 계속하셨다"고 회고하는 시자스님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스스로는 물론 제자들에게도 계율에 의지해 행동한 자태는 '철저한 수행,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다.

"후원에 반찬찌꺼기라도 버려진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57년 다 허물어져 가는 석남사 주지로 오셔서 법당을 중창하실 때 손수 기왓장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 울력을 하셨으니까요." 맏상좌 진관스님(진관사 주지)은 이렇게 회고했다.

스님은 55년 7월 정화직후 대구 동화사에 첫 비구니총림 설립을 원력으로 동화사 총무를 맡았다. 그러나 끝내 여의치 못해 안타까워 했다 한다. 이후 스님은 석남사 불사에 매진, 선림회(禪林會)를 조직해 8천9백여평의 사답을 매입한다. 이는 당시 종정 효봉스님으로부터 공로상 표창장, 통도사 주지로부터 표창장을 받는다. 스님은 또 56년부터 비구니 직능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86년에는 비구니 전계화상을 맡았다.

현재 인홍스님의 상좌로는 진관 법희(석남사 선원장) 현묵(석남사 유나) 법용 백졸(옥천사주지) 불필(해인사 금강굴)스님 등 20여명의 제자와 혜정스님(석남사주지) 등 직계상좌가 2백여명에 이른다.

부산=천미희 기자

행 장

- 1908년 경북 영일 생
- 41년 월정사에서 정자(淨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5년 선학원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 수지
- 51~52년 성주사선원장 역임 · 54년 홍제사주지 역임
- 56~66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57~76년 석남사주지 역임 · 86년 비구니전계화상역임
- 87년~현재 전국비구니회 총재

임종게

삼세 불조 가신 길을
나도 가야지. 90생애 사바의 길 몽환 아님 없도다. 일엽편주처럼 두둥실 떠나가는 곳 공중에 둥근달 밝을 뿐이네.

정토회 제8차 신앙대회

백화산 달군 5백여 불자 '구도열'



◇ 12,13일 문경 정토수련회에서 열린 제8차 정토신앙대회.

수행담 발표·철야정진 등 신심 다져
"우주 주인은 바로 나" 법열에 환희심

소음으로 번잡한 도심과는 달리 정적이 감도는 백화산 자락의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 새벽 2시가 지난 시각이지만 전국에서 모인 5백여 불자들의 관음정근 소리와 기도는 불심의 열기를 느끼게 한다.

12,13일 '이땅에 정토를!'이란 주제로 열린 제8차 정토 신앙대회. 이번 대회는 매일 오전 5시 정토행자들이 각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만일결사 수행정진을 함께 모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불교의 풍토가 기도 위주의 기복신앙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지만 정토회(회장 법륜스님)는 자력수행의 강조와 북한동포를 위한 기도 등 대사회적인 보살행을 중시한 점이 특징인 모임이다. 참가자들은 수행 법요집을 하나씩 들고 좌정한채 서암스님(前 조계종정)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법문, 정진, 각해보살의 신앙상담, 수행담발표 등으로 이어지는 철야정진에 사뭇 진지하다.

"우주만물을 창출해 내는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 부처를 찾아 참다운 복을 창출해 내는 것 이것이 불교입니다"는 서암스님의 법문에 불자들은 더욱더 정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모습이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남을 미워하고 험담한 것이 얼마나 큰 업을 짓게 되는지를 설명한 각해보살의 '인과법' 신앙상담에는 참회의 눈빛들이 역력했다.

새벽 3시가 지나면서 허벅지를 꼬집어 자신을 추스리며 정진에 몰두하는 불자들이 눈에 띈다. 새벽 기운이 스러질 무렵, 법륜스님은 "밤새워 정진한 여력을 몰아 독립운동하던 마음으로 북한동포 돕기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서암스님 책을 읽고 처음 참가했다는 임정복씨(45·강남구 역삼동)는 "책은 머리로 배우지만 직접 참여해 보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환희심을 표현했다.

정토행자들은 그동안 흩어졌던 마음을 다잡아 정토구현의 서원과 불법의 생활화에 대한 각오를 굳게 하고 밝은 얼굴로 회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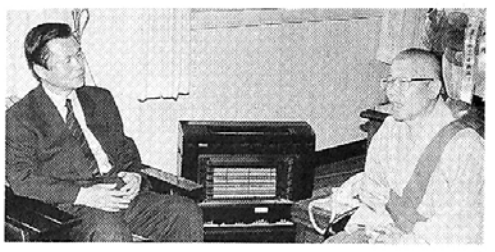
문경=김주일 기자



동포 아픔 나누는 '옥수수죽' 만찬

송월주 조계종총무원장, 김수환추기경, 강원룡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12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에 참석, 김치와 단무지 반찬에 옥수수죽을 먹었다.

이날 만찬은 옥수수죽을 먹으면서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나눠갖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행사다.



인곡스님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환담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은 16일 오후 자민련불자회장 박철언의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인곡스님은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와 정치권의 각성과 함께 정치인들이 조계종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줄 것"을 촉구했다.

박철언의원은 "어려운 시국이니만큼 스님들이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자민련불자회는 불교발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후원대법회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신축불사 후원대법회가 14일 저녁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해 석주(중앙승가대 명예총장) 녹원(동국대 이사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성타(포교원장)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송석구(동국대 총장) 송재건(조계종중앙신도회장)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함종한(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이인제(경지도지사)씨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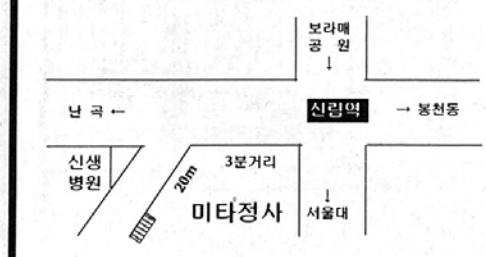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빌딩 별관 2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성타 조계종포교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안동일 재가불자연합 상임공동대표, 명을식 한마음선원신도회장, 명호근 대불련총동문회이사장, 이상번 대불청중앙회장, 이상현 한국공안행정학회장, 김정선 청년여성문화원장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새시대 · 새불교 · 새진리
미(彌) 타(陀) 정(靜) 사(舍)
매일설법 · 철야정진 · 용맹정진

정진일과시간표 (精進日課時間表)

一. 아침예배 : (찬불게), 설법, 정진 (04:00~06:00)
二. 오전정진 : 48대원, 정진 (10:00~12:00)
三. 오후정진 : 아미타경, 정진 (14:00~16:00)
四. 저녁예배 : 중서게 극락세계발원문, 정진 (17:00~18:00)
五. 저녁정진 : (동방게), 설법, 정진 (20:00~22:00)
六. 철야정진 : 찬불송, 발원문, 정진 (24:00~04:00)



연 사 : 연 무 아
(蓮師) (蓮無阿)
☎ 862-5261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 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등의 침치료, 기공등
■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도修 證明書)
■ 인 원 :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 1997년 5월 22일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 (02)511/2026-8

二載佛教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 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바랍니다.
저희는 중간 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教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지리산 참 솔 (松葉汁)



예로부터 소나무는 千年을 산다하여 松壽千年이라 했으며 神仙食으로 스님들께서 많이 드셨던 仙食이며, 조계종 전 종정 성철스님께서도 생전에 산수가 수려한 곳의 솔잎을 드셨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에 솔잎이 각종 순환기 계통은 물론 질병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솔잎즙은 송엽(70%)을 영지, 대추, 감초, 검정콩등과 배합 농축한 자연식품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松葉汁은 : 각종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 은주로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신 분, 손발이 저리고 뒷목이 뻣뻣한 경험을 하신 분, 천식 및 잇몸질환으로 인한 구취로 고생하시는 분,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며 고혈압, 중풍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머리를 맑게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좋습니다.

지리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고의 노력끝에 정직과 자존심을 걸고 지리산자락 하동군 청정지역 황토 땅에서 氣를 듬뿍 먹고 자란 참솔즙을 소개 하오니 전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1日 2-3食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 지리산영농조합법인 제조 코리안헬스

서울사무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4-3 (경순BD401호)
공상경합장 (02)247-4667/8 FAX (02)213-3984
B.B. 015-456-8930

법회안내

손모음선원(02)3437-695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혜천스님
산중기도 매일 오후7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대구 은적사(053)653-1572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법민스님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보름참회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안동 유일사(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안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약사사(0636)453-2422
금강회법회 매월초3일(음)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법회 매월초8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불심정사(02)977-0108
경전한문공부 매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참회법회 매주 금요일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 매주 토요일 오전10시30분
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인천 능해정사(032)519-5552
교리강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회법회 격주 일요일 오후2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제주불교법우회(064)24-0108
월례법회 매월첫째주수요일 저녁7시
참회법회 매월둘째주수요일 저녁7시
가정법회 매월셋째주수요일 저녁7시

고양 장안사(0344)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1시
안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동포애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30여 신행단체가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 돕기운동의 단일창구로 (가칭)북녘돕기불교기구 준비위원회를 17일 발족시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단체들도 모금법회, 바지회, '한주 한끼 굶기 운동' 등 북한 동포돕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모처럼 '한 겨레 한 핏줄'의 끈끈한 정을 확인케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왜 같은 동포를 도와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몸 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 때는 마땅히 비심(悲心)을 일으켜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목숨을 건져 본토(本土)에 안정해 살도록 해야 한다. 〈이난사사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증일아함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본다면 복(福) 덩어리는 바다와 같이 무량하리. 〈법화경〉

○…일체 지수(地水)와 일체 화풍(火風)이 모두 내 전생의 몸이니 항상 산 목숨을 살려주어야 한다. 〈범망경〉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중생을 애호하되 제 몸과 같이 해야 한다. 〈보살행변화경〉

○…모든 생명있는 것들에 늘 편안함을 주며, 늘 자비롭기를 원해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언제나 장수하고 편히 잠자며 또 악몽을 꾸지 않으며 악취(惡趣)를 두려워 않게 될 것이다. 〈해용왕경〉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시방의 온갖 중생을 두루 살펴본 끝에 한 중생이라도 괴로움을 지닌 자를 보았을 때는 자식같이 사랑하여 대신해 괴로움을 받음으로써 그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해 준다. 이런 자비심이 작용하는 까닭에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대비(大悲)의 뛰어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광석보리심론〉

○…세상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갓난애를 젖먹여 기르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만약 병들면 양약(良藥)을 가려 먹여 병을 고쳐서 편안케 해준다. 여래대사(如來大師;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온갖 중생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 보기를 그 자식인것 같이 해서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도록 마음을 쓰시지만, 중생이 악업을 지어 보(報)를 받을 때는 교묘한 방편으로 구제하사 해탈케 하신다. 〈선교방편경〉

○…보살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중생을 성숙시킴이 저들 세속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다. 〈대승장엄경론〉

신행수첩


◇17일 연꽃마을에서 마련한 점심을 공양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의탁노인 급식 · 진료

"잘 움직이지 못해도 이젠 맘 놓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이 배우는 놀이들도 재미있구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시설장 정준구)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동안 식사제공, 질병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비용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무료, 일반 거동불편 노인은 하루 3천원이다.
(02)365-3677

대흥사 불교유적 답사

만물이 약동하는 싱그러운 봄.

남해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조상의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적답사 기행을 떠나보자.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6일 대흥사, 북미륵암, 일지암 등의 일정으로 절도 참배하고 석불도 배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불교유적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좋은 기회. 회비는 4만원.
(02)760-5171

'몽골자매결연' 하루찻집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스님)이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몽골 자매결연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이번 찻집은 28일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포교원 3층법당에서 차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전통등 전시 및 판매도 한다.

한편, 포교원은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도울 봉사자 신청도 받고 있다. 봉사자들은 대회기간동안 안내 및 응원 등을 담당한다.
(051)816-2241

흥덕사지 인쇄문화 탐방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 직지의 고향을 찾아간다.

천리안 문화유산답사회는 직지찾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작은 답사를 마련했다. 이번 답사는 27일 오전10시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을 시작으로 청주국립박물관, 안심사, 용두사지 철당간 등을 둘러보게 된다.

흥덕사는 직지를 처음 찍어 낸 곳으로 유명하며, 용두사지 철당간은 국내에 몇개 남지않은 철당간이라 관심을 끈다. 회비는 5천원. 012-453-3883

국악 · 가무등 경로잔치

모든 행실의 근본은 효(孝).

웃어른을 공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밝아지지 않을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6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베푼다.

부산 금곡사(주지 주도화스님)는 26일 오전11시 수영민속보존협회 놀이마당에서 효자 효부 시상식, 국악연주, 가무공연 등의 순서로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051)758-0636

신행상담 공개방송

스님과 나누는 교리문답의 시간. BBS '자비의 전화'(PD 전승환)가 방송국 개국 7주년을 맞아 공개방송을 한다. 상담자인 송강스님(개화산 미타사 주지), 동봉스님(경기도 곤지암 우리절 주지), 본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을 한자리에 모시고 불자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줄 이번 공개방송은 스님과 함께 신행상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개방송은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28일 오후1시에 열린다. (02)705-5252

송광사 '한가족 가사 한벌짓기' 행사

세존께서 출가하시어 비단옷 버리시고 사냥꾼의 남루한 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것이 출가사문의 법의인 가사(袈裟)의 시초이다. 따라서 가사는 그냥 만들어 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식에 따라 지어서 대덕스님의 증명하에 점안의식을 거쳐야 비로소 법기(法器)로 탄생하게 된다.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현고스님)는 승보의 표상인 가사가 여법한 절차에 따라 작법되지 못하고 있는 차에 모든 조계종 스님에게 한 벌의 법다운 가사를 봉정하기 위한 '불자 한 가족 가사 한 벌 짓기'와 '일만 벌 가사불사'를 추진, 5월2일 대웅전에서 제2차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갖는다.

가사불사에 동참을 원하는 불자는 송광사 본·말사 및 전국불일회 지회로 연락하면 된다. (0661)755-0107~9

나의 수행일기



김 윤 환

마음 열어준 '마랑부' 전설

서점서 무료문화행사 신행공간 마련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십년전, 새벽달을 머리에 이고 은하사를 찾을 때 부터였다.

은하사에서 내려다 보는 산과 강과 도시의 불빛은 우주와 인간세상의 질서와 원융자재한 충일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위에 새벽예불을 드리는 목탁소리가 가슴을 두드려 저절로 두손을 모으게 하였다.

"달빛이 차가운데 들어오세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예불을 마친 스님의 모습이 경건하게만 보였다. 나는 말없이 스님의 뒤를 따랐다. 스님은 자리를 권하며 간단한 차반을 내왔다.

"새벽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비로소 스님께 삼배를 올렸다.

"원융자재한 달은 불교적 이념 구현을 상징하지요. 밝고 원만하되 강이나 바다에 비치는 달은 어느 곳에서나 같은 모습, 같은 밝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구여일한 진리의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어둠속에서 우주만상을 비추는데서 무명(無明)을 상징하기도 하구요."

스님은 금빛 모래 개울가(金沙灘)의 마랑부라는 법문을 전설로 들려 주었다. 마랑부(馬郎婦)는 마씨 낭군의 부인이란 뜻이다. 관음보살의 화현을 뜻하는 말로써, 관음, 마랑관음이라고도 한다. 손에 광주리를 들고 평범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이라 하여 어람관음이라고도 하는데, 〈계고집〉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협우지방을 교화하기 위하여 어여쁜 여자로 나타났다. 많은 남자들이 배필로 삼고자 앞을 다투어 청혼했다.



이에 여자는 밤을 세워 〈보문품〉을 외우는 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였다. 새벽이되니 20여명이 외웠다. 내몸은 하나인데 스무명에게 시집을 갈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금강경〉을 외우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10여명이 되었다. 다시 〈법화경〉 일곱권을 주면서 3일동안 외우라고 하였다. 3일만에 외운 사람은 마씨네 서방님이었다. 여자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마씨를 남편으로 맞았다. 첫날밤, 여자는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니 손님들이 헤어지기도 전에 죽었다. 마씨는 너무나 슬프고 애처러운 나머지 곱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

나중에 어떤 노승이 와서 여자가 간곳을 물었다. 마씨는 묘소를 안내하였다. 노승은 들고있던 석장으로 묘를 파헤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시체가 온통 황금으로 변하여 그날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스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을 치는 것이 있었다. 무덤속의 황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사탐의 양식을 보살심으로 열어주는 나로서는 말없는 침묵으로 죽은듯이 진열되어 있는 책들이라 하겠다. 그 어느 책이라도 그 속에는 한마디 법문이 깃들여 있어, 인생의 행로를 평탄하게 걷게 하는 황금이 아니겠는가.

하루 평균 8천부의 책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점이 나의 주소처라면 산사를 오르는 길은 세속의 번뇌와 티끌을 말끔히 씻어주는 기도처가 아닐 수 없다.

전국에서 문화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서점이 영광도서다. 매달 열리는 독서토론회를 비롯하여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소설학당, 서예학당, 한문학당 등 수년동안 무료강좌가 이어져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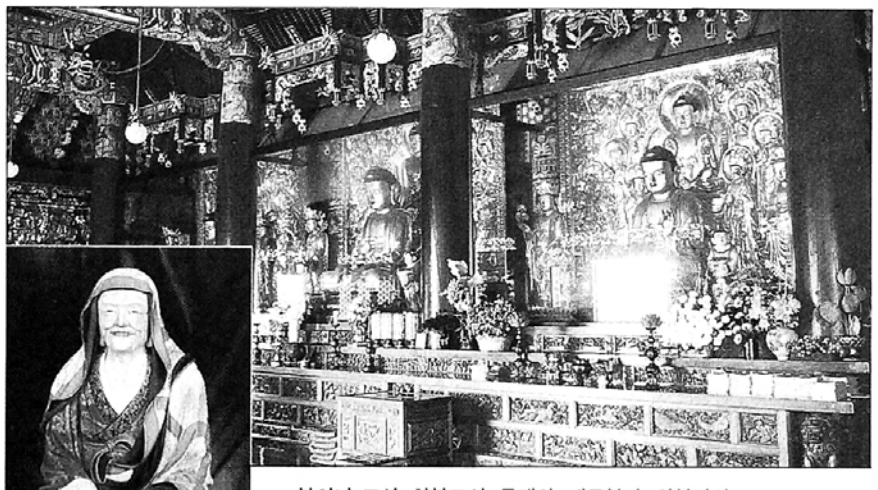
그같은 넉넉한 공간마련은 널리 베풀고자 하는 보살심이라 하겠는데, 경제인 불자의 신행 단체인 부산불교실업인회에 참여하여 매월 사찰순례와 법회개최의 신행생활이 배어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사업이 어려울때나 마음고생이 안으로 쌓일때면 매일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슴을 모두어 하는 백팔배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다. 백팔배야말로 건강은 물론 먼지 낀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는 충만감을 안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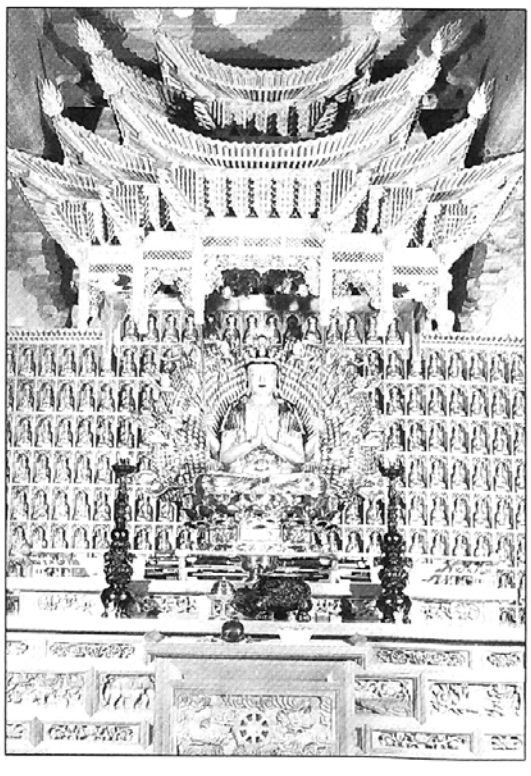
〈부산영광도서 대표이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불자 세상보기

고속철 부실 "적당주의 안된다"

건설공단 안전진단 교량등 39곳 재시공 불가피
2002년 개통 차질…10조원 이상 예산 추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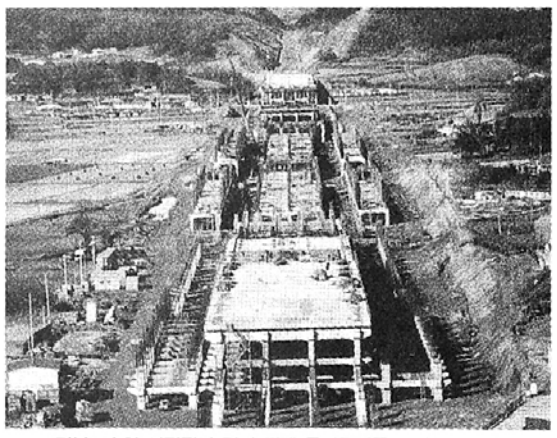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미국 WJE사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천안 1개 공구, 천안~대전 시험선 전구간(61km)에 대한 다리·터널·기초바닥 등에 대한 안전성 진단 결과, 전체점검 대상 1천1백12곳 가운데 재시공이 불가피한 곳이 39곳, 보수가 필요한 곳 177곳, 추가조사가 필요한 곳은 148곳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24.9%인 297곳만이 시공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철도건설공단은 이같은 결과를 16일 발표하고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업체별로 보완시공 계획을 세워 감리단 책임 아래 보수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측과 시공사간의 책임소재 규명을 두고 최악의 경우 법정공방까지 갈 것으로 예상돼 또다른 국력낭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시공업체는 "초기에는 모든 설계기준이 테제베 차량 기준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제시한 국제철도연맹 기준을 준용했다"고 말해 테제베차량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 공단측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부실시공에 따라 경부고속철도는 2002년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빨라야 2005년, 늦으면 2010년 돼야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사비도 10조7천억원(93년 정부 발표)에서 최소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경부고속철 안전진단 결과 전체 공사구간중 21.5%가 재시공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

불교의 눈 "삼풍참사 벌써 잊었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 부실공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심경을 말했다. "적당주의 부실시공은 곧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고속철은 국가 백년대계를 다지는 일이므로 工期와 "예산에 구애됨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사는 재물을 얻고자 지혜를 행하며 기술로써 작업(作業)에 의지하며, 작업을 완수하는 것으로 마침을 삼느니라. 도적은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자 하고 숨겨 감추기를 행하며 칼로써 어둠을 의지하며 발각되지 않는 것으로 마침을 삼느니라." 〈중아함 하욕경〉

지계 금주 파계

두 야당 북동포돕기 나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민간운동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나섰다. 국민회의는 당원 1인당 3천원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자민련도 당원 모금을 벌여 적십자사에 성금을 전달키로 했다.

은행들 부도방지협 구성

●…은행 등 금융권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부도방지협약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권은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채권을 동결하고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趙시장 2등석 해외 순방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베를린 카이로 파리 등 유럽과 아프리카 3개 도시 순방에 나서는 조순 서울시장이 기존관행을 깨고 왕복항공기 좌석을 2등석인 비지니스클라스를 이용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시장은 '긴축'순방을 위해 수행공무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부인까지 동행하지 않기로 했으나, 주위의 만류로 막판에 동부인하기로 결정했다.

벽지학교 책걸상 보내기

●…동양제과는 10일 울릉도내 5개 초등학교에 3백69조의 책걸상을 전달했다. 동양제과는 94년부터 '초코파이' 판매 20주년을 맞아 주고객인 어린이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으로 책걸상 바꿔주기 운동을 시작, 지금까지 전국 5백27개 도서벽지학교에 1만 9천4백조의 책걸상을 교체해주었다.

서울시 中企에 1875억 지원

●…서울시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천8백75억원의 자금을 긴급 방출한다.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공장설립에 따른 임차료와 건축비의 50%이내에서 최고 7억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17일 "올해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운전자금 6백75억원 시설자금 1천1백80억원으로 나눠 28일부터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수 논문표절 자성촉구

●…서울대 고려대 교수 2명이 교수사회와 교우회를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교수들은 14일자 대학신문과 고대신문 기고를 통해 논문표절 성희롱의혹 교수정치활동 등은 정.재.관계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이 썩은 부분을 스스로 바로잡아 자정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 난무

●…검찰이 10일 한보리스트에 오른 33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히자 소환대상으로 알려진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던 한 의원은 조사 이후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중·고생 금지약물 남용

●…우리나라 중·고교생 1천명중 12명이 신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 3학년생의 경우 미국 학생들보다 술 각성제 수면제를 더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7~11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대 광역시의 26개 중·고교생 2만9천8백38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 13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동해 용존산소량 감소심각

●…동해의 용존산소량이 지난 60여년간 계속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2백~3백년내 동해에서 물고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워싱턴대학교 스티븐 라이저교수가 32년~95년까지 동해 2천5백m의 깊이에서 측정해온 용존산소량 농도는 32년 6.05ppm, 70년 5.37ppm, 95년 4.88ppm로 계속 떨어졌다. 용존산소량 농도가 1~2ppm 이하로 떨어지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유명 햄버거 대장균 '우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맥도날드 버거킹 하디스 웬디스 롯데리아 등 5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업체당 2개씩 수거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g당 1백60~4만4천마리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디스의 2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군은 야채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많이 발생, 배탈 등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사고 사망자 하루 73명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수가 하루평균 73명(1년 2만6천6백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한중교수가 94년 한해 동안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사가 암과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 사고사 원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전기감전 가스폭발 사고 등의 순이었다.

시론

우리사회의 버팀목

작금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는 난국을 맞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 이 점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사태가 국부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및 정신적, 다시 말해 다중병세가 뚜렷하다. 그런데다가 계속 정치사회의 깊은 환부가 알려지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한국병이 여간 중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하다.

정신이 멸하지 않으면

오래 자리를 비웠다가 이 땅에 돌아온 한 외국인 관찰자는 이렇게 그렸다. "지금 한국은 버둥거리는 문민정치의 커가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갈피를 못잡는 사회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뜻에선 지금 국민이 심각한 한국병의 징후를 알게 된건 오히려 다행이라 여긴다. 만일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막말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 됐다면 어쩔뻔 했는가. 상상만 해도 두렵다.



김 용 구
〈언론인〉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 모르나, 이따금씩 들리는 말이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그건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다.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이를 기회로 만들려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는게 낫다.

이 점에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다. 자고로 한국인은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의 역사는 다름 아닌 안팎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한국인은 어떠한 역경도 두려움없이 견뎌냈다. 나라를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다짐하지 않았던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이 멸하지 않으면 나라는 부활할 때가 온다."〈박은식〉

오늘 이 나라의 상황은 역(逆)이 됐다. 나라의 형체는 강대해 졌으나 정신이 썩어가고 있다. 우리의 정신이 대오각성해 새로 나지 않으면 형체도 정신도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사회의 양식은 신생의 대의를 다짐하고 펴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 이 어려운 고비를 먼저 정신부터 쇄신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무궁무진한 우주의 불가사의를 '무상'이라 깨치고 선포하지 않았는가. 이 찰라에 중생은 제행무상을 새삼 깨닫고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 우리가 살자면 달라져야 한다.

정치력이 썩고 경제력도 병들었다. 이 나라를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사회력이다. 보통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날 그날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굉생 김밥장사나 행상으로 모은 전 재산을 젊은이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바치는 외로운 할머니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 정성으로 지역 도서관을 지은 할머니도 기억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건전하다. 평범한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한창 왕성한 연배와 늙은이가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기간은 탈없이 건실하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다. 밑바닥 삶을 살아가며 삶의 보람을 체득한 인간혼이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준다. 장하다. 한국의 어머니는!

썩고 병든 자들이 있다. 그건 소수이지 다수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된 자로 자만하고 정예주의를 좇는 소수가 정치, 경제계에 흙탕물을 일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극도로 혼탁하다.

크게 더 크게를 추구하는 경향의 하나가 '카이저 주의'이다. 일종의 패권주의다. 카이저의 예찬자나 추종자일수록 로마제국의 위광에 홀려 로마가 어떻게 망했는가에 대해선 무지다. 천년 동안 로마세방사 조명이 면면히 이어 오는데도 카이저 패권주의 신봉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끝장에 가서 로마는 동방계의 미개한 흉노와 아틸리가 이끈 기마족 침입 때문에 망했는데.

작은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다시 평범하고 작은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주와 삶은 작은 것으로 이뤄진다. 평범한 사람들이 나날의 생활에서 작은 것을 다지고 쌓아 간다. 그렇게 작은 것이 아름답고 진실하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삶이 건강하고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불교 원천에서 나온 현대사상이다. 그러니까 팔정도의 정업(正業), 즉 바른 생활법이 그 원리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존중, 자선시혜를 주조로 한 경제사상이다. 그렇듯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눈동자가 가는 삶의 원리로 우리는 변해야 산다. 작은 것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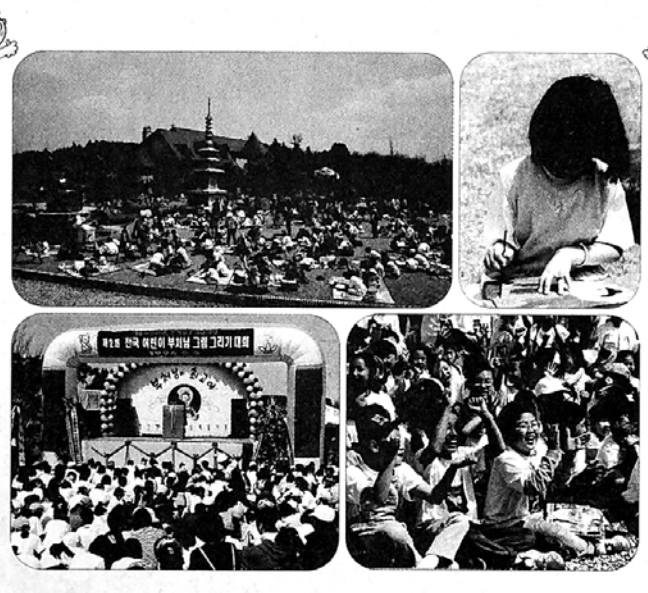
'97 어린이날 기념 ·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제3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 우리들의 부처님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해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치루어졌던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전화: 월간「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37) 85-9952~4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및 어린이 기네스 대회가
어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림보게임: 하늘을 향해 허리를 굽힌 다음 장애물 밑으로 통과하는 경기

멍크슛 대회: 농구공을 튕기면서 덤블링을 향해 달려와 점프를 하면서 농구공을 골대에 넣으면 성공

탑 쌓기: 부모님 또는 선생님, 친구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제한시간 안에 '우물정자' 모형으로 탑을 가장높이 쌓기

우유마시기: 빨대를 이용하여 컵에 담겨진 우유를 가장 빨리 마시는 경기

통과자는 예쁜 스티커와 단계별 선물을 드립니다.

· 일시: 1997년 5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
· 대상: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상: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4명, 동상 6명, 입선 20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
· 참가비: 3,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2,000원)
· 준비물: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모자착용)
· 참가자전원 목아불교박물관 무료입장, 기념 티셔츠, 동화책, 음료수 등 기념품 증정(선착순 1,000명)

주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주최: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후원: 문화체육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불교 미술인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TV, 불교방송,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 보덕학회, 협찬: 서울우유,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한 형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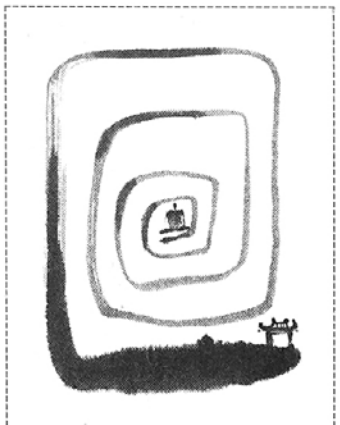
무문관 탐방

④

선의 제창

선에 익숙한 분들이야 번역만 보고도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혹은 내 친절한 번역조차 "평지에 괜히 일으킨 어설픈 풍파"라고 느끼겠지만, 지금까지 세 번의 강의에 갈피 못 잡고 게실 분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무문관〉의 다음 칙으로 넘어가자니 '애매한 것을 더욱 애매하게(obscurum perobscurius)' 만들어 사태를 더욱 헝클어 버리고 말 것같아 몇 마디 해설을 덧붙이기로 한다.

불교는 기록에 의하면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처음 전래되었다. 그 후 200년 넘어 활발한 번역과 격의(格義)를 통해 불교는 중국에 든든한 뿌리를 내린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인도에서 발전된 불교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인도불교의 무진장한 경전들은 번역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두서없이 한역(漢譯)되기 시작했고 이 사태가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분한 논란을 일으켰다. 법화(法華)니 화엄(華嚴)이니 반야(般若)니 유식(唯識)이니 하는 특정한 소의(所依)경전을 축으로 다양한 문호가 세워졌고, 이들은 나름대로 장경(藏經)의 선후와 중요성을 매기고 정돈하는 이른바 교상판석(敎相判釋)을 유행시켰다. 이를 통조하든 비난하든 결국 그것은 언어와 입설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 합리적 사고와 정치한 논증, 치밀한 심리분석과 고원한 형이상학은 우리를 궁극의 구원에로 이끌지 못한다"고 여긴 일단의 학자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창도했다. 이 움직임은 A.D. 5세기말에서 6세기초 〈능가경(楞伽經)〉을 연구하던 조그만 모임에서 발원했다. 거기서 사람들은 불어심위종(佛語心爲宗), "즉 부처가 설한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마음"이라는 구절을 발견한다. (*혜개가 自序의 서두를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 본 사람이 있는가.) 불교의 가르침, 팔만 사천의 법문의 귀착처는 다름아닌 마음 그것이다. 부처가 알리고자 한 소식은 바로 이 마음을 둘러싼 진실이며, 그 구경은 학인들로 하여금 실지 체험을 통해 해탈로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그들은 또 다른 논설을 기획하거나 장경을 종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직접적인 논설만 해도 그 규모를 짐작하기에 유감이 없다. 원효는 입파여탈의 자재의 변증을 통해 부처의 일대 교설을 한 그릇에 담아낸 최후의 교가(敎家)였다.



그렇지만 한켠에선 보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종합이든 분석이든, 결국 그것은 언어와 입설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 합리적 사고와 정치한 논증, 치밀한 심리분석과 고원한 형이상학은 우리를 궁극의 구원에로 이끌지 못한다"고 여긴 일단의 학자들이 새로운 불교운동을 창도했다. 이 움직임은 A.D. 5세기말에서 6세기초 〈능가경(楞伽經)〉을 연구하던 조그만 모임에서 발원했다. 거기서 사람들은 불어심위종(佛語心爲宗), "즉 부처가 설한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마음"이라는 구절을 발견한다. (*혜개가 自序의 서두를 이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눈여겨 본 사람이 있는가.) 불교의 가르침, 팔만 사천의 법문의 귀착처는 다름아닌 마음 그것이다. 부처가 알리고자 한 소식은 바로 이 마음을 둘러싼 진실이며, 그 구경은 학인들로 하여금 실지 체험을 통해 해탈로 이르게 하는 것 아닌가. 여기서 그들은 또 다른 논설을 기획하거나 장경을 종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직접적인

부처님 가르침 귀착처는 '마음'

"체험통해 해탈하라" 禪 교판혁명

둘러싼 논쟁, 그를 통한 논소의 발전이 교(敎)의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확장의 극은 언제나 응축으로 돌아선다. 논의가 분분해지고 입설이 첨예해지면 실지와의 거리가 또한 커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엇갈리는 관점을 정돈하고 대립되는 논설을 새로운 빛 아래 간명하게 종합하려는 경향이 대두한다. 그 중심에 원효(元曉)가 있다. 한 바가지의 해골물에 내장을 씻어낸 뒤 '일체가 마음이 짓는 것(一切唯心造)'임을 통찰한 원효는, "한 마음이 일어나니 온갖 존재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사라지니 온갖 존재가 사라진다"고 외쳤다. 그는 부처의 팔만사천 법문을 특정한 소의경전이 아니라 '마음' 하나에 귀일시키는 교판(敎判)의 혁명을 일으킨다. 모든 경전은 하나인 마음의 다양한 측면을 기술한 것이므로 번다하거나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모든 경전은 그 언어의 제한성과 규격성으로 하여 무한한 마음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 줄 수 없다. 요컨대 마음은 팔만의 법문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배제한다. 이 역설의 논리가 원효로 하여금 모든 입설을 세우고 동시에 부수며, 주면서 동시에 빼앗는 것(입파여탈·立破與奪)을 가능하게 했다.

당대 최고의 학승으로 그는 당시에 한역된 거의 모든 경전을 비평하고 정돈하며 체계화해 나가는 기염을 토한다. 남아 있는 주석과 실천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처음 율종의 사원에 기거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반성적 의식은 주객(主客)과 능소(能所)의 이분을 벗어날 수 없고, 언어와 분석 또한 마음의 직접적인 파지에로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불교가 형성해온 장광설의 전통, 즉 팔만사천 법문을 밀쳐두고 새로운 방법과 통로를 모색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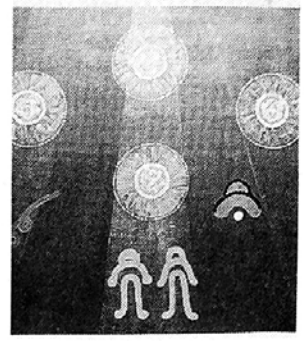
이때까지 불교의 역사는 그 굴곡과 착종의 다기한 변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해 접근한 점에서 정통적이었다. 그런데 선(禪)은 그 최후의 보루마저 돌아보지 않는 획기적인 파격을 감행했다. 혜개가 自序의 서두에서 했던 무문위법문(無門爲法門)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가르침'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파천황의 선언이다. 경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참고삼아 뒤적이는 것에 불과했다. 경전의 가르침을 등불삼아 진리를 찾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했다. 이 모든 취지가 "문은 없다(無門)!"라는 한 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막막한 벽 앞에 섰다. 대체 언어를 통하지 않은 길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또 그 길은 어떤 것이며, 그를 통해 도달하는 곳은 어디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삼업(三業)

法數로 배우는 불교

〈14〉



◇현정 作 '귀의'

행·불행 주체…"깨달아 벗어나자"

흔히 쓰는 말들가운데 업(業)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팔자가 이 모양이냐"하는 푸념에도 들어있고 "이게다 너의 업보니 달게 받아라"하는 질책에도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 업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그리 좋은 감정을 나타내주지는 못하는 것같다. 사람들은 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들을에 죄나 악과 같은 어둡고 칙칙한 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본래 업이라는 말은 범어 까르마(Karma)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위' '조작' '일' '짓'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일체의 활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불경속에서는 이 업이라는 글자의 앞과 뒤에 여러 종류의 다른 글자가 붙으면서 그 뜻을 다각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업이라는 문제를 중생들이 잘 이해하고 극복함으로써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중생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도 죽게도 하며,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주체로 여기셨다. "세계는 업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 또한 업에 따라 존재한다. 수레바퀴가 쐐기에 얽혀 돌아가듯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업에 의해 속박당하고 있다"라는 〈숫타니파타〉의 말씀과 "사람의 행위는 좋은 땅에 잘 뿌려진 씨앗과 같다. 비가 내려 날 때가 되면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와같이 중생들의 악함과 선함으로 하는 행위도 반드시 언젠가는 자라서 과보를 가져 오느니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그 과실을 먹어야 한다"는 〈증일아함경〉의 말씀은 업이 바로 세계와 중생을 견립하는 요인임을 알려준다.

업의 종류를 말한다면 중생들이 짓는 온갖 행위 만큼이나 많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업을 대략 세 가지 요목으로 분류해서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첫째가 발생처적 분류이다. 발생처적 분류라는 것은 업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업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모든 행위를 일으킴에 있어 자신의 몸(身)으로 입(口)으로 마음(意)으로 한다. 몸으로는 행동을 짓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분별을 하는데·이것이 모두 업인 셈이다. 두번째가 윤리적 분류이다. 윤리적 분류라 함은 중생들이 일으킨 신·구·의·삼업이 선하냐, 악하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느냐는 측면으로 업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선업(善業) 악업(惡業) 무기업(無記業)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선한 업에는 즐거운 과보가, 악한 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업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과보가 뒤따른다"고 하셨다.

세번째가 결과론적 분류이다. 결과론적 분류라함은 신구의 삼업에 따라붙는 선업·악업·무기업 등 삼업의 과보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측면에서 업을 설명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은 모든 업에는 늘 과보가 따라 붙는다고 하셨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몸으로는 행동을 짓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분별한다"

금생에 지어 금생에 받는 것을 순현업(順現業)이라 하고 금생에 지어 다음생에 받는 것을 순선업(順先業)이라 하며 금생에 지은 업이 금생에나 다음생에는 받지 않지만 언젠가는 받게되는 것을 순후업(順後業)이라 한다.

그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삼업의 종류들은 대체 어디로부터 기초되며 어디로 귀결되는 것일까. 그곳은 다름아닌 마음이다. 업이 일어나는 곳도 업이 저장되는 곳도 모두 마음인 것이다. "마음은 전생업의 총결과요, 금생업의 일체 종자"라고 한 유식론의 말씀이 이를 증명한다.

많은 불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전생부터 지어온 업이 자신의 마음 밖에 어떤 허공이나 세상에 숨어 있다가 닥쳐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업이 비켜나가거나 소멸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회기도를 하고 공덕을 짓기도 한다.

업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움직이는 마음, 닥쳐오는 일체의 인과를 말한다. 업을 보고 업을 깨닫고 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가지 길밖에는 없다. 그것 역시도, 마음을 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⑬

불교와 수학 ⑦

大數와 小數

김 용 운



항하사·아승기겁 등 무한대 수

1탄지=65찰나=65분의 1초

"선남자들아 과거 무량(無量), 무변(無邊), 불가사의(不可思議), 아승기겁(阿僧祇劫)… 그 때에 부처님이 계시되…"(〈법화경〉 서품)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진 이여, 그대는 이미 시방세계를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 불국토에서 노닌 적이 있는데, 어떤 불국토에 가장 뛰어나고 오묘하고 공덕이 갖춰진 대사자좌가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답했다.

"동쪽으로 36항하사(恒河沙) 등의 불국토들을 지나면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수미상(須彌相)이라고 합니다. 그 불국토의 여래는 수미등왕(須彌燈王)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도 그곳에 안온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키는 84억 요자나이고, 사자좌의 높이는 68억 요자나입니다. 〈유마경중 불가사의한 이야기〉

중국계의 산학책에는 다음과 같은 큰 수, 작은 수가 소개되어 있다.

즉 '대수'는 억(億)·조(兆)·경(京)·해(垓)·자(姊)·양(壤)·구(溝)·윤(澗)·정(正)·재(載) 등 10개의 단위 다음에 새로 극(極)·항하사(恒河沙)·아승기(阿僧祇)·나유타(那由他)·불가사의(不可思議)·무량수(無量數) 등 이것들은 모두 만만(万万)진법(10^8진법:1 뒤에 0이 8개씩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 자리바꿈을 한다. 항하사, 아승기, 불가사의, 무량수 등은 모두 불경에서 착용한 것이다. 1무량수는 1 뒤에 68개의 0이 붙는다.

항하사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또한 이것과 대응하는 작은 수가 있다. '소수'는 분(分)·리(釐)·호(毫)·사(絲)·미(微)·섬(纖)·사(沙)(여기까지는 10진법)·진(塵)·애(애)·묘막(渺漠)·모호(模糊)·준순(浚巡)·수유(須臾)·순식(瞬息)·탄지(彈指)·찰나(刹那)·육덕(六德)·허(虛)·공(空)·청정(淸淨)(이상 만만 10^{-8}진법)이다.

불교적인 비유는 무한소·무한대에 이어진다. 항하사(갠지스 강의 모래알의 개수) 만큼의 많은 나무에 또 그만큼 많은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마다 그만큼 많은 입자가 있다는 식의 사유 형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수일지라도 그것은 유한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수로서 무한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이 발상법을 역방향으로 전개하면 무한소로서의 영의 접근이다. 특히 시간의 단위를 무한소로 분할해 보면 과거와 현재 사이를 경계지을 수 있는 시간의 폭은 없다. 아무리 짧은 폭일지라도 분명한 시간의 길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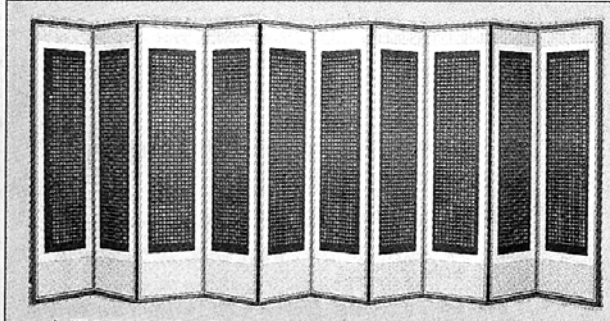
인도의 시간 단위중 불교에 자주 등장하는 찰나(刹那)라는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최소의 시간 단위이며, 인도의 씨름 장사의 한 탄지(彈指)(엄지손가락과 중지를 순간적으로 튕겼을 때 소리나는 시간) 사이에는 65찰나가 있다는 것이다. 약 65분의 1초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찰나에 대한 반대의 말은 '겁(劫)'이다. 인도 고대의 힌두교의 계산에 의하면 1겁은 43억2천만년이다. 그것은 전우주(梵天)의 하루의 반이며, 범전(梵天)의 새벽에 세계가 창조되고 그 해가 질 무렵에 파괴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계산은 아무리 자세히 해도 별로 큰 의미는 없다. 인간의 상상력은 이 엄청난 최소·최대의 시간 앞에 압도당할 뿐이다. 불교에서는 이 찰나와 겁의 말을 비유로써 설명한다. 그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것이 개자성겁(芥子城劫)과 반석겁(盤石劫)이다.

불교는 이런 비유로 무한소·무한대를 인간의 사유 체계에 편입시키고 현대 수학의 논리 체계와 접점을 갖는다. 개자성겁은 '한 변의 길이가 10여 킬로미터의 입방체인 철로 만든 성에 겨자씨가 가득 들어 있다. 백년마다 그 안에서 한 알의 겨자씨를 빼낼 때, 그 많은 겨자씨 전부를 다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겁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또 반석겁은 '각 변의 길이가 10여 킬로미터인 입방체의 큰 바위가 있는데 백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치맛단에 스쳐 큰 바위 덩어리가 모두 닳아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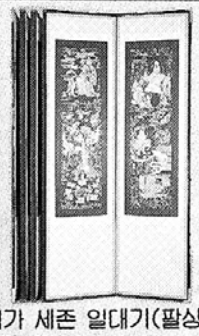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가 보급



◈금강경 10폭병풍 (고급공단 金書)
· 후면 : 석가세존일대기(팔상도)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목후지
봉축특가 : W490,000원



◈부모은중경 10폭병풍 (고급공단 금 서·화)
· 후면 : 반야심경(추사 영인본)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목후지
봉축특가 W4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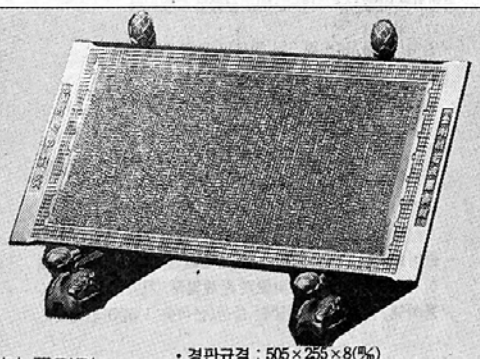


8폭병풍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성도)
· 후면 : 금강경(고급공단 금 서·화)
· 재질 : 스기목/양면비단/목후지
봉축특가 : W390,000원



· 코끼리 꽃꽂이반 350×230(m/m) 특가 W120,000
· 탄생불(코끼리 발침포함) 1자 3치 390㎜ 특가 W330,000



◈천불 금강경
봉축특가 W480,000원
· 경판규격 : 505×255×8(두께)
· 재 질 : 주석(99.9%)24K순금 표면처리
※경판테두리에 천불을 모셨습니다.

국제유네스코 세계유물지정 팔만대장경
국 보 제32호 金銅般若心經



· 규격 : 268×209(두께) · 재질 : 순신주/순금새금 특가 : W80,000원

· 금강호신불시계



금강호신불시계특징
· 1PG순금도금
· 고급금강밴드
· 3기압 방수
· 문자판 양각조각
특가(남·여각) : W50,000원

기획제작전문불사의 집
三田佛事
서울(02)732-6095~6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시방세계

"팔만사천 법문 세상속으로"

대장경 치목에서 제본까지



책은 인류정신의 보고(寶庫)며 계승자다. 그러나 책의 홍수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 책의 출간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책을 만들기도 보기도 힘들었던 옛날에는 책에 대한 자세가 달랐다. 책은 소지하기도 힘들었지만 보물이상으로 애지중지되어 후손에게 이어졌다.

4월 2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책의 날'. 마침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다. 세계적 문화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제32호 · 1237~1248년 판각)이 만들어져 한권의 책으로 인출되기 까지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새삼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책으로 나오기 까지는 치목-판각-인경-제본의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는 치목(治木). 나무를 다스리는 일이다.

지리산등지에 자생하는 산벚나무나 돌배나무, 후박나무 등을 골라 섬진강을 통해 남해로 반출한 뒤 바다뻘에 3년을 삭힌 뒤 그늘에서 말렸다 (취목-삭함-탈림). 돌배나무가 목질이 우수하나 구하기가 어려워 경판의 70% 이상은 산벚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

금구육언(金口玉言)으로 환생할 재목감은 직경70㎝, 수령 50~60년은 족히 넘어야 한다. 목질이 치밀하고 빈형이 작은 겨울에 벌목한 나무여야 상품(上品)이다. 또 바다의 파고를 3년이상 견뎌내야 한다. 산나무에 스며든 바다소금의 기운은 좀을 방지하고 뒤틀림을 막아주어 천년을 견디게 한다.

다음은 대장도감에서 나무를 알맞는 크기로 절단하고 마름질하는 과정. 고려대장경은 남해의 대장도감 분사(分司)에서 제작됐다는게 정설이다. 그외 강화도 등에서도 제작됐다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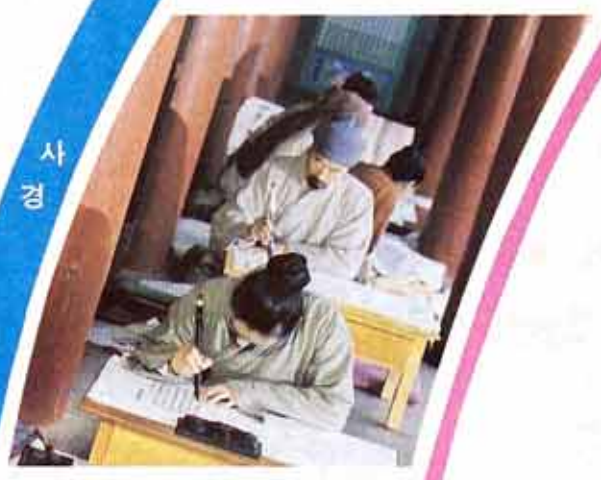
목재는 가로 70㎝ 세로 23~24㎝ 두께 3㎝ 정도로 절단한 뒤 대패질과 끌질을 했다. 판가장자리에는 손잡이를 부착했으며 네귀퉁이에는 미구리를 대어 경판과 글자를 보호했다. 이러한 지혜는 다른나라의 목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이다.

4월 23일 세계 책의날

치목



사경



판각



인경



제본



산벚나무 바다뻘에 3년 삭여
사경후 판목에 정성껏 새겨
먹 칠하고 마력으로 문질러 인쇄
쪽 맞춰 면사로 묶으면 경전 탄생

치목은 경판의 수명이나 인쇄의 질을 좌우함으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이다.

둘째 단계는 판각(板刻).

경 율 론 등을 한지에 필사(사경)한 뒤 판목에 뒤집어 붙인 다음 각수가 글을 새기는 작업이다. 칼만 사용해서 조각하는 법, 칼과 망치를 사용하는 법, 직각으로 새기는 법, 경사지게 새기는 법 등 칼을 쓰는 방법만도 여러 가지. 글자는 판자내의 가로 51㎝ 세로 22㎝ 넓이에 1행에 14자씩 23행을 판각하여 한면에 평균 322자를 새겼다. 한 글자만 어긋나도 경판전체가 못쓰게 되므로 판각은 고도의 정신집중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이다. 옛날 각수들은 판각에 임하기전, 반드시 목욕재계를 하고 예불을 올렸다고 한다. 또한 한글자를 새기기전 반드시 1拜(1字1禮)를 했다는 말도 전해내려 온다. 혼신을 다해 조각한 경판의 글자획에서는 기품과 빛이 느껴진다. 사용되는 글씨체는 주로 구양순체.

판각이 끝나면 셋째단계로 인경(印經).

경판에다 먹을 칠하고 마력으로 문질러 인쇄하는 과정이다. 여성의 머리털 뭉치를 직사각형으로 묶은 다음 벌밀을 바른 마력은 종이가 상하지 않고 먹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잘된 인경은 글자가 뚜렷하고 먹의 농도가 일정하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글자의 먹농도가 일정치 않아 과지가 나기 쉽다.

마지막 단계는 제본(製本).

먼저 인경된 한지를 접고 포개어 초벌 맨다음 네 가장자리의 튀어나온 부분을 자른다. 표지를 덮은 다음 다섯군데 구멍을 뚫어 면사로 묶으면 하나의 새 책이 탄생한다. 양 모서리에는 참호지로 배접한 비단조각을 대어 시각적 효과도 높이고 마모성을 방지한다. 책표지를 주황색으로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표지만 붉게 그을리고 내용물은 타지 않았다는 옛전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제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목순서를 맞추는 것. 한장을 빠트리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전체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서양종이와 달리 전통 닥종이는 특성상 기계제본이 어려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오늘날에는 인경이 대장경판의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커 사진을 찍어 영인인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님들은 기계로 만든 책은 왠지 생경해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경전을 더 선호하는 형편이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정성을 다해 만든 책은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무게와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하는 사람의 자세 또한 절로 경건해지기 마련이다.

글 : 이윤호 기자
사진: 고영배 기자

◇ 왼쪽부터 주영자 · 김창본 부부, 안준영씨.

인터뷰

김창본 · 주영자 · 안준영씨

지난 5 · 6일 해인사 홍제암. 때아닌 고려복식의 사람들이 나타나 관각과 인경에 열심이다. 마치 700여년전 고려시대로 되돌아간 착각이 든다. KBS-TV가 초파일에 방영할 특집 다큐멘터리 '팔만대장경'의 치목부터 사경 판각, 인경, 제본의 전과정을 제작하는 현장이다. 고려인 복색으로 판각과 인경, 제본에 심혈을 쏟고 있는 안준영(41)씨와 김창본(58) 주영자(58)씨 부부를 만났다.

"옛 스님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으로 알았지요."

40년 가까이 인경과 제본 일을 해오고 있는 김창본 · 주영자씨 부부는 책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요즈음 세태를 한탄한다.

김씨의 조부는 해인사 강원의 강사였던 응하스님. 부친인 김설제씨는 지난 63년부터 5년동안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을 무려 13질이나 해낸 장본인이다. 이때 제작된 책들은 국내 4곳을 비롯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 5개국에 보내져 소장됐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김씨도 교정을 보면서 일을 도왔다. 부인인 주영자씨 역시 25세때 결혼후 시아버지에게 배워 남편과 함께 전통인쇄 일잇기에 매진해 왔다.

"고려때 조상의 정성 그대로 재현"

"전성기에는 하루에 1천5백장에서 2천장 정도 찍었습니다. 책 10여권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숙달되기까지 세월의 숙련이 필요하다는 김씨는 이일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함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제본은 하루 제본하는 양이 많아야 10권 정도. 책 1권을 완성하기 위해 30번의 손을 거쳐야 하므로 3~4일 일하면 반드시 쉬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김씨 부부는 실과 바늘관계.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읽을 정도로 인경 · 제본일의 호흡이 잘 맞는다. 전통 인경이 사양길을 걸음에 따라 아무도 이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기능이 끊길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자신이 만든 책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있다.

각수(刻手) 안준영씨는 구도자의 자세로 관각에 임한다.

"한각한각 혼신을 다해 경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무욕무념이 안되면 하루종일 한자도 새기지 못할때도 있지요." 그의 작업은 단순히 판자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어 불심을 조각해 내는 것이다.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고려각수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정성을 다한다.

안씨는 대장경판이 보관(補板 · 수리)될 것에 대비해 남해 관음포의 갯벌에 산벚나무를 담궈 삭히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옛방식 재현에 애쓰고 있다. 연구결과들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안씨는 현재 PC통신내 각(刻)을 배우는 동호인 모임인 문사모(문화를 사랑하는 모임) 전문위원으로 대장경의 각문화와 인쇄문화를 알리는데도 힘쓰고 있다.

이 세 사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2월 해인사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판각 인경 시연' 행사에도 참여했다. 우리 전통인쇄문화를 이어가는 몇 안되는 소중한 장인들이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계신품(誡愼品) ①

人而常清 인이상청
奉律至終 봉률지종
淨修善行 정수선행
如是戒成 여시계성

사람이 항시 청정하고
끝까지 계율을 받들며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으면
이와같이 계행은 성취된다

慧人護戒 혜인호계
福致三寶 복치삼보
名聞得利 명문득리
後上天樂 후상천락

지혜로운 이 계율을 보호하니
그 복이 삼보에 이르고
이름이 나고 이익을 얻으며
죽어서 천상에 올라 즐기리라

常見法處 상견법처
護戒爲明 호계위명
得成眞見 득성진견
輩中吉祥 배중길상

어떤 것이 마지막까지 선이 되고
어떤 것이 편히 머무는 데 좋으며
어떤 것이 사람의 보배가 되고
어떤 것이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가

戒終老安 계종노안
戒善安止 계선안지
慧爲人寶 혜위인보
福盜不取 복도불취

계율은 마지막까지 편함이요
계율은 편안히 머무는 데 좋고
지혜는 사람의 보배가 되고
복은 도둑이 빼앗지 못한다

比丘立戒 비구립계
守攝諸根 수섭제근
食知自節 식지자절
悟意令應 오의령응

비구는 계율을 세우고
육근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에 스스로 절제를 알아
깨달음의 뜻이 따르게 한다

以戒降心 이계항심
守意正定 수의정정

지혜로운이 계율 보호해 등불삼으면 스스로 청정하여 괴로움 사라지리라

언제나 법이 있는 곳을 보고
계율을 보호해 등불 삼으면
참다운 도리를 얻게 되리니
무리 가운데 상서롭게 되리라

內學正觀 내학정관
無忘正智 무망정지

계율로써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을 얻고
안으로 바르게 관찰하길 배워
바른 지혜 잊지 않도록 하라

持戒者安 지계자안
令身無惱 영신무뇌
夜則恬淡 야와염담
寤則常歡 오즉상환

계율지키는 이 편안하니
일신에 번뇌 없게 하여
밤에 누워서는 편안하고 맑으며
깨어 있으면 언제나 즐겁도다

明哲守戒 명철수계
內思正智 내사정지
行道如應 행도여응
自滑除苦 자청제고

밝고 뚜렷하게 계를 지키고
안으로 바른 지혜 잘 살피며
이치에 맞게 도를 행하면
스스로 청정하여 괴로움 사라지리라

修戒布施 수계보시
作福爲福 작복위복
從是適彼 종시적피
常到安處 상도안처

계율 닦고 베품을 행하면
복을 지어 복을 누리고
이로 인해 피안에 가서는
항상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된다

蠲除諸垢 견제제구
盡慢勿生 진만물생
終身求法 종신구법
勿暫離聖 물잠리성

何終爲善 하종위선
何善安止 하선안지
何爲人寶 하위인보
何盜不取 하도불취

온갖 허물 모두 없애고
자만심 버려 다시 나지 않게 하며
종신토록 법을 구하여
잠시도 도의 길 여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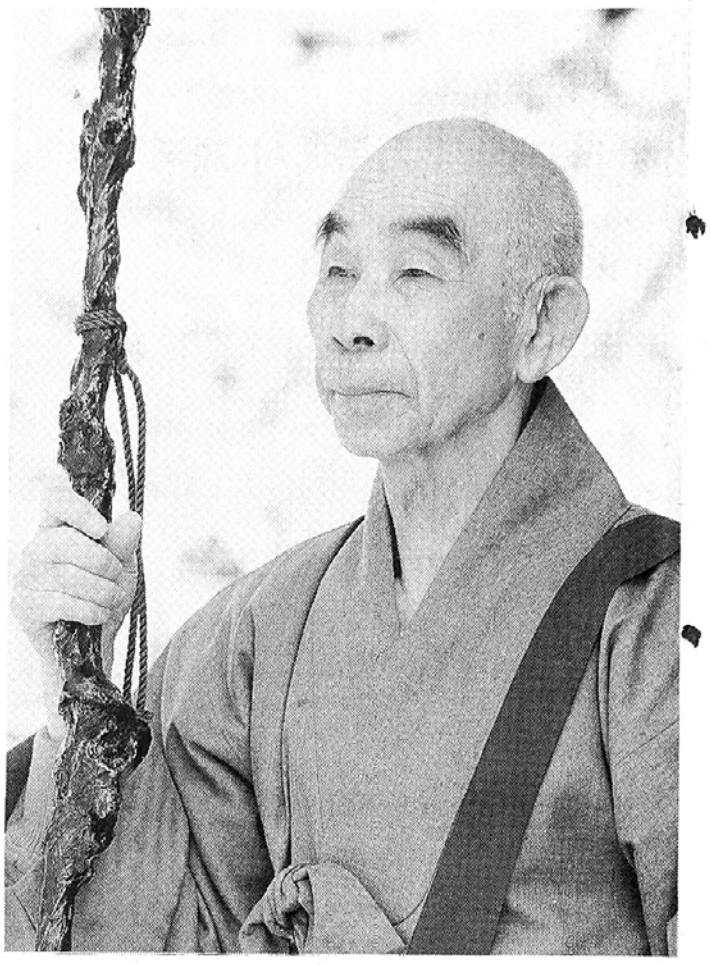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한철 피는 봄꽃

엄암스님 〈금산사 서래선원 선덕〉

"중생들이 불집속에 넘나듦은
세상탐욕 놓지 못함이고
세가지 독번뇌 보물삼는 까닭"



나는 여덟살 때 금산사에서 멀지 않은 청련암이란 곳으로 출가했어요. 엊그제였는데 70년 세월이 휘익 귓전에 스치는 바람소리처럼 흘러갔어요. 세월이 살 같다고 하더니만 그 말을 새겨야 해요.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벗삼고/한밤에는 두견새 울음소리를 죽비로 삼으며/말없이 고요하고 쓸쓸히 삼매에 드니/이제사 웃조사의 훌륭한 발자취를 알겠네/토굴 큰 집에서 거짓 나를 죽이고/다시 참나로 새롭게 태어나면/옛부처와 참나는 다를 바 없네."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때는 무엇을 크게 이루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일찍이 세상을 뜨셨는데, 철모를 때지만 세상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모님이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무공스님이라고, 작은 아버지가 그 절의 주지로 계셨으니까 출가한다는 생각도 없이 출가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공스님은 2년 후 돌아가셨는데, 부도도 모시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엄두도 못냈지요. 이 분도 선승이셨는데, 인근 사찰에서 선법문 청할 때 무공스님을 많이 불렀어요.

은사스님은 김화봉스님이었어요. 내 사형사제들이 일곱인데, 대방광불화엄경(大方光佛華嚴經)을 따 대엄 방엄, 이렇게 이름붙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섯째였지요. 더러 죽기도 하고 흩어져 지금은 어찌 지내는지 소식을 모르고 지냅니다.

스님 밑에서 초발심자경문 천자문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당시에 청련암은 새벽 3시면 예불을 드렸는데, 그때는 세수도 꼬박 해야 했어요. 겨울에는 돌멩이로 얼음을 깨서 양치하고 세수도 했는데, 물을 떠서 얼굴에 대면 얼음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혹시 3시에 일어나지 못해 예불을 빼먹으면 참회의 절을 많이 했어요. 엄격했지요.

어느날 은사스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가거나 오거나 항상 무(無)자를 놓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고 다짐을 받으셨어요. 은사스님이 근엄하게 말씀하시는지라 "예"하고 대답은 했지요. 그때가 열한 살 나던 해였어요. 무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그 나이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3시에 전날 배운 것을 외우고 가만 있으니까 스님이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요. "예"하고 또 대답했지요. 그런데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틀째도 안했어요. 비는 오고 하는데, 당시는 말벗도 없는지라 스님이 가르친 〈초발심자경문〉을 외우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야운스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받아 쓰지 말지어다. 밭 갈고 씨 뿌리는 일로부터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로가 많고 무거울뿐 아니라 또한 적은 벌레들의 상해도 한량없도다. 남을 수고

약력
- 1918년 전북 김제 生
- 1925년 화봉스님 은사로 전북 청련암에서 득도
- 1935년 백양사강원 만암스님 문하에서 수도
- 이후 문수사 상일사 주지 역임
- 現 금산사 엄암선실에 주석 정진

'남 수고롭게하여 나를 이롭게 말고 다른 목숨 죽여 내 몸만 살리려 말라' 지금도 수행지침 삼는 야운스님 가르침

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오히려 하지 못할 일인데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내 몸만 살리는 일을 어찌 차마 하겠느냐."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에 문수사라는 시주 많은 절주지도 놓아버렸나 봅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지요. 지금 이곳도 남들은 화장실을 개조해서 만든 토굴이라고 쉬이 보는데, 두평 남짓해도 '엄암선실'이라고 당우도 반듯하게 걸려 있고 기름보일러까지 놓였으니 토굴이 아니고 나에게는 대궐이나 진배없습니다. 현판은 일학스님이 써주신거지.

수행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검소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야 한다고 했어요. 표주박 한 개와 누더기 한 벌이면 어디를 가나 걸릴 것이 없어야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똑바른 줄과 같아야 한다"고 했으며,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하셨어요. 휴정스님은 "이 몸에 탐착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나 거리낄 게 무엇인가"고 했어요. 오늘의 수행인이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로 삼아야할 말씀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 작대기로 내 머리를 때리더구만, 그리고 "왜 안했어." 긴 말씀도 안하시고 눈을 부릅뜨며 야단을 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굉소 언성을 높이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흘째예요. 절 뒷길 개울가 평평한 바위에 앉아 은사스님의 모양을 본따 가부좌하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쯤 앉아 있었어요. 점심공양 후 또 올라가서 앉았어요. 두어 시간 앉아있었나봐요. 절일 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그렇게 해야 한다."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 뒤를 살폈나 봅니다.

수행은 곧 고행입니다. 도를 구함에 고행을 두려워해서는 안되지요. 고행하지 않고서 어찌 성불에 이를 수 있겠어요. 고행이란 자신을 길들이기에 매였어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생에 받은 몸 지나가기는 마찬가지니까 나를 확 잊

생활 속의 불교 ⑪⑨

지금 · 여기서 여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수행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직 '지금·여기'가 있을 뿐이다. 내일이나 모레를 기약해서는 안된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직시하면서 묵묵히 코끼리 걸음으로 걸어가라.

'지금·여기'가 바로 삼천대천 세계의 근본자리이며,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자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고로 올바른 신행을 하는 사람은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그대로 영원이요 무한의 시간으로 살아간다."

"지금·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다. 자성이 그대로 사찰이다. 세속을 떨치고 입산해야만 입산이 아니고 몸을 일으켜 집을 떠나야만 출가가 아니다.

마음의 산, 마음의 도량으로 입산하고 출가해야 한다. 밖으로 끄달리고 집착하는 마음을 거두고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그대로 귀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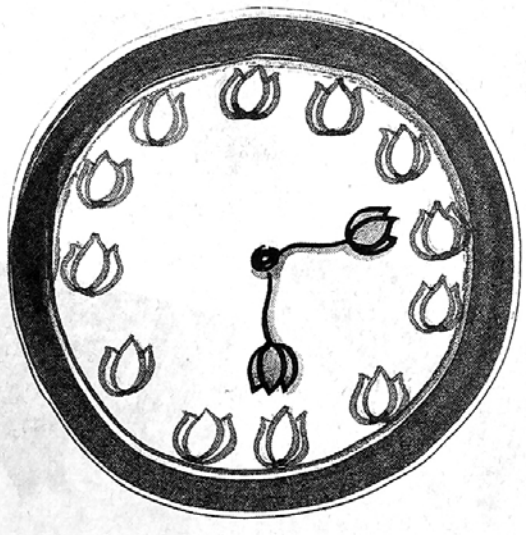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정 직장 학교가 그대로 여래의 처소이다.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요 구경열반의 자리이다.

따라서 나의 발길이 닿는 곳, 내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를 여래의 처소로 알고 청정하게 한다면 따로이 불국정토를 찾지 않아도 앉은 자리가 그대로 정토가 된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느끼고 말하고 보는 이 순간이 바로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순간이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흐르는 시간은 없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지금 속에 수억겁의 과거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래가 함께 한다. 따라서 '지금'에 2천5백여년 전 부처님 오신 날이 함께 하고 아득한 훗날이라는 미륵부처 오실 날이 함께 한다.

따라서 바른 수행자라면 누구나 '지금·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고 바라마지 않는 이상의 삶을 일구어 가야 한다.

내일은 없다 모레도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여기'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삼매의 경지를 이뤄내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청정한 삶을 가꾸어야 한다.



'지금·여기'를 소홀히 하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모레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망상일 뿐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될 뿐이다.

비단 수행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지금·여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가 거둘 수 있는 열매도 결코 최선의 것일 수는 없다. 선한 일엔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한 일엔 악한 과보가 절로 따르듯이 지금 여기서 한 일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게 결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필연이다. 필연일진대 내 운명을 탓하고 남을 탓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내 탓으로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여기'가 근본자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내 속에는 수억겁 거쳐오는 동안에 쌓아 올린 업의 뭉치가 들어있다. 과거라는 시간의 역사가 지금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짓는 삼업이 미래라는 시간의 긴 흐름속에서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내 앞을 가로 막고 나타나게 된다. 미래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여기'를 외면하고 무엇을 기약하려 하는가.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여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만 바르게 사는 길이 된다. 지금 여기에서 여래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귀의도 아니요 귀의 그 자체일 수도 없다.

바른 수행자는 그래서 하루살이로 산다. 찰나주의나 향락주의는 아니다.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지극한 사무침 속에서, 오로지 내게 다가온 상황에 하나로 녹아들면서, 일체의 집착을 놓아버린채 산다. 거기엔 여한도 기대도 우려도 두려움도 없다. 오직 행동이 있을 뿐이다. 경계와 하나된 삼매가 있을 뿐이다.

자신을 돌아다 보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여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집착을 버린 순수 그 자체로 살고 있는가?

협찬 : 한 용 수

큰 스님 수행한담

붙잡으려 하면 탐욕



◇먹고싶은 마음 참고 은사스님께 산딸기를 공양했던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밭을 매고 있는 엄암스님.

"모두들 세상이 걱정스럽다 말하는데 욕심 버리면 없어질 문제 이 도리를 모르니 어지럽습니다"

"해는 평등하나 높은산 먼저 비추듯 성인의 자비 믿는이가 빛을 봅니다"

어버려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단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효스님도 애욕을 끊고 고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저 모든 부처님이 적멸궁을 장엄함은 까마득한 겁 바다에서 인욕고행한 탓이요, 많고 많은 중생들이 불집 속에 넘나듦은 세상탐욕 놓지 못함일세. 막힘없는 저 천당에 가는 사람 왜 적을까, 세가지 독번뇌로 집안 보물 삼음이요." 불자들이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지요. 머리깎은 산승만이 수행인이 아니예요.

은사스님께서는 항시 몸이 편치 않았는데, 그래서 어린 나를 붙잡고 공부에 열중하라고 다그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스님 말씀 따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밥이나 축내는 버러지 이상이 아니었겠지요.

스승은 내 열세살 때 돌아가셨어요. 말년에는 누워계실 때가 더 많았지요. 그해 여름에는 칡이파리를 받쳐들고 험한 곳 허쳐가며 산딸기를 따다 드리기도 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이걸 드시면 다시 일어나실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지금 생각해도 시봉을 꽤나 잘한 편이었지요. 새벽예불 끝나면 홍시를 주워서 갖다드리곤 했는데, 끝내 일어나시지 못했지요.

60을 갓 넘기신 나이였는데, 가실 때가 가까웠는지 "내 죽으면 금강산으로 가거라. 여기에 있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형들에게도 "저 어린 것을 심부름이나 시켜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셨지요.

은사스님 입적 후에는 별로 청련암에 뜻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님의 몸사리를 가지고 금강산으로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청련암 문턱바위에 몸사리를 보자기에 싸서 숨겼다가, 새벽예불 후에 보따리를 들고 달음박질했지요. 전주역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금강산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는 주는데 통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강산은 인연이 닿지 않았는지 끝내 못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이 절 저 절 다니다가 백양사에 계시던 만암스님 문하에서 5년 동안 정진했지요. 같이 공부했던 스님들은 거의 다 열반했습니다. 지금 백양사 방장으로 계시는 서옹스님과는 당시에 안면이 있는 도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중등과와 보수과를 3년 다니기도 했어요. 백양사 스님들은 백장청규에 입각한 수행을 했어요. 모두들 나무도 하고 밭일도 보고, 조석으로 두 시간씩 화두참구를 했지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나도 그랬지요.

어느 땐가, 화두가 풀리지 않아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같이 사는 대중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결단을 내야 한다, 목숨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레째 되던 날, 몸도 가뿐하고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그때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기쁨을 얻었지요.

만암스님은 대보살이셨지요. 밤 12시면 학인들 방을 살피셨어요.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며칠일 후에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꼭 말씀하셨지요. 나에게 입승을 시키기도 했어요.

입승이었을 때 항상 나는 여러 학인들에게 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게 하는 일을 꼼꼼히 챙겼어요. 나는 한 번도 신을 찾느라고 시간을 들인 일이 없습니다. 당시 다른 학인들은 그런 일을 수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요.

지금은 학인들에게는 출가한 절에서 돈도 주고 그러지만 당시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어요. 아침에는 거의 솔가루에 된장을 넣어 쓴 죽을 먹었지요. 한사람 앞에 3홉 정도로 정해져서 쌀이 배당되었어요. 학인들 중에는 배가 고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정된 객승이 아니면 굶겨보내야 하는 때도 많았지요.

그때 백양사강원 학인은 40명 정도, 대중까지 합치면 70명이나 되었어요. 묵타스님 혜원스님 그리고 평담스님 정광스님과 최재돈스님이 학인들을 지도하셨지요. 지금은 다들 세상을 뜨셨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사형들이 찾아와 다시 청련암으로 돌아왔지요. 그때 나를 위로하던 민암스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공부가 쉽지 않네. 어디 가서도 여기서 했던 반치만해도 중노릇 못했다는 말은 듣지 않을걸세.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하네."

아무튼 은사스님의 유언을 따르지 못했으니,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때 금강산에 갔으면 선방에 쳐박혔을 겁니다. 이곳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금강산을 그리곤 하는데, 지금도 문수보살은 그곳 산천에 계실 것입니다. 또 과거의 선승들이 서쪽 하늘에 해질녘이면 바랑지고 절을 찾아 가는 보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은사스님의 가르침은 항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팡이가 은사스님이 물려주신 것인데, 여기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僧手一尺藜形具 希望事如意道具'(승수일척궐형구 희망사여의도구). 즉 희망하는 일이 뜻과 같이 이뤄지는 도구라는 뜻인데, 생김새가 고사리 모양이라는 말이지요. 화두를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경책의 말씀이지요. 좌선할 때 갖고 앉아있으면 힘이 나지요. 금산사에 와서 8년 되었는데 줄곧 정진하면서 매일 조석예불 거르지 않고, 밤 10시까지는 도량경을 해서 세상에 내보내지요.

기도 얘기를 하겠는데, 선객이 무슨 기도냐 하겠지만, 들어보세요. 백양사에서 나와 옥구의 상일사에서도 있었지요. 그때 콩잎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위장병이 났어요.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중에 하얀 얼굴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던 상태에서 검은 알약을 주시기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더군요. 그러나 그 뒤에도 완전히 낫지는 않고 고생을 계속했는데 다시한번 하얀 노인이 준 각진 팥알만한 약을 먹고 병이 완치되었지요.

일념으로 정진한다는 면에서 화두참구와 기도는 통하는 바가 있나 봅니다. 뜻을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될까 안될까 의심을 품어서도 안되겠죠.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붙잡으세요.

세상이 심히 걱정된다고 모두들 말하는데, 제불보살과 조사님네들이 한결같이 무상(無常)을 얘기했어요. 生者之滅 盛者必衰 會者定離, 생한 것은 마침내 사멸하기 마련이며, 융성한 것은 반드시 쇠퇴하고, 서로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법이예요. 봄꽃이 필 때는 한때입니다. 계속 붙잡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 문제예요. 이 도리를 모르니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요. 허물이 있으면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질서가 생깁니다. 욕심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예요.

나도 세상에 한마디 거들지요. 어느 때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행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해와 달이 평등하나 높은 산 먼저 비추고/성인의 자비가 평등하나 믿는 이가 빛을 봅니다/지성염불 간절하면 귀천남녀 차별없이 극락세계 가옵니다. 나무아미타불."

정리=정성운 기자

믿고 맡기면 능력이 나옵니까

문 스님께서는 늘상 믿고 맡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고 맡기면 업장도 녹고 지수화풍 사대를 통해 두루 통신이 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도의 경지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연환·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답 그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이면 전부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이가 있고 덜 배웠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좀 배웠다는 사람들, 특히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더 믿지를 않지요. 현대과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걸 불가사의하다고 하거나 우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아예 믿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도리를 투철하게 알려면 조건 따지지말고 일체를 내려놓아라,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몰락하는게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그까짓것 죽으면 죽고 살게 되면 살지, 그래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느냐 하고 배짱 두둑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하소연 하는 말이 곧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행 돈을 못 갚아서 내달이면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돈 마련할 길은 그 다음 달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날보고 도와달래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은행돈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것을 돈으로 막지 못하면 무엇으로 막겠느냐? 그러나 그것 또한 인과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니까 나은 곳에다 다시 놓아라. 거기서 나온 것이니 해결하는 것도 거기서 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게 되었다면 죽든 살든 콱 믿어 보아라. 이번 기회에 마음공부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와서 하는 말이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연인즉 은행의 담당 실무자가 서류둔 곳을 깜박 잊어버리는 바람에 경매절차를 한번 건너뛰게 되었고 예정대로 돈 마련이 되어서 집을 되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묘하면서도 자동적인 것이 이 마음의 도리입니다. 아다시피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디든 못 미치는 곳이 없고 무엇이든 통하지 못하는게 없습니다. 마치 저 손오공이 여러개의 분신을 드러내듯이 만개도 될 수 있고 십만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불가사의하다고 하겠지만 애초부터 그런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왜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물질과학으로 헤아리는 정도를 능가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부정하니까 나오는 결과도 힘이 없고 안되는 걸로 나오게 되지요. 참으로 자동 컴퓨터 같다고 할 수 있지요. 넣는대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범인이라고 해서 지레 안된다고 할게 없지요.

일체는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대가 사대로 통하는 게 뭣이 별다르고 특별하다고 하겠습니까? 인간 마음의 자력은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과학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리학 심리학 공학, 어떤 것이든지 다 그 도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도리를 따라 발전하게 되지요.

내가 안으로 주인공에 놓고 맡기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사량분별하지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광력도 있고 자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고 전력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라도 우주의 주인으로서 자유자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번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인들이나 그렇지 보통사람들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나 다 부처될 능력을 지녔다고 하셨지요? 배우는 사람으로서 단박에 되지 않는다 해서 안되는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고 수행할 생각은 하지않고 불상앞에 가서 '아이구 부처님이시여, 이 몸을 돌봐주시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요! 이런단 말입니다. 온갖 재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놓고서도 제 손으로 밥지어 배불리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동냥이나 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겉지도 않고 될 생각부터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박사학위 하나 따려해도 20년 넘게 노력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와 우주 전체가 다 공체로서 공심으로 공용하고 공식하고 공생하고 있으며 주인공 자리를 통해 하나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게 우선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불기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현수막

봉축어깨띠와 리본 대용 버튼 및 법보시용 소책자도 있습니다.

불교방송에서는 금년 사월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보다 뜻깊고 장엄한 국민적 축제로 맞이하기 위해서 봉축위원회에서 제정한 E·I·P 매뉴얼에 의거한 봉축현수막을 제작하여 염가로 전국 사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표

품 명	가 격	규 격
현수막(6m)	40,000원	600×90cm
현수막(8m)	50,000원	800×90cm
현수막(10m)	60,000원	1,000×90cm
봉축어깨띠	2,500원	10×180cm
봉축버튼(100개)	40,000원	직경 55mm
부처님의 생애(책)	1,500원	국판 68면(원색)

※ 현수막은 하단에 법회일시와 사찰명을 기입해드리며, 서울 인근지역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받고 설치도 해드립니다(4월 28일부터 5월 8일 사이)
※ 어깨띠는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의 생애』는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사찰명,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등을 별도 인쇄해드립니다.
※ 별도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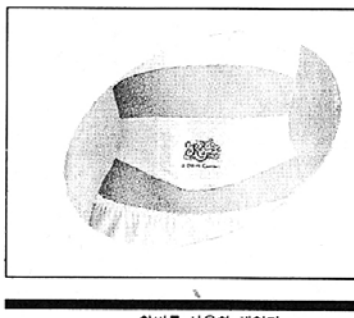
문의처: 포교사업팀
서울(02) 718-4625~9
(02) 719-7115~6
광주(062) 228-5114
대구(053) 744-0032
원주(0371) 763-8575, 0857
불교방송 (02)705-5305~7
불교부산방송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062)520-1114
불교대구방송 (053)427-5114
불교청주방송 (0431)211-2090
제작/열린불교 (02)739-0108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팜플렛과 주문서 양식을 우송해드리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괙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삼계 허위허위



삼계의 구분이란 또 무엇인가
태고에 누가 세계를 조각내어
금 긋고 울 치어 차별경계를…

길을 잃었다. 그것이 미혹인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나 자신이던가.

아아 삼계(三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일컫는다. 지나가는 길손이 길을 잃고 삼계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길 가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던 어린 아이들은 "원 별사람 다 보겠네. 삼계가 여기지 어디란 말이야?"라고 산딸기 같은 또렷또렷한 핀잔을 줄지 모른다. 그래도 미혹은 마찬가지였다.

그렇기도 하겠다. 삼계란 어디 병풍에 그려진 십장생(十長生)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딛고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삼계 곧 세계 전체이다.

세계의 세(世)는 시간이고 계(界) 혹은 간(間)은 공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본체 만상이 빽빽하게 차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어지러운 것이 없는 질서의 세계이다.

세는 흐름이다. 옮겨감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쳐 흐르고 흐르는 것이다. 또한 세는 무너짐이다. 다른 것과 대치됨이다.

일체의 현상은 네가지 모양(四相-生住異滅) 때문에 흐르고 옮겨가는 찰나 찰나에 무너진다는 뜻이 된다.

삼계에 법이 없으니 어디가서 마음을 구하며 사대(四大-지·수·화·풍)가 본래 공하거늘 부처가 어디에 머물겠는가.

이는 당나라 반산에 머물고 있던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법을 이어받은 보제의 말이거니와 한 사람의 입에서 세계가 토해지는 박찬 광경이기도 하다.

가없는 중생 어디서 왔는가. 가없는 중생 어디로 가는가. 이 생사에 유전하는 일을 조금도 피할 수 없는 미혹의 중생세계를 일러 유정(有情) 유루(有漏)의 세계라 하거니와 여기서 나고 죽고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생존을 이어감으로써 이것이 한 작은 세계(小世界)를 이루는데 우선 그 작은 세계는 세 가지로 구분됨으로써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삼계(三界)의 계(界)란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삼계가 각각 제 스스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저 스스로의 종족을 뜻하기도 함으로써 저 스스로의 떨거지를 가지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세계는 어디나 그런 기(氣)의 세계일 따름이다. 욕계는 탐욕 소속의 계이다. 색계는 탐욕을 벗어나 물질 소속의 계이다. 무색계는 물질마저 완전히 벗어난 무색소속의 계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란 또 무엇인가.

저 태고적의 그 누가 이런 따위 구분으로 세계를 조각내어 금 긋고 울을 치고 그래서 차별의 경계만을 자아냈단 말인가.

한 빼어난 젊은이가 선인들이 남긴 옛 책의 단 한 마디도 빌어다 쓰지 않고 내가 보는 바에 맡겨보노라면 이 우주 안의 만남은 지니되 이 우주안의 헤어짐은 애착없이 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미혹의 세계, 생사유전의 세계 아니 종잡을 수 없는 세계 어디에도 금 하나 긋지 않고 그대로 섬김으로써 그 세계의 기가 곧 나 하나의 기와 둘이 아니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손가.

하지만 세상이란 어느새 금 그어 이곳과 저곳이 있고 울 안과 울 밖이 있게 되어 그것으로 시절(時節)과 경계가 생기니 욕계의 욕망을 품고도 색계 무색계를 꿈꿀 수 있음이었다.

애욕 재욕 색욕은 그렇거니와 당장 식욕과 수욕(睡慾) 그리고 명욕에 사로잡힌 암컷 수컷이 함께 머무르는 욕계란 정녕 미혹 중의 미혹의 세계가 아닐 수 없으니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할 진리가 거기 파묻혀 있음을 쉽사리 알아낼 수 있겠는가.

옛 신령스러운 무당들이 저 북국의 광원에서 어느 것을 하늘이다, 어느 것을 땅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신들의 하염없는 놀이를 이어받아 덩더꿍 북채들고 칼을 들어 춤을 추는 밤낮이야말로 이를 이전의 세계 그대로가 아니던가.

그 세계의 여러 현상들을 갖춘 나머지 그것 하나하나를 더하고 감하고 곱하고 나누어서 중생계로서의 삼계를 이루니 먼저 욕계가 가장 진한 물감으로 칠해진 욕망의 세계였던 것이다.

색계란 물질의 세계이며 여성이 따로 없고 그러므로 태생(胎生)이 아닌 화생(化生)으로 나고 죽는 세계이다.

무색계란 색이 아닌 법체(法體)를 말하는데 물질이나 형상이 없는 허공계이며 그곳에 머무는 생명들도 오직 수상행식(受想行識)의 사온(四蘊)으로 이루어져서 허공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을 예로부터 '벽락(碧落)'이라 하였다.

자 저 사바세계 섬부주의 한 구석인 조선반도 무욕도량에서 한동안 몸을 의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한 욕계의 어디와 삼자어 색계의 어디에 각각의 행각을 이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장차 그들 하나 하나를 눈여겨 볼 까닭이 있거니와 먼저 욕계의 여러 곳을 더듬어 가기로 한다.

욕계는 지옥으로부터 제6욕천에 이르는 사이의 모든 유정세계와 기세계(器世界)를 일컫는데 다른 시대와 다른 문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후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8대지옥 8한지옥 아귀 아수라 4대주 8중주(八中洲) 6욕천 등 36처를 말하는데 중생계는 인간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따로 나누지 않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욕계에도 불구하고 그 욕계의 꼭대기인 하늘의 끝없는 세계인 색계 무색계 등의 우주조차도 그것을 커다란 물이나 바다로 인식함으로써 그 중생세계를 괴로움의 바다(苦海)라고 말해오기도 한다.

우선 욕계 가운데서도 지옥 아귀 축생을 3악취라 해서 가장 험악한 악업의 소산으로 된 곳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아수라를 더해서 4악취라고 말할 경우도 있다.

그런 다음 인간계와 천상계를 5취로 말하거나 6취로 말함으로써 이는 극악의 소산이 아니다.

그 위의 6욕천은 삼계 가운데서 욕계의 소속인 여섯가지 층층세계의 하늘이다.

이 하늘사람들은 모두 욕락이 있으므로 욕천인데 그 첫머리가 사천왕(四天王)의 하늘이다.

거기에는 동쪽 지국천 남쪽 증장천 서쪽 광목천 북쪽의 다문천에 각각 그곳을 주재하는 네 왕과 그에 딸린 천인무리들이 있다.

이것이 욕계 제1천이다. 그 다음 욕계 제2천이 도리천이다. 흔히 33천이라는 세계이다.

제3천이 야마천인데 때를 따라 쾌락을 누리는 곳이다.

제4천 도솔천은 그곳에서 태어난 천인들이 받는 다섯가지 욕락에 지극히 흡족해 하는 마음을 내는 곳이다.

제5천 화락천은 다섯가지 욕락의 경계를 스스로 변화시켜 즐기는 곳이다.

제6천 타화자재천은 다섯가지 욕락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6천 가운데서 4왕천은 수미산 허리에 있고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으며 야마천 이상은 허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각각 지거천(地居天)과 공거천(空居天)으로 불리운다.

그런데 그 6천의 세계가 다른 바는 우선 4왕천은 인간의 음락이나 색욕과 같고 야마천은 서로 껴안거나 해도 음락의 절정을 누리게 된다. 도솔천은 손만 잡아도 그것이 색정의 으뜸이다.

화락천은 서로 눈웃음만 쳐도 음락이 고조에 이르고 그런 나머지 아이를 배는 것이다. 타화자재천은 남녀가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음행이 성립되어 그 쾌락이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재로 그 세계 안에 아우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으로 되고 있다.

세계란 인간의 업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업에 의해 지탱되며 그 업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이다.

세계는 업에 의해 유지 소멸되나 '일체유심조'라고도 한다

이런 욕계에서 바로 색계로 올라가기에 앞서 욕계의 인간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그곳의 금륜 위 일곱바다 위의 동남서북에 떠 있는 인간세계 가운데 하나인 남쪽 섬부주의 한 점이나 다를 바 없는 무욕도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여자 우녀를 떠올리기 십상이기도 하다.

그는 그렇게 우주 속의 한 티끌로서의 미아가 된 동시에 법신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구사론(俱舍論) 세간품은 수미산과 그 둘레를 에워싼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곳에서 말하는 고대인도 범어의 세(로카)와 계(다하뚜)는 중국의 한어 주(宙)와 우(宇)에 해당한다.

다만 우주는 반드시 인간 존재를 전제하지 않지만 세계는 인간을 불가분의 존재로 그 세계 안에 아우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으로 되고 있다.

세계란 인간의 업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업에 의해 지탱되며 그 업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이다.

아니 뒷날에 이르러서는 세계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도다(一切唯心造).

그런 경우 때로는 인간의 생사나 운명이 지나치게 의식된 나머지 객관적인 구조로서의 기세간(器世間)이라는 공간이나 우주 전체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가 없어질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체 세계가 오직 한 마음 속에 있거나 그 마음 이전, 그 마음 이외에 있거나 그런 분별 또한 착오이기 십상이겠다.

도대체 수미산과 그 세계 자체가 한갓 꿈이며 미혹이며 커다란 착오가 아닌가.

모를레라. 모를레라.

이 허허망망한 허공 가운데 불현듯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를 장엄한 풍륜이 나타나 언제까지나 바람이 돌고 돌기 시작한 나머지 그 나선형의 선회의 축에 수륜이 태어났다.

이 물의 세계 역시 어떤 창세(創世)의 그것에 견줄 수 없는 장엄함을 불러 일으켰다.

그 위에 금륜의 세계가 수륜 둘레 그대로 겹쳐 올라앉아 그 금륜 둘레를 철위산이라는 쇠산 울타리 안에 망망한 큰 바다가 펼쳐져 있게 되었다.

아무도 있지 않는데 있는듯이 어떤 느낌표로 가득한 바다였다. 그 커다란 바다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들이 솟아올라 뭉 둘러 병풍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기를 아홉산 안에 여덟바다가 있는데 그러기전에 인간계의 육지가 먼저 떠 있다.

그 9산8해 한복판의 높이 16만유순이나 되는 수미산에서 다음 다음으로 산의 높이는 지쌍산 지축산 첨욕산 선견산 마이산 상이산 니민달라산….

그러니까 니민달라산과 외곽 철위산 사이의 바다에 인간계의 육지가 있는 것이다.

그림·조향숙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엑기스처럼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큰스님의 지엄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생생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강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동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예language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봉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숭가대 송천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의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영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대담자의 말씀은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관희가 확실해 불자가 속세의 말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관지를 진함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입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금석문 보존대책 '발등의 불'

지광국사현묘탑비등 곳곳 방치 '훼손 가중'

비문판독 불가능… 통풍막는 보호각도

3월30일 발생한 산불로 훼손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본지 122호 18면 보도)를 계기로 금석문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각왕사비는 훼손된 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 하면, 탑골공원 안에 있는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는 보호각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 비돌기 배설물과 산성비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복궁안에 있는 보리사 대경대사탑비(보물 제361호)는 관람객들이 귀부 목덜미에 올라타 기념사진을 찍는 일이 잦아 같은 귀부의 다른 면보다 훼손이 심하다. 강원도 원주의 법천사지는 동네 꼬마들의 놀이터로 전락, 지광국사 현묘탑비(국보 제59호)의 경우 금이 가고 파손이 심해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갈 듯 위태롭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탑 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각을 설치 보존하고 있으나 때로는 보호각 자체가 통풍이 안 되고 자연빛을 막아 이끼류가 서식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이끼류는 명문해독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보호각 설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월남사지 석비(보물 313호·전남 강진) 역시 보호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반부가 부서져 없어졌고 비면은 풍화작용으로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륵사 대장각기비(보물제230호·경기도 여주)는 손상이 많아 현재 보호각을 설치 보호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탁본으로 시커먼 흔적이 곳곳에 남아 관람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승들의 탑비, 사적비 등 고대의 금석문은 한국불교문화사 연구의 1차적 사료로써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고려말 이후의 금석문은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어 훼손될 경우 불교사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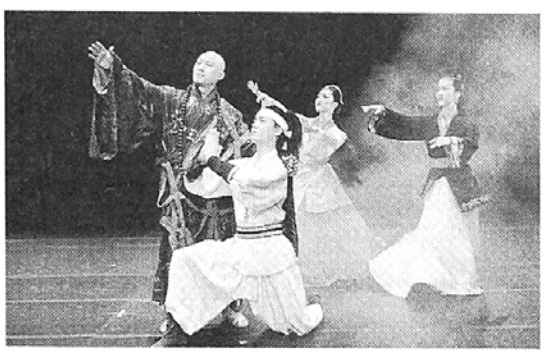
또한 실물에 대해 원초적인 관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관독만을 대조, 연구하고 있어 잘못된 관독이 고정돼 간다는 지적도 있다. 글자의 관독은 마멸이 심할 경우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광개토대왕릉비와 같이 왜곡된 관독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독과 연구가 필요하다. 금석문 연구에 있어 전공자들의 절대 부족으로 '금석문학회'를 꾸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산조각난 화엄사석경(보물 제1040호) 파편은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 채 상자에 넣어져 각황전내 한쪽 구석에 내버려져 있다.

이와 관련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과)는 "금석문을 주로하는 전문인력이 많이 나와 이를 사진, 슬라이드, 탁본 등으로 자료화하고 정리하여 올바른 보존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파손된 선각왕사(나옹회상) 비. 훼손 3주가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



◇불교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차돈의 삶과 구도의지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춤극으로 펼쳐진다.

순교자의 생애 춤극으로

이차돈의 하늘 5월1~6일 국립극장서

이땅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순교자 이차돈의 생애를 그린 춤극 '이차돈의 하늘'이 봉축 특별공연으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토·일 오후 4시)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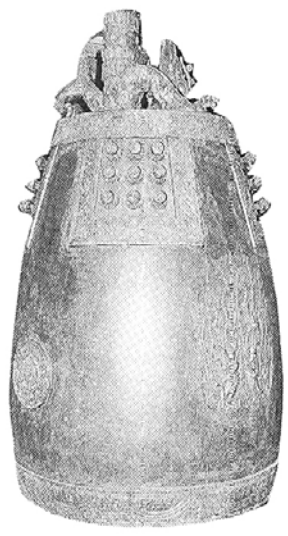
국립무용단장 국수호씨의 대본과 안무, 국립국악관현악단장 박범훈교수의 작곡·지휘로 공연되는 '이차돈의 하늘'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부마의 자리를 뿌리치고 국외로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달아기를 택했던 이차돈의 사랑과 삶, 구도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뇌, 그리고 살신성인의 보시행이 드라마틱한 춤극으로 엮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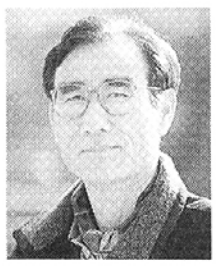
이 작품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문화축전의 작품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국수호씨가 현재적 시각의 역사감각을 도입해 새롭게 안무했으며, 음악과 의상 무대장치 등도 새롭게 변화를 주었다. 또한 기존의 관례를 깨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주요 배역을 선발해 배역에 맞는 역동적이고 참신한 춤의 향연을 맛볼 수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불교연합합창단 국립창극단 등 350명이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장대하고 웅장한 음악이 매머드 합창단과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수퍼스타 이차돈을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

이경숙 기자

4월말 일반공개 상원사종복원 석우일씨





"맥놀이현상 그대로 재현"

신라과학 신비풀기 20여년 정열쏟아

"3분이상 지속되는 은은한 여운의 맥놀이 현상을 되살릴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상원사종(국보제36호)을 최근 실물과 가깝게 만들어 내놓은 신라역사과학관의 석우일 관장(57세). 그는 1년여간의 작업을 거치면서 실물과 같은 규격과 재질을 사용, 용뉴와 비천 등 신라종의 특징을 골고루 갖춘 제2의 상원사종을 제작했다. 모형 상원사종은 이달 말 타종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석관장은 석굴암·첨성대 등 우리의 옛 문화재 실물복원으로 유명하다.

20년전 유리벽속의 석굴암이 못내 아쉬워 복원을 시작한 그는 완벽한 재현을 위해 건축과 수학 등과 불교공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같은 석우일관장의 노력은 세계 각 박물관에 알려져 석굴암, 첨성대 등 각종 과학문화재의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싶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석〉

문화 소식

문화정보화 단체 뽑혀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과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 등 30단체가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정보화운동'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이들 단체들이 소장한 각종 자료들은 사진 동영상이 포함된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져 인터넷공간에 올려진다.

목아불교박물관은 불상 서화 금속 등 문화재를, 나눔의 집은 정신대문서 증언 사진 유품 들을 가상공간에 올리게 되며 이들 단체의 홈페이지는 연말까지 구축된다.

한국건축박물관 상량

(사)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전흥수회장(대목수)이 한국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지난 2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현지에서 상량식을 가진 건축박물관은 한국고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전시장겸 교육장이 된다.

대지 5천여평에 연건평 1100여평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박물관은 전시실 양반가옥 평민가옥 초가 등 우리 전통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과 연수원 중국관 일본관 등 10개의 건물과 광장 등으로 이루어진다. 박물관이 완공되면 기능인들의 기능전수 현장과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내년 '사진영상의 해'

문화체육부는 지난 15일 내년 98년을 '사진영상의 해'로 지정하고 사진영상예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91년을 연극영화의 해로 정한 이래, 매년 춤, 책, 국악, 미술, 문학, 문화유산의해로 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다.

불심시심 〈85〉

도연명이 나를 부르네

飛閣浮空壓大湖 (비각부공압대호)	푸른 하늘에 뜬 누대 호수를 눌러
晩江煙景浩難圖 (만강연경호난도)	저문 강 탁 트인 풍경 표현키 어렵구나
寒穿水色雁歸浦 (한천수색안귀포)	추위 물빛 뚫자, 기러기 바다로 가고
冷踏山光客上橋 (냉답산광객상교)	싸늘한 산빛 밟자, 나그네 다리 건너다
甁鐏雲邊千嶂列 (병용운변천장렬)	구름 가 솟은 술병 뭇 봉우리의 나열이고
玉流天外萬溪高 (옥류천외만계고)	하늘 밖으로 흐르는 구슬 온갖 시내 드높다
斜陽人帶暮霞去 (사양인대모하거)	지는 해 노을 띠고 가는 사람을
五柳仙翁挽手邀 (오류선옹만수요)	오류의 선옹이 만류해 마지 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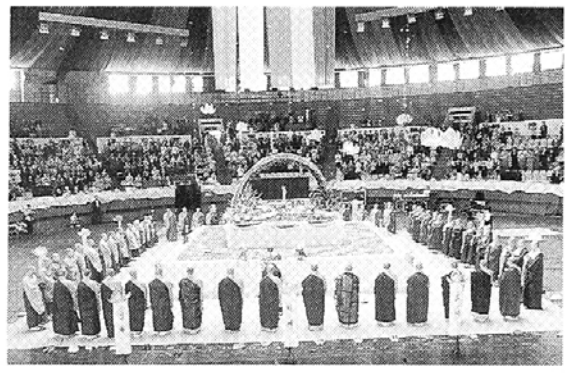
이 시도 송계대사의 시이다. 영천의 호연정(浩然亭)에서 지은 시. 제목대로 강가의 호연정을 배경으로 주변의 풍경을 여실하게 묘사하였다.

첫구에서 하늘이 큰 호수를 눌렀다 하였다. 시 전편을 이미지화하고 있다. 추위가 물빛을 뚫고 싸늘함이 산빛을 밟는다 하였으니 일상성의 배반(反常)이다. 그러나 이 반상이 시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다.

다음 연의 수사도 재미있다. 폭포를 '구슬의 흐름(玉流)'이라 함이야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술병으로 유추함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욱이 독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시내가 높다(高) 함이다. 시내와 높다는 단어는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에서는 이 한 단어가 흥미를 끈다. 하늘 밖으로 흐르는 옥수라 한이 하늘 밖(天外)이라는 앞 구가 있어 절묘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경관에서 스님은 옛날 오류선생인 도연명과 망도의 사귐을 가졌던 혜원으로 자처하여 그의 손짓에 이끌리는 신선으로 결론지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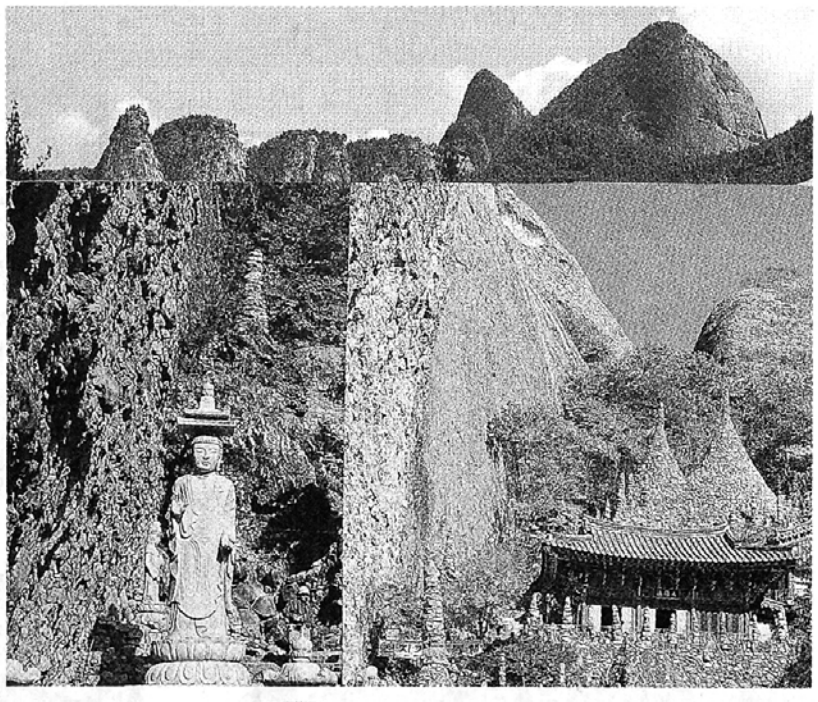


만등만화 육법공양

조계종 연화정사(주지 정명)와 연화플라워회가 주관한 만등만화 육법공양대법회가 지난 12일 장충체육관에서 2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기법스님의 타종을 시작으로 향 등 차 꽃 과일 곡식의 여섯가지 공양을 차례로 올렸고, 바라춤 나비춤 등도 선보였다. 특히 꽃공양 순서에는 부처님께 모란 작약 연꽃 등을 올리는 불전공화를 시대별로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3부 합동결혼식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식을 올리지 못했던 16쌍이 월주스님의 주례로 부부의 연을 맺어 감동을 더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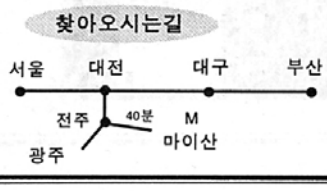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마이트레야의 노래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사막의 밤은 고요하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에선 수많은
영감들이 쏟아져내린다
설산의 은빛 눈부심은
영혼의 바닥까지 드러낸다
길떠남은 아름답다 축복이다
사람들은 여러 모습의 여행을 떠난다
광대무변한 우주를 향해서
극미세계로 더러는 꿈과 추억을 좇아서
더러는 문학 속으로 음악 속으로

여기 새로운 만남과 발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한 장의 안내지도를 내놓는다

길 떠나는 자에게 용기와 지혜 있으라

—〈글을 얼면서〉에서

가람기획
도서출판 가람기획
Tel. 815-1253
823-9105
Fax. 823-9106



혜원스님 지음

'현대인에게 미륵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큰 물음을 던지면서, 불교의 깊은 정신세계와 그 철학을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는 이 책은 정신과 물질세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물질과 마음에 대한 순수이해의 문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정신세계로 이끌어준다. 추상적인 이론이나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불교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길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현대인이 생활 속에서도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수행지침서이기도 하다.

★신국판/297쪽/지금 곧 서점에서 만나십시오

가람기획의 인문교양 스테디셀러

●선체조 108
고요함과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참신체조
수행서/혜원 스님 지음/신국판 292쪽

●한 권으로 보는 불교사 100장면
석가의 탄생에서 성철스님의 입적까지
임혜봉 지음/신국판 430쪽

●그래도 사람은 희늘이다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준엄한 물음!
이무열 편저/신국판 356쪽

●서울대 선정 동서고전 200선(전4권)
동서고전 200종을 깊이있게 해설한 본격 해제서!/반덕진 편저/신국판 500쪽 안팎

●한 권으로 보는 세계명작 111선
고전 걸작 현대 문제작 111편 엄선 해설
가람기획 편집부엮음/신국판 432쪽

●한 권으로 보는 한국명작 111선
우리 소설 명작 111편의 내용과 작품 해설.
김희보 지음/신국판 467쪽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씨 5월초 출간

1백여 경전 핵심정리

"불교사상 흐름 일목요연하게"

한글번역본만 해도 2백여권이 넘는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추려서 보여줄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이 나온다.

지난해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등을 펴낸 들녘출판사가 '한권으로 읽는 시리즈' 제3탄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을 5월초 선보이게 된 것.

이 책은 해설이 간략한 팔만대장경 북한 해제본을 토대로 크게 대승삼장과 소승삼장, 보유잡장편으로 나눠 기술했다. 반야부의 경우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통해 설명하는 등 1백여종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의 체계와 흐름을 직접 공부할 수 있게 했다.

대중들의 편의를 고려해 본서외에 동국대 역경원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팔만대장경 1천5백여종의 경전에 대한 간략간략한 설명과 해제를 별책부록으로 따로 발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는 거의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대중의 입장에서 팔만대장경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그 핵심사상은 무엇인지를 쉽고 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집필을 맡은 진현종씨(31)의 말이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묶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러번 제기됐었지만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팔만대장경의 대중적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일반 대중들에게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법향을 먼저 느끼게 하자는 것이 간행 목적이기도 하다. 기획자 들녘출판사 장익순실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민족의 내면에 숨쉬는 불교문화와 유전자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불교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불교르네상스'를 열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 장경연구소에서 팔만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동국대 역경원이 고려대장경 한글 완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팔만대장경의 학술적 업적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입문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온자 기자



◇동국대 역경원에서 출간된 한글대장경 中 일부.

독서칼럼



홍사성

김정빈의 '근본불교...'을 읽고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교리공부 원칙 명확히 제시

사성제 자의적 배열 거슬려

며칠전 우편으로 배달된 책 한권을 받았다. 제목은 〈근본불교의 가르침〉. 책을 보내온 사람은 저자인 김정빈씨였다. 김정빈씨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단(丹)〉을 쓴 작가다. 불교학자도 아닌 '작가'가 소설이 아닌 본격적인 불교교리서를 저술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그의 관심이 '근본불교'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더욱 이채로웠다. 또 저술동기가 불교교리의 이론적 탐구가 아닌 구도적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도 돋보였다.

〈근본불교의 가르침〉은 종래의 불교교리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유난했다.

첫째는 저자의 불교공부에 대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워낙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불교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기가 예사다. 다행히 그가 찾아낸 방법은 '불교는 부처님 그 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상식일 터이지만 대승불교국인 우리나라 불교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형편에서 그가 '불교공부의 원칙'을 발견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는 그가 이른바 제도권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비제도권에서 몸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의 대승불교의 교상판석(敎相判釋)과 경전찬술 문제에 대한 비판은 도전적이기 까지 하다.

둘째는 자신이 이해한 교리체계를 어려운 이론이 아닌 풍부한 비유와 정치(精緻)한 논리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불교교리서는 자신이 이해한 불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입장이나 학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다. 그러한 책들은 자신도 모르는 주장이나 개념, 용어를 늘어놓기가 다반사다. 이에 비해 〈근본불교의 가르침〉은 경전(아함경)을 읽은 저자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읽기가 쉽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이 갖는 최대의 미덕은 불교를 하나의 철학적 이론체계가 아니라 부처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고(苦)'와 '고의 지멸(止滅)'을 위한 실천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행조차 관념화돼가고 있는 우리나라 불교풍토에 하나의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책에서 김정빈이 이해한 불교가 전적으로 옳은 것인지 어쩐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사성제의 배열을 고집멸도(苦集滅道) 순이 아니라 고집도멸(苦集道滅) 순으로 한 것이라든가 몇몇 군데서는 교리구조를 도식화하는 데서 오는 무리한 설명, 그리고 지나친 자의적 해석 등은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것이다. 책을 끝까지 읽다보면 오히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던 많은 부분이 해소되는 점이 더 많다.

나는 김정빈씨와 겨우 이름 석자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따라서 이 책을 선전할 이유도 없고 서평을 할 처지는 더욱 아니다. 다만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원칙을 강조하는 그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부터라도 특별한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불교텔레비전 제작국장〉

"한 조각 해맑은 웃음으로
눈물 가리우고
한방울 이슬 눈물로 엮어
흔들리지 않는 그리움 채웁니다." 〈조현숙 詩 맑은 그리움 中〉

'수레를 따르는 바퀴자국같이 남은 흔적 한알의 씨앗이 되어 맑은 그리움으로 부처의 심장에 꽂힙니다' 4개의 부제가 하나의 제목을 이뤄 긴 제목처럼 진솔한 인연이 넘쳐나는 시집이 나왔다.

〈한누리미디어 刊〉

불교계 상담기구 '자비의 전화' 상담원인 현정 손한옥

"삶의 고민 詩語로 화답"

시집 '수레를...' 발간

이임이 조현숙씨 등 4인이 그동안 상담하며 느낀 진솔한 삶의 단상들을 시집으로 엮은 것.

이 시집은 총 105편의 작품이 4개의 소주제로 엮어졌다. 이들 시에는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며 느낀 솔직한 삶의 내용이 담담히 배어있어 어떻게 살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발견하고 마음을 맑히는 계기가 됐다"는 이들은 "얻은만큼 회향의 결과를 시집에 모았다"고. 23일 자비의 전화 7주년 기념식에서 출간 기념회도 함께 갖는다.

김원우 기자

정토교 시대별 변화·발전상 개관

중국정토교리사 | 태원스님 옮김



중국에 정토사상이 도입되기 시작한 후한시대 아미타경류 경전의 최초 번역으로부터 청나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정토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쇠퇴등을 개관한 책이다.

정토신앙은 염불, 사경, 불상조성 등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등의 타력적인 요소가 강해 근기가 약하고 여러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열반을 증득키 어려운 일반 중생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중국 각 시대의 출가자와 재가자를 망라한 정토수행자들의 사상과 실천수행의 모습을 광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종 및 화엄종 등 다른 종파들이 정토교로 귀의하거나 혹은 정토사상과 융합하여 변화발전하는 모습도 다루고 있다.

일본불교학자 모찌쯔끼 신코박사의 〈중국정토교리사〉를 중앙승가대교수인 태원스님이 번역했다.

〈운주사 2만원〉

화제의 책

역사적 인물로서 부처님 일대기

붓다 | 김경연 옮김



'한길로로로' 시리즈 제2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세계출판계에서 전기물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로로로 평전시리즈(독일 로볼트출판사)'를 번역한 것. 부처님 당시 인도의 사회, 정치, 문화적인 측면에서 붓다와 불교를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붓다를 역사적인 인물로 파악, 가우타마로 지칭하면서 서구에서의 불교수용과정과 한계들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일대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역사적 접근방식을 통해 불교의 성립과 고대인도의 사회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간명하게 짚어내고, 깨달음을 얻고 인류의 스승으로 우뚝서기까지 극한의 고행까지도 감수했던 가우타마의 행보를 담담한 문체로 서술했다.

또한 뛰어난 설법자이자 탁월한 교단 조직자로서의 가우타마의 면모들도 보이고 있다. 국제선불교연구협회 간부인 독일 폴커초츠박사의 저서를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한 김경연씨가 번역했다.

〈한길사 8천원〉

"설화문학총서" 1차 5권 출간

출판화제

우리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설화문학을 집대성한 〈설화문학총서(전통문화연구회 刊)〉가 나왔다. 고전(古典)의 현대화를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시켜 문화의 올바른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 간행된 이 시리즈는 애정 우정 우애 충효 적선 보은 풍수지리 일화등으로 분류 10권으로 간행된다. 1차로 〈밝은 달아 수놓은 베개를 엿보지 말아다오〉 〈밤바람아 무슨 일로 비단 휘장을 걷느냐〉 〈매화는 피리소리에 취하여 향기롭구나〉 〈사립문 앞에서 친구를 맞아오네〉 〈남아가 한 번 눈물을 흠친 뜻은〉등 5권이 출간됐다.

중견 한학자 김동주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가 옛 전적(典籍)에 실려있는 설화를 가려뽑아 우리말로 옮겼다.

새로나온 책

▲한국불교사=지난 86년 간행된 김영태교수의 〈한국불교사개설〉을 대폭 수정 증보해 재구성한 한국불교연구 보고서. 부록으로 한국불교의 종파 역사를 담았다.

〈경서원 1만5천원〉

▲운수일기=일본의 한 젊은 스님이 인생일대의 큰 뜻을 품고 구도(求道)의 길을 떠나는데서 부터 선수행과정을 담은 책. 구석구석 그림을 곁들여가며 재미있게 일기식(日記式)으로 전개했다.



〈대흥기획 6천원〉

▲그대 몸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삼국유사를 저술한 우리민족의 큰 스승인 일연선사의 일대기를 담았다. 불교방송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고승열전을 집필했던 방송작가 윤청광씨가 집필했다.

〈언어문화 6천5백원〉

▲불교우화=심원한 불교철학과 사상을 상징적인 우화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한 책. 불교경전가운데 문학성이 내재된 비유들을 추려내 우주의 진리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생의 의의를 고스란히 담았다.

〈지성문화사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3	그까짓 살좀 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4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출판사
5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동 지
6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7	살아있는 禪	라즈니쉬	성 하
8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9	한국불교사	김 영 태	경 서 원
10	한글 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구입문의:(02)737-0695



"
求道의 길
"

雲水日記는 日本의 한젊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求道의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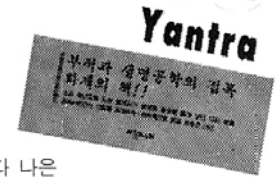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엮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형서점 절찬리 판매중!!

깨침의소리
전화:(02)444-3575

"참사람, 공동체 이롭게 한다"

백양사 '참사람은 누구인가' 세미나 요지

거짓과 부정, 비리가 판치는 현대사회. 정직과 진실 양심의 소중함이 무시되고 있는 현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이 인간본래의 '참성품'을 찾고 진실하게 살자는 '참사람결사' 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참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를 초기경전과 선불교를 통해 규명해 보는 '참사람 결사' 세미나가 지난 19일 백양사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성본스님

전재성씨(팔리성전협회 한국대표)는 '경전에서 본 참사람'에서 "초기경전에서 참사람을 뜻하는 사푸리사(sappurisa)는 '존재하는' '진실한' '착한' 등을 의미한 산트(sant)와 '사람' '영혼' '순수정신' 등으로 해석된 푸루사(purusa)의 합성어"라고 설명하고 "북방불교에서 사푸리사가 선남자(善男子)로 번역되지만 윤리적으로 선량한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탈을 증득한 인간까지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모든것에 집착않는 자유인"

전교수는 "〈증부아함경〉의 '여실지견(如實知見)'이 바로 해탈한 참사람의 모습"이며 "여실지견은 오계(五戒)의 윤리관을 스스로 지키는 한편 타인에게도 권장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대승적 가르침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상응아함경〉에는 참사람의 개념이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팔정도는 위기에 처한 인류문명을 구할 새로운 주체인 '참사람'이 걸어야 할 수행관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성씨

"오계지켜 자리이타 실현자"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선불교의 참사람 정신'에서 "참사람은 인간의 불성이나 진여자성(眞如自性)과 같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유인이며 진인(眞人)을 가리킨다"고 정의했다.

또한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의 세계라고 한 마조의 평상심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기에 공(空)의 세계에 걸림없이 살아간다'는 임제의 무위진인(無位眞人)에서 참사람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초기경전과 선불교를 통해 볼때 참사람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에 정진하고 윤리적 언행(言行)을 실천하며 공동체 사회에서 진실된 삶을 영위하는 현실주의적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종욱 기자

박사논문등 6편 발표

동국대 불교·인도철학과

지난 9일 동국대 불교학과·인도철학과 주최로 열린 96년도 후기 학위논문초록 발표회에서 '금강계삼십칠존불의 연구'를 비롯 6편의 석·박사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논문들은 △금강계삼십칠존불의 연구(김영덕) △개화기 불교계의 동향과 개혁사상에 대한 연구(김경섭) △미맘사 학파의 제사관 연구(김재천) △원효의 선사상 연구-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이정례) △신라·고려시대의 보의 연구(조명임)·△비구니 불공계에 나타난 여성관(김수연) 이다.

4와 경전 4

반야심경



한 갑 진
〈한진홍업(주) 대표이사〉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을 이 진언으로 마무리할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간절하게 그리워지면서 나 자신을 반성하곤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무심코 외우는 것은 아닌지, 과연 깨달음의 저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정진을 하고 있는 건지…

30여년전 아버지의 병 때문에 〈반야심경〉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또 〈반야심경〉과의 인연은 나를 불교로 깊이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83세의 고령이셨던 부친이 어느날 갑자기 몸져 누우셨다. 의사가 진찰을 한 결과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을 호소하셨다. 투병한지 3일이 지나던날 전신이 싸늘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간호하다 아버지의 머리맡에 있던 〈반야심경〉을 발견했다.

그때만 해도 〈반야심경〉이 어떤 경전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여하튼 절에서 독송하는 경전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반야심경〉을 한번도 독송해 본 적이 없었지만 절에서 스님이 법회시간에 독송하시던 기억을 더듬어 〈반야심경〉을 들고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다.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반야심경〉을 한참만에야 다 읽어냈다.

바로 그때 꼼짝도 않고 누워계시던 아버님이 나를 보고 "얘, 갑진아, 네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고통을 잊은 듯 깊은 잠에 드셨다.

나는 녹음기를 이용해 〈반야심경〉을 읽고 또 읽어가며 녹음을 했고, 내가 집에 없는 낮 동안에는 아버님께 반복해서 들려드리라고 집사람에게 당부를 했다. 아버지 방에는 밤낮없이 〈반야심경〉 독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며 악화일로를 걷던 병세도 진전이 있는 듯 했다. 그후 며칠 뒤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로운 모습으로 운명하셨다.

만일 아버지께서 위독하실 때 〈반야심경〉을 늘 독송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교식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그러나 〈반야심경〉과의 인연으로 나는 스님을 모셔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거행했다.

우리 불자들 대부분이 외울 수 있고 법회에서 제일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대반야경〉 6백권의 사상을 한문 2백60자로 간결하게 그 진수만을 담고 있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준말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철저하게 터득함으로써 지혜(반야)를 얻어 결국에는 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공(空)사상이 핵심이다. 설혹 불자가 아니더라도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반야사상은 이세상에 모든 것이 공한 것(실체가 없는 것)임을 꿰뚫어 보아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30년전 아버님 병석에서 경전과 인연

"현상에 집착말라… 반드시 변한다"

관세음 보살을 통해서 반야의 인격을 보이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통해 반야의 실상을 천명했으며 보살과 부처님을 통해서 반야의 공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경의 종반부는 반야바라밀에 대한 신앙과 발원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에 집착하고 그것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반드시 변하고 파괴되어 버린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이 경의 가르침이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 즉 공속에서 색이 나오고 색속에 공이 들어있으니 이러한 본성을 깨달아 지혜롭고 원만자재한 삶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경은 당나라 현장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반야심경 해설서는 1천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작정 법회시간에 독경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돼 있는 깊은 불교사상의 정수를 스스로 공부하고, 또 매일 〈반야심경〉을 수지 독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한다면 생활 곳곳에서 부처님의 나투심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직관적 사고 서구불교 발전 열쇠"

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 '서양인의 불교관' 첫 강연

세계적인 불교학자 박성배교수가 석좌교수로서 지난 15일 동국대에서 첫 강연을 했다. '서양인의 불교관'이란 주제로 열린 이 강연에서 박교수는 "직관적 사유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서구문명에서 불교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사물의 개별성을 강조한 분석적 언어인 영어는 '나'와 '객체'의 경계가 없는 불교의 정수를 나타내기는 힘들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박교수는 "현재 서양인의 불교관은 과거 기독교 신앙체계에 대한 긍정·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돼 유심론·유물론적 불교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유심론적 불교관을 견지하는 서양인은 부처님을 기독교적 유일사상처럼 대하고 참선, 진언, 삼천배 등의 종교의식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 유물론적 불교관을 지닌 서양인은 종교적 교리·의식 등을 거부하고 사찰·선원보다는 대학에서 불교학 연구에 더욱 관심을 쏟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

박성배교수는 "이 두 불교관은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형성됐기 때문에 불교에 완전히 귀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앙적 갈등의 요인 또한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욱〉

덕숭법통 禪사상 조명 논문 2편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1849~1912) 선사와 그의 선맥을 계승한 만공(1876~1946) 선사의 생애와 선사상이 새롭게 조명된 논문이 나왔다.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경허선사의 선의 세계'에서 "禪과 敎를 두루 섭렵했던 경허선사는 목우사상(牧牛思想)과 화두에 의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살아난다고 보는 화두선(話頭禪)을 주창해 선불교가 중흥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허스님이 주창한 1800년대의 결사(結社)와 청규는 침체된 승단의 선풍을 진작시키는 한편 염불과 같은 타력신앙을 수용해 일반 불자들이 부담없이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했다"고 지적했다.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만공선사의 생애와 선사상 연구'에서 "만공선사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나타냈던 대자유인"이라 평가하고 "선사는 '만법귀일 귀일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라는 화두를 대중화시켜 생활선(禪)의 깊이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공스님은 일제의 불교진흥책에 맞서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진흥책이라고 선언했던 정교분리의 선각자"라고 덧붙였다.



◇경허스님



◇만공스님

이 논문들은 5월3일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가 '백제고찰 수덕사와 덕숭산문의 법통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될 춘계불교학술회의에서 소개된다.

"경허스님 화두선 주창 선불교 중흥"

성타스님

"만공스님 생활선 통한 대자유 추구"

성본스님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샌프란시스코 선원

美 봉축·승단의 날 상세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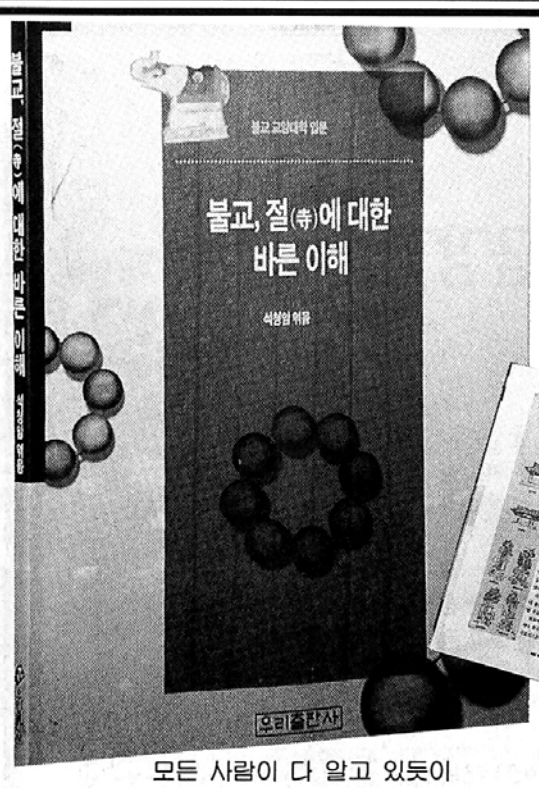
미국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승단의 날(4월 19일)' 등의 행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개설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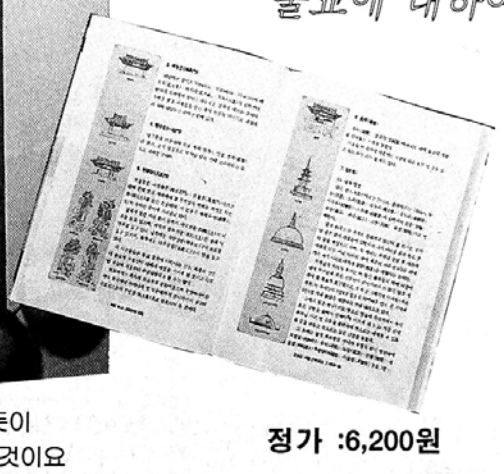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선원이 개설한 웹사이트 '선원'은 샌프란시스코 근교 코스랜드 공원에서 3백여 사부대중이 봉행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소식을 전해준다. 또 '승단의 날'을 맞아 봉행된 캘리포니아州 선원연합회의 법회행사도 알려준다.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1959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개원해 60~7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의 불교부흥에 일조했던 선원으로 미국에서 손꼽히는 일본계 선원.

이 사이트는 '봉축행사' '승단의 날'과 같이 캘리포니아州 불교소식뿐만 아니라 '선원소개' '법회' '명상교육일정' '연동서비스' 등의 일반정보를 비롯해 버클리대 불교도서관 도서정보와 같은 특별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버클리선원 하트포드선원 네브라스카선원 등과 같이 캘리포니아와 근교에 개원돼 일일·주말 명상수행이 가능한 선원 30여곳의 개원년도, 주소, 전화, 선원장 등의 정보도 소개한다.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주소는 http://bodhi.zendo.com/~sfzc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정가 :6,200원



불교 교양대학 입문(교재)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님께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재입니다.

96년 6월 17일 초판 발행 현재 6차 출판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 입니다.
- 이 교재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5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로 혹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하여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만약 다량으로(5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니다.

저희 청암스님의 땀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FAX : (02)445-3267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총무부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주·야·七一一·四三七〇 五四三·七三〇六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간경화·정신질환·만성신장병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대체의학
0552-82-8128,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안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및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임야 : 총 3,500평
(대지 1,200평 건평 127평)
▷ 산세가 수려하고 사찰경내가 자연석으로 이루어져 있음
▷ 대웅전 50평, 요사채 100평, 천불전 50평, 법당 50평
▷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
▷ 실버타운 자리로 안성맞춤
▷ 토목공사 완료 · 약수물도 있음

연락처 (02)486-8824 (0356)85-3856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포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1-279-4600

위 치 : 부산 동상동 시장통 사거리
평 수 : 24평
보증금 : 1500만원 월세15만원
시설비 : 가격절충

연락처 051)531-0313
011-851-8224

기타정보

천부경

81권의 화엄경을
81자의 천부경에

도서출판 발해원
☎597-2460
<법문 테잎도 나와있습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총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다경상
• 서울(학림사) 희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真T.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재작한 불교그림동화(한션) 「깨달음의 세계」 (6부작 밀)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 및 사찰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 인수할분 기회! ◈

사정상 급히 구합니다.

위치 : 대구시내 포교원 20평 주택

법당시설 완비, 시설비 없음
보증금 5백만원, 월30만원

연락처 : 핸드폰 011-516-3370
호 출 015-703-4847
전 화 053-653-4846(절)

포교당안내

위 치 : 평택 대로변
서울에서 1시간이내
시장 터미널 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평 수 : 57평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3)656-6686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원사

연락처 : 0331)262-0606

사무장을 찾습니다

▶ 자격 : 1. 남자 30세~55세
2. 운전면허 소지자
3. 고졸이상
※ 법사출신 환영

연락처 (0414) 42-2057
(오전8시~오후3시까지)
◈ 보수는 상의해서 결정

대한불교 조계종 천마산 중화사

病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 34-1115~6
012-598-1015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천태 산중 사람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영지(검은깨)와 장심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아무것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폭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학생모집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연락처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읍(대구근교)
■ 건물
신축주택 30평 1동
창고 36평 1동
■ 대지 : 210평
■ 특징 : 교통편리, 산수
수려, 100m암반수 인접,농지 확장가능,
스님 토굴 및 별장들의용도
■ 매매가 : 6500만원

연락처 0542-71-0847

행동하는불교 실천하는 불교

해동불교산악회 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해동불교산악회 합장
연락처 (02)903-8976
375-2254



수십년된 묵은변과 소변적경기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바이오 매직 헬시 活力器 발명 특허품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장벽에 수십년 묵은 숙변도 7~15일이면 확실히 빠져나오고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단전·회음운동으로 精氣가 강화됩니다.
· 대소변이 시원치 않으신 분
·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무기력한분
· 빈뇨 잔뇨 현상이 많은 분
· 신기(腎氣)가 약하여 허리,다리가 무력한 분
· 스트레스 피로가 심하신 분

※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파-워봉 요법

모든병치무 하기 재해호 모든병치무 품목하가 제1호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뻐근한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갑니까?
※ 손끝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물이 생기고 아프십니까?

◎ 파워봉 / 원기 보존법 책자를 무상해 드립니다

韓國傳統氣健康 研究會
Tel. 02)455-6944(代)



"미얀마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습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는 희유한 인연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2일 대원 용인사에서 미얀마 종교성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 및 친견법회 봉행

대한불교해동종(총무원장 송산스님)은 4월12일(음 3.6) 대원 용인사에서 미얀마 종교성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 및 친견법회를 해동종 종정 석봉른스님과 종회의장 성타스님, 임원스님, 그리고 신도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습니다.

이날 대법회는 제1부 미얀마 종교성의 유각 타자나 스님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종교성 직인이 있는 진골사리) 기증식과 제2부 친견법회로 진행되어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송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함으로써 부처님의 진실한 제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정 석봉스님은 법어를 통해 "업의 장애를 벗어나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진신사리를 모시는 것도 수행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늘 친견법회를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불성을 찾아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설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을 가까이서 친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충족이 아닌 불제자로서의 발심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소중한 인연으로 성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원력을 심어줍니다. 부처님의 광대한 법력이 한국의 불자들과 이 땅을 불국정토로 장엄하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친견함으로써 무한한 복덕을 얻고 발심의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친견문의 0331~262~060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0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舟)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조계사서 연변동포가 밝힌 北실상

중국 연변에 거주하며 수년 전부터 10여차례 북한을 오가면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지식인이 14일 북한의 식량사정과 지원활동 상황을 밝혔다. 이달 초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일시 내한한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가 마련한 3차 사랑방 모임에서 북한주민의 참상을 생생히 전했다.(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지난 3월 평안북도 한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실려왔다.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고 흙을 계속 먹어 대변이 나오지 않자 대변을 긁어 내려다 동맥을 건드렸다고 했다. 그 아이는 결국 오후에 죽고 말았다….

북한은 지난 3월25일부터 중앙당 특명으로 '농민시장'에서 일절 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에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농민시장에 인육(人肉)이 나오자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농민시장에 인육이 나와 있는 것을

흙먹는 어린이 배변 안돼 죽어
농민시장에 나온 人肉 직접 봐

내가 직접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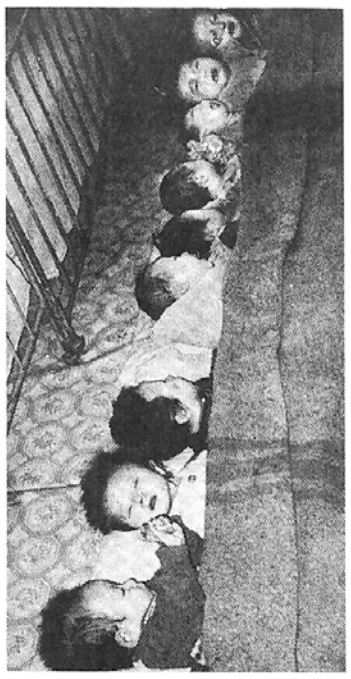
평양의과대학병원은 마취제 한 병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입원실은 텅텅 비어 있다.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치료할 약품이 없어서다. 한 병원관계자는 나를 붙잡고 애원을 했다. "선생님, 폐렴환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페니실린이 없습니다. 다음 오실 때에는 페니실린을 좀 구해주십시오."

내 민족, 나와 피를 나눈 동포가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돕자는데 왜 그렇게 구구절절 이유가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다. 통일이 되고 난 후 북한 사람들이 '왜 그때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북한사람들이 갖게 될 아픔과 원망의 골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이젠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내민족을 살리는 운동에 나선다면 50년 분단의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은 충분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디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랑이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한다.

"지방 곳곳에 아사자"



굶주린 아이들 북한 평북 용연군의 한 고아원에 힘없이 누워있는 아기들. 최근 북한을 방문한 美 의원은 올 6월이면 북한주민 6백만 내지 8백만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이 전하는 北韓 식량난 참상

최근 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민주당)이 경고한 '6월 식량 위기설'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위기설은 다름아닌 북한주민중 6백만에서 8백만명이 굶어죽을 것이라는 것.

북한의 실상은 외교관, 외신기자, 탈북자, 세계식량계획기구(WFP)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하는 북한주민이 겪는 비극실상을 모았다.

〈편집자 주〉

해골같은 어린이 성장멈춰
병원마다 약품부족 환자 18% 사망
여성들 호구지책 중국인에 팔려가

▲황해도 주민의 양권 배급이 끊겨 사리원 근처 한 밥공장이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은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금강산 일대 지역은 곳곳에 시체들이 널려있다.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허기져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 북한주민은 시체를 치울 여력조차 없다.

▲평양의 북쪽에 위치한 희천은 북한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그러나 전력과 원료가 없어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민시장'에서 육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인육이 나온다는 풍문이 있기 때문. 어류 또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어부들이 고기를 국가에 바치지 않고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하루 1백g의 식량밖에 얻지 못한다. 1백g의 식량이라면 겨우 4백50칼로리에 불과하며 노동을 하기 위한 최소 필요량인 1천5백칼로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 부족해 8백명을 수용하는 병원 기준 약 18%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신의주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신의주는 8천8백여명의 어린이 가운데 일곱 살 이하인 3천4백명이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멈추어 버렸으며 1백40여명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함경남도에서는 일가족이 전선을 1백m 훔쳐 중국 상인들에게 팔다가 체포됐다. 배가 고픈 나머지 옥수수와 바꿔 먹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아들은 총살을 당했고 사위와 딸은 15년 구형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 3월1일부터 곡식을 훔치다가 발각되면 두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경우 즉결로 총살형에 처하고 있다.

▲인구 30만명의 신의주에는 배급소가 모두 텅 비어 있다. 이곳의 화학공장들은 연료와 원료 부족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그래서 공장 일꾼들은 저임금의 중국 하청 일을 맡아 옷을 만들고 있다고 신의주시 관리인 김석현씨는 말한다.

▲북한여성이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다. 국경을 수시로 넘나드는 중국인 밀무역자에게 팔려가는 북한 여성들의 몸값은 연변 흑룡강성 장춘 등지에서 1만위안(한국돈 1백10만원) 최고 5만위안. 이들 대부분은 마치 노예처럼 부려진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하소연조차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절대 복종하고 있다.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기해 중국 러시아 몽골 쿠바 이탈리아 등 40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 행사를 위해 20억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됐다고 한다.

오종욱 기자

북한돕기 성금모금 창구

- 겨레사랑대구경북운동본부 (053)555-0411
- 동국대 공보실 (02)260-3027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02)725-4277
-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02)3672-5373
- 태고종 총무원 (02)745-2030

건강과 식품 〈4〉

콩나물국과 그릇

'봄을 탄다' '먹새가 좋지 못하고 허약한 체질의 사람은 봄을 두려워 한다'

신선한 채소를 겨울동안 접하지 못했던 시절, 영양의 불량 특히 비타민C의 섭취 부족에서 오는 증상들이다. 인간, 원숭이와 모르모트는 비타민C를 합성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그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식품중 신선한 채소와 과일, 김치 이외에 비타민C 자원으로 주요한 것 중에 콩나물을 들 수 있다. 마른 콩 중에는 비타민C가 없으나 싹이 틈에 따라 비타민 C가 생기기 시작해 먹기 적당한 크기로 생장했을 때는 신선한 무나 배추에 견줄 정도의 비타민C가 생기게 된다. 조리된 콩나물국 중에 상당량의 비타민 C가 함유돼 있어도 다른 용기에 옮길 때 극적인 산화 파괴가 일어난다. 즉 기름기 없는 깨끗한 표면을 가진 유기 그릇으로 된 국그릇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되며, 알루미늄(실지로는 알루마이트), 사기 그릇에서는 각각 1/2과 1/3 가까운 양의 비타민이 용기 벽에 접촉하는 순간 산화파괴된다. 용기 표면에서의 접촉작용과 표면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구리, 철분이 발휘하는 산화촉매작용 때문이다.



사기·놋그릇에 담으면
비타민C 半이상 파괴
국물로 용기씻으면 산화예방

조리하는 물의 수질 또한 중요하다. 철분, 염소 함량이 많은 물에서는 산화 파괴가 심하다. 그러나 그릇에 옮김에 앞서 소량의 국국물로 그릇 표면을 골고루 씻어내면 용기 표면에 기름 피막이 형성돼 산화파괴 반응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채소중에는 보통 비타민C의 산화를 촉진하는 산화효소가 있다. 비타민C가 이 효소와 접촉이 활발해지는 조리 조건에서는 비타민C가 상당량 산화 파괴된다. 먹서나 녹즙기를 통한 과즙 녹즙은 비타민C가 대부분 산화된다. 금속 존재 하에서 과다한 공기와 효소작용 때문이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극미량의 금속이온과 효소작용이 온도가 높으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단백질효소들은 열에 의해 변질된다. 따라서 끓는 물에 채소를 데치면 산화효소작용을 억제할 수 있어 비타민C는 대부분 보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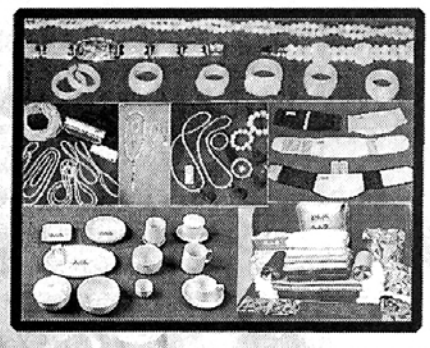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전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믹씸어서 사야만 효과기 있습니다.

玉山家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本草綱目에 건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우편판매) 777-0105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물잎 끝에도
따뜻한 生命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찬바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살얼음 끝 녹아 내리는
청아한 여울 물소리

버들 가아지도 겨울잠 깨고
잎망을 터트리는 숙삭임
상큼한 봄 내음
생기를 머금고
봄빛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포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
며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속에 머물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관음출판사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알기 쉬운 천수경 강의



이지환 엮음/ 신국판 320쪽 값 6,000원

누구든지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천수경을 하룻밤에 다섯 번만 외워도 백천만억 겁에 지은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고, 목숨을 마칠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이끌어 원하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며, 마음이 밝아져 드디어 정각을 이룰 것이다.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종단소식

조계종

직지사 천일기도법회

김천 직지사(회주 녹원)는 26일 오전 10시 천불전에서 제39회 천불참회 및 천일기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직지사는 3년마다 천일기도 회향 및 입제식을 실시한다. 한편 직지사 대구포교원에서는 24일 지장보살 봉안 영가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중암장학회 전통 다기전



중암장학회(총재 현근 사진·회장 원학스님)는 5월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전통다기 전시회 및 하루찻집(11일 산중다원)행사를 갖는다.

(02)720-1390

태고종

선암사 새주지 지암스님

지난 3월 태고총림 수호를 결의했던 순천 선암사는 14일 경내 심검당에서 전산대회를 개최하고 지암스님(광주 세심정사 주지)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지암스님은 주지로 선출된 직후 "선암사가 더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계종과의 관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내외의 불신과 갈등을 모두 포용, 화합의 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무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임기동안 선암사 중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산대회에는 93명의 재적승중 73명이 참석했으며, 지암스님과 혜운스님(선암사 재적)이 새 주지 후보로 나섰다.

충남종무원장 대연스님

충남종무원은 23일 아산 영원사에서 대연스님 종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대연스님은 인사말에서 "원활한 종무행정과 종무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지종

통리원 춘기 강공회

통리원(원장 법공)은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간 총지사에서 전국 70여명의 정사·정수를 대상으로 '춘기 강공회'를 개최한다.

매년 봄, 가을 두차례 열리는 강공회에서는 경전 및 종단 종풍에 대한 강의와 시대에 걸맞는 포교방법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지인사 신축 헌공불사

인천 지인사(주교 청암)는 22일 신축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번에 새로 지어진 지인사는 3백8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전통사찰과 현대식 건물의 조화를 고려해 지어졌다.

원효종

청송교도소 수계법회

총무원(원장 무진)은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 위문법회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모두 20여명의 재소자가 계를 받았으며, 이어 다과회 및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총화종

은선사 아미타불 기공

남양주시 은선사 주지 화담스님은 18일 강원 홍천에 건립중인 은선사에서 동양최대 아미타불 기공식을 봉행했다.

아파트 12층 높이인 36m 크기로 지어질 아미타불은 99년 완공되며, 완공될 경우 동양 최대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한편 이 아미타불이 들어설 홍천 은선사는 지난 96년 연건평 6백여평 규모의 대웅전 공사에 착공해 진행 중에 있으며, 법당에 3천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일붕선교종

법왕사 진신사리 안치

경남 울산 법왕사(주지 명산스님)는 10일 미얀마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기증 받고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진신사리를 직접 모셔온 미얀마 국립박물관장 킨티자나 스님의 기증식 및 친견법회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법왕사는 지난 89년 창건된 사찰로 현재 불사건립이 진행중이며, 이날 기증받은 진신사리는 사리탑을 건립해 봉안할 예정이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인터넷 신흥종교사이트 '봇물'

'천국의 문' 집단자살…사회 악영향 우려

'유니테리언…' 등 교리 혼재 '컬트성향'

3월26일 미국 '천국의 문' 신도 39명의 집단자살극은 최첨단 통신매체인 인터넷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인터넷상의 종교사이트로 쏠리게 했다.

인터넷의 대표적인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종교사이트는 1만여개. 이중 불교·기독교·힌두교 관련 사이트가 주를 이루지만 최근 '악마교'(satanism) '신비교'(Gnosis) '이교'(異敎, paganism) 등 이름조차 기괴한 종교사이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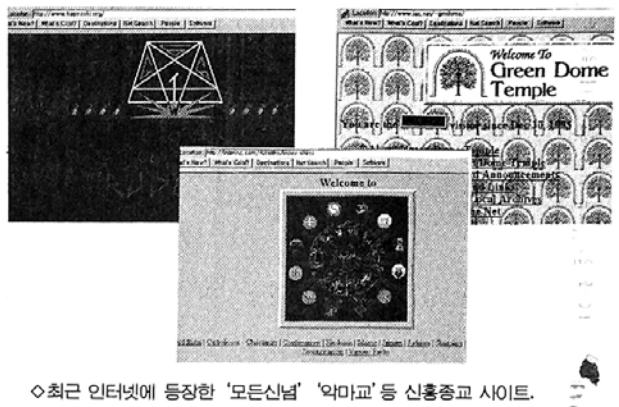
MSNBC(美 통신사)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기괴한 종교철학을 논하는 웹사이트가 온라인 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빈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전한다.

종교사이트가 증가한 것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전자우편·대화방 등의 기능이 신앙체험담·전교·교육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흥종교 성향의 불교관련 사이트는 유니테리언연합(http://uua.org/)이 준비하고 있는 '유니테리언불교연맹'(Unitarian Buddhist Fellowship)과 웹사이트 '모든 신념'(http://interinc.com/Al-lfaiths/). '유니테리언연맹'은 인종과 민족이 다양한 현대사회의 종교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불교·기독교·힌두교 등을 통합시킨 종교단체. 웹사이트 '모든 신념'도 불교·기독교·힌두교 등을 비롯해 40여개의 신흥종교가 뒤섞인 종교사이트다.

인터넷의 이러한 종교사이트 경향에 대해 김종서 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인터넷의 종교사이트는 불교·기독교·힌두교 등의 교리가 혼재된 컬트(cult, 신흥종교의 일종) 성향이 짙다"고 밝히고 "컬트적 경향은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인터넷 상의 종교사이트는 최근 급속히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전개과정이 분명하지 않아 사이비 종교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며 "종교적 의식 및 의례 행위가 불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과연 신흥종교가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터넷에 등장한 '모든신념' '악마교' 등 신흥종교 사이트.

오증욱 기자



월정사 박물관 착공 월정사(주지 현해)는 11일 경내에서 성보박물관 착공식을 가졌다. 연건평 2백8평, 지상1층 지하1층 규모의 박물관은 11월 완공 예정이다.

통도사 대웅전 기둥 부식

통풍 잘안돼…문화재관리국 보수중 발견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기둥이 부식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대웅전 보수 및 실측조사에 착수, 7일 마루전체를 해체하던중 건물내부를 지탱하고 있는 직경 11m30cm의 4개 기둥 가운데 하나의 하단부분 70cm가량이 부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문화재관리국은 10일 보수공사를 중단하고 16일~17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재관리국측은 "공기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식된것 같다"며 "정밀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음 우직스럽게 믿어라

주인공을 우직스럽게 믿고 늦 그에게 되돌려고 늦 그에게 감사하면 그것으로 그뿐인 것이다. 급하게 서두르거나 안간힘을 쓰지말라. 자유스러운 가운데 유장한 마음자세로 닥치는 일들을 주인공에 맡고 맡기면서 살아가라. 맡은이 없으면 몽땅 맡겨지지 않고 맡은이 없으면 돌려서 놓아지지도 않는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대구 경주 교도관 합동법회

동화사 설법전서

대구교도소불심회(회장 이무양)는 20일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 설법전에서 경주교도소불심회와 함께 교도관 합동법회를 가졌다.

대구교도소불심회는 매달 첫째 수요일 오후7시 달성 보림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연꽃마을에 100구좌(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내는 등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백양사 납골당 불사 郡과 마찰

지역개발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찰간의 갈등관계가 현실로 나타났다.

백양사(주지 지선)는 9일 납골당 설치에 따른 국가예산 2억원을 확보했음에도 군비 1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며 장성군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백양사는 96년 4월 전남도의 협조아래 2억원을 지원받아 사찰납골당 시범설치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설계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군이 지난 4일 군비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또 선방건립공사도 군의 결재거부로 백지화됐다.

군은 현재 산내 천진암에 4곳의 관정을 뚫어 사찰환경훼손위기에 놓여있다.

부처님 오신날 지방 주요 봉축 행사

봉축위원회명	행사명	일시	장소	전화
부산봉축위	봉축탑 점등식	4. 29일 오후6시30분	부산역 분수대	051-867-0501
	불우아동 수술비마련 거리탁발	5. 8일 오후4시	시청앞~국제시장	
대구봉축위	봉축탑 점등식	5. 1일 오후7시	대구시청앞 광장	053-427-2943
	봉축대법회 및 연등축제	5. 14일 오후6시	두류공원	
대전봉축위	전야제	5. 12일 오후6시30분	보문사 그린타워	042-252-6175
	관등의식 및 제등행렬	5. 14일 오후5시	대전역 광장	
광주봉축위	봉축탑 점등식	4. 30일 오후7시	도청앞 광장	062-376-3223
	제등행렬	5. 11일 오후6시	광주시민회관~수창초등학교	
	봉축백일장	4. 27일 오전10시	무각사	
전주봉축위	예술제	5. 1일 오후7시	천북대 삼성문화회관	0652-77-3497
	연등축제	5. 10일 오후7시	시청앞 광장	
천안봉축위	재소자 위문	5. 13일	천안 개방교도소	0417-62-5332
	관불의식 및 합동법요식	5. 14일 오후6시	천안농고	
제주봉축위	법요식 및 제등행렬	5. 14일 오후6시	제주 예향운동장~서귀포종합예술관	064-22-2829
	봉축탑 점등식(서귀포 봉축위)	5. 1일 오후7시	서귀포 1호 광장	
	제주시합창제(불교음악인협의회)	5. 7일 오후7시	문예회관극장	
옥천봉축위	연합연등축제	5. 11일 오후7시	보은 보청천~보은시가지	0433-43-3615
	봉축 문화행사	5. 10~5. 18일	보은군~속리산 일원	
보은군문화원	전통문화불교조각전	5. 12일 오전11시	속리산 잔디공원	0433-44-2314
속초봉축위	통일전망대 점등식	4. 29일 오후4시30분	통일전망대	0392-22-2829
	반야그림그리기 대회	5. 2일 오전11시	낙산사	
의정부봉축위	경로잔치	5. 9일 오전10시	의정부 포교원	0351-875-6214
	합동법요식	5. 14일 오후6시30분	시청앞 복개천 중앙로	
포항봉축위	봉축탑 점등식 및 가두포교	5. 2일 오전11시	포항제철 로타리	0562-44-6546
	해병부대장병 위문	미정		
청주봉축위	봉축대법회(연등축제)	5. 10일 오후6시	무심천 고수부지	0431-53-8660
춘천봉축위	평화통일 기원법회	5. 9일 오후5시	베어스타운	0361-54-7194
	점등식	5. 9일 오후5시	공지천 조각공원	
	제등행렬	5. 14일 오후7시	도청앞광장~중앙로	
공주봉축위	불교사상강연회	5. 6일 오후7시	공주문예회관	0416-857-0202
	봉축전야제	5. 14일 오후7시	공주고교~무녕왕릉입구	
수원봉축위	한민족공동체 자비의 손길행사	4. 27일 오후3시	수원역 광장	0331-255-2992
	연등축제	5. 10일 오후5시	수성중학교 운동장	
마산·창원봉축위	시민탑돌이	5. 7일 오후6시	창원시내	0551-43-5993
	연합봉축대법회	5. 10일 오후3시	마산 MBC대강당	
울산봉축위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	5. 10일 오후5시	울산종합실내체육관-구을산역	0522-66-3318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2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앙칠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들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3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4월 20일 ~ 5월 20일
■ 개강일시 : 1997년 5월 20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선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단위조직 구독 신청

단위조직명	연락처
부 산 지 사	051-634-5114
광 주 지 사	062-375-9986
대 구 지 사	053-768-8008
목 포 지 국	0631-281-2534
속 초 지 사	0392-636-3923
북 인 천 지 국	032-541-8770
제 주 지 사	064-55-9800
강 릉 지 사	0391-651-9317
인 천 지 사	032-461-3461
춘 천 지 사	0361-241-0633
고 양 지 국	0344-912-2323
영 주 지 국	0572-34-3429
대 전 지 사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 주 지 국	0416-55-0020
고 성 지 국	0556-72-0078
안 산 지 사	0345-408-0961
진 주 지 국	0591-747-0106

강릉자비원 원생 65명 一人一技 '미래준비'

"세계 챔피언 꿈꾸며 샌드백 쳐요" "성악가 될래요"…"피카소 같은 화가"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다는 김두진(포남초등학교5), 권투 세계챔피온이 꿈인 한문종(율곡중2), 합기도 1단의 실력을 가진 김용식(강릉중1), 시설아동합창대회에서 2년 연속 동상을 차지한 이민주양(강릉여중1) 등 모두들 자신들의 기량을 키워가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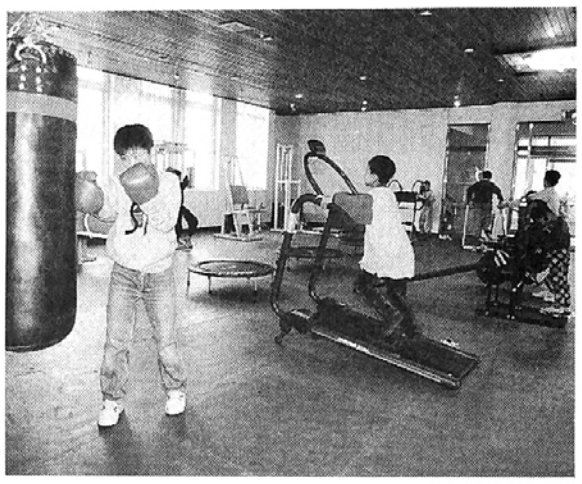
이처럼 불교복지아동시설 강릉자비원(이사장 부등스님) 원아86명 가운데 65명(영아 21명 제외)은 모두 한가지씩 재능을 계발하고 있다.

자비원 원생의 1인1재능 갖기 결실은 2월25일에 있었던 전국소년체전 강원도 최종선발대회에서 맺어졌다. 세계챔피언을 꿈꾸며 자비원 철권들임을 자랑하는 최종민(플라이급) 2위, 신원섭(코코급) 2위, 공영식(밴텀급) 3위, 한문종(스몰급) 3위, 김대환(권급) 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는 처음으로 권투를 하는 원생 모두가 출전했다. 6개월간 밤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노력한 끝에 성취한 메달이기에, 최선을 다한 보람과 자랑스러운 결실이 되었다. 현재 권투 분야를 지도하는 문지호 코치(강릉종합운동장 권투도장)는 "아이들이 처음엔 싸움 배우러 온 것처럼 보였는데 날이 갈수록 예의와 규범이 밝아져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대견스러워 했다.

최승준 자비원 사무국장은 "원생들에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약 2년전 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후원지로: 7609633 자비복지원

〈강릉=고영배 기자〉



◇강릉 자비원에서 원생 전원이 1인1기를 익히고 있다.

황룡사대종 해저탐사 착수

경주시 해군지원 받아

세계 최대의 황룡사 대종과 감은사종이 과연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 97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동해에 수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룡사·감은사 대종을 찾기 위한 해저탐사가 마침내 13일부터 시작됐다. 〈지도 참조〉

경주시는 13세기초 몽골군이 약탈해가다 동해 앞바다에 빠뜨렸다는 황룡사종과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가져가려다 풍랑에 배가 파선돼 역시 이 일대에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진 감은사종을 찾기 위해 해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다.

3백톤급, 30톤급 탐사선 2척과 스쿠버 등 20여명의 탐사 인력, 수중에 가라앉은 물체를 식별해 낼 수 있는 레이다와 금속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지원받은 탐사단은 종이 수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대왕암일대 12만평을 1m 간격으로 한달동안 샅샅이 뒤지게 된다.



"경주경마장 철회 촉구" 고고학회등 서명운동

한국고고학회(회장 임효재)를 비롯한 12개 학회는 경주 경마장 건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범국민적 서명에 돌입했다.

12개 학회는 동참문에서 "유적지가 밀집한 경주에 경마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파괴 행위"라 지적하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탑골공원 노인학교 운영

조계종 '노인사랑 나눔터' 서울시 우수프로 선정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의 탑골공원 노인학교 '노인사랑 나눔터'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시민운동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됐다.

5월초부터 11월말까지 매월 1회 총 7회가 실시될 예정인 노인사랑 나눔터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노인사회교육 노인클럽조직 봉사활동등으로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여가선용방법, 노인과 성, 올바른 식생활, 노인과 건강, 노인과 종교 등의 주제로 노인복지관련 교수 및 전문가가 강의한다.

자원봉사단 봉사활동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미용 구두수선과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대회를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재단 이용권사무국장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인생의가치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화 법왕사 준공 '포교앞장'

유치원·도서실등 갖춰

강화 법왕사(주지 계성)는 현대식건물로는 강화 최대 규모의 법왕사를 신축하고 20일 준공 대법회 및 미타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새로 준공된 법왕사 건물은 대지 358평, 연건평 408평 규모(지하 1층·지상 4층)로 지하 1층에 체육실·청소년 상담실이 들어서고, 지상 1·2층에는 코끼리 유치원·도서실 등을 갖추고 있다.

계성스님은 "불교교양대학, 결혼식장, 어린이 집 등을 갖춰 강화지역 포교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법도량 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 5월 신청받아

조계종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11일 종무회의에서 '전법도량 지정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규정에 따르면, 전법도량은 포교시범사찰과 포교거점사찰로 나뉜다. 시범사찰은 포교활동이 우수하여 타사찰의 모범이 되는 곳이며, 거점사찰은 포교 중요지역과 취약지역에 위치한 사찰로서 포교활성화를 위한 사찰을 의미한다.

전법도량으로 지정되면 종단의 우선적 예산 지원, 주지인사의 우대, 법사단 파견 등의 지원이 이뤄지며, 전법도량은 신도입문교육 및 신도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조직위원회는 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법도량 지정을 위한 작업에 나선다. 5월초 전법도량 신청을 공고하고, 빠르면 6월중 시범사찰 5곳, 거점사찰 5곳을 전법도량을 지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종하·영담스님 이사직 사퇴 요구

불방 범불교대책위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 동출스님 이하 범대위)가 결성돼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고의 수습문제가 범불교적인 차원으로 확대됐다. 범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종하스님 영담스님의 이사직사퇴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범대위는 불교방송 재단이사회와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가 함께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건의 객관적인 진상파악과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주장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범대위는 선우도량, 한국재가불자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불교인권위등 총 1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뜻을 같이하는 단체를 계속 동참시켜 범불교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불교방송 이사장직무대리 영담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은 15일과 17일 각각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와 조만간 회동을 갖고 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현재 이에 대한 종회와 방송국측의 답변이 엇갈리는등 불교방송횡령사고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필이면 비구니연상 광고

동부화재가 최근 자사 자동차보험 이미지광고를 하면서 하필이면 비구니스님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는 광고에서 상단에 '신(神)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카피 위에 삭발한 여인의 사진을 싣고 있다. 이에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특정종교 수행자를 연상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광고의 게재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목탁소리

안타까운 장애인포교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지난해 조계종에서 이례적으로 총무원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과연 몇명의 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해 봤을까? 답은 '거의 없다'이다.

경사로가 심하게 급어있는데다 힘들게 올라갔다고 해도 경사로와 건물바닥이 접하는 곳이 30㎝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20일은 제17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만 다가오면 불거지는 교계의 낯뜨거운 관심은 장애인을 상품화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장애인들은 아무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려고 하지않았고 대부분 후천성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우대나 비하도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불자들은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공동체 의식을 바랄 뿐이라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교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터부시가 강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이 무시되고 있다. 장애인은 현 제도상 출가할 수 없다. 이것은 정화때 '체면과 품격이 떨어진다'는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에 의해 규정된 승려자격 8개조항에 의거해 금지돼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 10대제자이며 맹인으로 '천안제일'이었던 아나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장애인이 절에가면 시설미비보다 곱지않는 시선이 더욱 힘들다고 한다.

장애인 불자들은 신체장애의 벽보다 제도의 벽 물리의 벽 마음의 벽이 더 높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장애인이라 하기전에 인식의 전환을 통한 마음의 장애극복이 절실하다.

현불뉴스

진흥원 '97 청정운동 결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26일부터 27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전국불교지도자 80여명을 초청, 청정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의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97 청정운동 결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행사는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의 '청정운동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각대회의 실천지침을 토의하여 지역별 이벤트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北동포돕기 반대광고 '반박'

조계종 중앙신도회 송재건 회장이 16·17일 일부 일간지 광고면에 게재한 주장과 관련, 교계 9개단체가 17일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회장은 현재 민간단체의 북한돕기 운동이 △북한동포가 남한정부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한다 △북에 지원된 식량은 군과 특권층에 집중돼 전쟁위협을 불러일으킬 뿐 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동포가 즉시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식량원조가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대해 교계단체들은"중앙신도회의 첫 대외 일성이 스스로의 망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직접전달을 하고저 한다면 중앙신도회는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교법사 신분 종헌명시 필요"

지난 12일 동국대에서 열린 전국교법사단 창단 6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욱태법사(부산 해동중)는 '전법의 해에 따른 교법사의 역할과 사명'의 주제발표에서 교법사의 명확한 신분규정은 폭넓은 교화활동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법사는 현재 교법사의 위치는 교학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단으로부터 교화임무를 부여받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이중적 신분을 띠고 있어 교화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민족문화사랑 캠페인

한민족불교증흥회(집행위원장 정념스님)는 27일 서울대 입구에서 '4·27 문화유산 보호와 민족문화 사랑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 연주암까지 산행을 하며 '한민족 한마음 우리문화 사랑하자'는 행사 슬로건이 새겨진 부채를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홍보를 마친 후 연주암에서 강연회도 연다.

27일 전북파라미타 백일장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 준비위원회(위원장 도영)는 27일 오전 9시30분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서 제1회 파라미타 백일장을 개최한다.

또 어울림한마당을 통한 청소년 장기자랑과 금산사일대 환경정화 활동도 벌인다.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얀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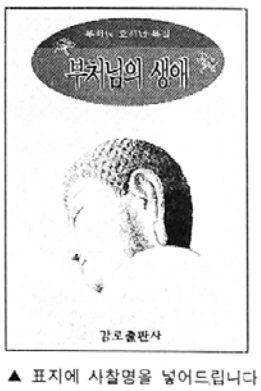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방 송 소 식

김수환추기경 · 강원룡목사 '팔만대장경' 캠페인 동참





불교방송 문화유산의 해 1백일 특집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PD 안희경) 캠페인에 김수환추기경 (사진 위) 강원룡목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추기경과 강목사는 4월7일과 13일부터 각각 일주일간 팔만대장경 전산화에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또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스님과 김영식신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주BBS 개국특집

다큐 '통일의 꿈…' 등 전파

주파수 96.7MHz 불교청주방송이 25일 개국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5일 오후2시 개국기념 법회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통일의 꿈, 미륵의 세상'과 각계 인사의 '축하합니다' 등을 방송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10층 문화센터에서 월주스님 주범덕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 개국축하리셉션도 가질 계획이다.

우바이 MC '인기몰이'

공중파 · 케이블TV서 말솜씨 재치 '진가 발휘'



◇김수진씨



◇김수정씨



◇이영현씨

불심으로 무장한 우바이MC들의 왕성한 활동이 무르익은 봄의 방송가를 더욱 화사하게 하고 있다. 개그우먼 김수진씨, 탤런트 김수정 김소연씨, 영화배우 이혜은씨는 봄개편과 더불어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였고, 미스코리아 출신 MC 이영현씨, 아나운서 이익선씨, 탤런트 김나운씨 등은 종횡무진 MC로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했다.

김수진 김수정씨는 불교TV '신나는 연꽃동산'과 MBC '뽀뽀뽀'로 어린이들의 다정한 친구가 됐다. 김수정씨는 BBS '뚜비니동산'을 진행한 경력을 자랑하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베테랑 진행자. 개그우먼으로 리포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김수진씨는 첫 MC로서의 설레임으로 더욱 열심이다.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을 맡은 여고생 탤런트 김소연씨는 톡톡 튀는 진행이 오히려 참신해 신세대불자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영화배우 이혜은씨는 영화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기치아래 MBC '퀴즈 영화탐험'을 진행하며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김수진 btn '신나는 연꽃…' 진행

이익선 KBS '연예가중계' 안주인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불교TV '자비의 천수천안'의 진행자 이익선씨는 연예계소식을 한눈에 보여주는 KBS '연예가 중계'와 기상캐스터까지 맡고 있어 전천후 진행자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재치있는 말솜씨가 일품인 MBC '사랑의 스튜디오' 이영현씨, 출근길을 즐겁고 상큼하게 열어주는 MBC '신나는 아침세상' 싱싱몰이 김나운씨 등도 방송가에서의 맹활약으로 개성을 인정받고 있다.

강지연 기자



◇이익선씨



◇김소연씨



◇김나운씨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생명바쳐 불법심은 아들 ① (특별상)

뇌종양 아들 살리려 3년동안 부처님께 기원 가피에 감사했는데 다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그리고 아내. 비록 남의 집에서 월세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행복했다. 두 아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고 있었다. 그러나 큰 아이 복신이가 초등학교 1학년 되던 해 우리 가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들었다.

1991년 12월 복신이가 지금껏 본 수 없었던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몇달전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해 동네의 작은 병원을 다녔지만 병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또 큰 문제도 없었다. 그렇게 별 의심없이 지냈는데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던 복신이가 눈이 사시가 되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마침내 풍납동에 있는 서울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설마했는데 감사결과는 악성 뇌종양이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한다해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가족에겐 사형선고였다. 어떻게 우리 복신이가 그런 몹쓸병에 걸렸는지, 왜 그런 병에 걸려야하는지 원망스러웠다.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수술을 해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니….



그림 · 이준석

지금껏 한번도 찾지않던 부처님을 부르며 빌었다. '제발 복신이를 살려달라'고. 35년을 살아오며 한번도 종교를 갖지 않았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사람들이 종교를 운운할 때 나는 말했었다.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는 뭐하러 믿느냐"고 말이다.

아들이 병이나기 1년전인 1990년 서른 네살이 되던 해 내게 뜻하지 않은 병마가 찾아 온 일이 있다.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는 죽을병이 든것 같이 모두들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종교란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두렵기는 했어도 치료와에 다른 것에 의지할 생각은 없었다. 다행히 3개월정도 치료와 요양으로 완치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앞에 나는 죽고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엇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난 부처님을 찾게 됐다. 전에 기독교에서 기도로 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불교로 귀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으로 불연(佛緣)에 의한 것이라 믿고 있다.

복신이가 뇌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방사선 항암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나는 부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다. 복신이를 살려달라고.

그때 나는 작은 영업소에서 관매영업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담당하던 지역에는 옥천암이라는 사찰이 있었고 그 절에는 개천가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기도처가 있었다. 내가 하던 일이 제 구역만 관리하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이었기에 부지런히 움직이면 한시간 정도의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나는 하루도 빠지 않고 그곳에 가서 매일 한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 장마철 흐르는 눈물 빗물을 닦지도 못하고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혹한에도 오직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렸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드리게 된지 1년이 넘었고 직장을 옮기게 됐다. 더이상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자 기도처를 집으로 옮겨 기도를 계속했다.

관음 3대 성지인 보문사 홍련암 보리암, 그리고 갓바위부처님 등 종다는 기도처는 몇번씩 찾아다니며 기도를 했다. 그러기를 3년여. 부처님의 가피력이었는지 우리 복신이는 별 문제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복신이의 머리에 증상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싶었다. 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부처님 뿐이었다. "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거야"라며 마음을 추스렸다.

최성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⑯

♦ The old sages were self-retrained, penitent; having abandoned the objects of the five senses, they studied their own welfare.

옛 선인들은 자신을 억제하는 고행자였소. 그들은 오욕(五欲)의 대상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의(義)를 행하였소.

♦ Having heard and considered that Dhamma, the wise man practising the Dhamma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Dhamma, becomes learned, expert, and skilful, strenuously associating with such a learned teacher.

어진이는 이것을 이해해서 듣고, 이치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함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분별할 줄 아는 이, 총명한 이가 된다.

♦ He who serves a low teacher, a fool who has not understood the meaning, and who is envious, goes to death, not having overcome doubt, and not having understood the Dhamma.

아직도 사물을 이해 못하고 질투심이 있는 소인이나 어리석은 이를 가까이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의심을 버리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다.

♦ Let him in due time go to the presence of his teacher, let him be humble after casing away obstinacy, let him remember and practise what is good, the Dhamma, self-restraint, and chastity.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 사물과 진리와 자제(自制)와 청정한 행동을 마음에 두고 이를 실명하라.

*sage (n) 현인 선인
*practise (n) 연습 실천
*strenuous (a) 끊이지 않는, 힘껏 노력하는
*associate with ~와 교제하다
*serve (v) 섬기다, 시중들다
*envious (a) 시기심이 강한, 질투하는, 샘내는
*doubt (n) 의심, 불신
*presence (n) 대면, 배알
*in due time 때가오면, 적당한 때에
*obstinacy (n) 완고, 고집
*chastity (n) 침정(淸淨), 청순(淸純)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하늘에 핀 연꽃
봉축행사의 대미를 이루는 축제의 장엄물

한번 구입으로 매해 사용하십시오!
독특한 구성, 화려한 색상, 섬세한디자인의 삼전기획등
운반 및 보관시 해체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줄어지고
재사용시 원형대로 복원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봉축등

봉 축 등
■재 질 : 연질고급 P · V · C
■규 격 : 약250×830(m/m)



■화등
선을 택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수서를 소에 비유하여 10가지로 나타낸 심우도



■팔상등
파노라마와 같은 부처님의 생애를 화려하게 표현한 팔상성도의 팔각형등(석가세존일대기)

●연꽃등
종전 연등과는 달리 연잎을 입체로 살리고 연잎속에 연밥을 넣어 실제 연꽃과 같은 감을 살린 공예등

●천불등
불교기상징 오색(청 황 적 백 주황)으로 화려한 수실로 장식된 원통 주름등



贊佛 애드벌룬







■규 격 : 지름(280Cm) 풀폭(880Cm)
■현수막 : 기본 90Cm ×6m
선택 90Cm ×8m(20,000원 추가)
■보급가격 : ₩480,000(현수막 기본 Size포함)
진화주시면 설치하여 드립니다 (지방은 출장비 추가)

본 애드벌룬은 사용후 보관하셨다가 행사때마다 다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봉축현수막



■단청휘장:크기 및 보급가격(90Cm×6m) ₩40,000/(90Cm×8m)₩50,000



■불교기(오색)휘장: 크기 및 보급가격(90Cm×6m)₩ 40,000/(90Cm×8m)₩50,000

봉축리본



■가격
(大) 100매 ₩30,000
(小) 100매 ₩25,000
■ 10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기획제작 三 田 佛 事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03호 조계사후문)
電話 : (02)732-6095~6
FAX : (02) 735-5293